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The Ritual Ceremony of Inje gun People in Korea

김선일 지음



인제문화원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The Ritual Ceremony of Inje gun People in Korea



김선일 지음



인제문화원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

The Ritual Ceremony of Inje-gun People in Korea



인쇄: 2010. 12. 23

발행: 2010. 12. 30

지은이: 김선문

펴낸이: 정병석

펴낸곳: 인제문화원

전화: (033)461-6678 팩스 (033)461-0220

인쇄: 마루금기획 (031-903-1711)

지은이 휴대전화 전화주소

※ 이 책은 군비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발간사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 2'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권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마을신앙이라는 주제는 향토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의 하나로, 지역공간의 생생함을 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현장성을 요구합니다. 2권에서도 인제군민 생활상의 한 단면이 저와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리라 믿습니다.

한 공간에서 문화와 생활환경이 동일한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존거를 위해하는 재앙을 막거나 멀리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번창을 기원하고자 하는 공동의 믿음을 마을 신앙이라 합니다. 마을 신앙은 무형의 정신 작용의 공감대이므로 이를 발현할 수 있는 형식이 필요하며 이 발현의 형식은 바로 제의를 통하여 구현되는데 이 제의를 동제, 당산제, 또는 부락제라고 합니다.

서낭신 산신, 용신, 당산신을 모시는 마을 뒷산 산정상의 국사당, 산 중턱에 산신당, 동구 옆에 서낭당이나 마을 입구에 서있는 장승, 솟대 등이 제의의 대상이 되는 민속신앙의 전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서낭당이 여타의 민간신앙들을 포괄하는 주된 신앙처로 산재하고 있으나 이것도 시대적 변화와 함께 서서히 소멸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 신앙과 그의 발현인 제의 등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개개인에게는 생활속의 도덕성과 경건함, 심신의 청결함과 금욕을 유지할 것이 요구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자연의 한 구성체로서의 인간의 존재를 자각하는 겸손과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에 대

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 신앙은 바로 인간이 마을 즉 자연 속에서 낳고 자라고 사멸한다는 진리를 인식하고 자연과의 동화를 이루어 내고자 했던 자연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닌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갖는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민속 신앙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을신앙이나 민속신앙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나 관광 상품의 하나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을 신앙은 우리 조상들의 자연관과 인생관, 생활 철학 그 자체였으며 우리는 이미 잃든 좋든 이러한 자연관과 생활 철학을 태생적으로 한 내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세계적 위기와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문제 등 21세기 지구촌이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을신앙 속에 담겨있는 의의와 정신이야말로 해결을 위한 첫 디딤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선일 향토사연구위원님의 진리를 위한 끊임없는 학구적 노력과 지역에 대한 다함없는 애정의 결실이 이렇듯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되새길 수 있게 되어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0. 12. 15.

인제문화원장 정 병 석

서문

우리는 흔히 '민속적이다', '전통문화', '민속풍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쓰는 이 '민속'이라는 개념은 그저 옛것,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놀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요즘 같이 서구문화에 한국문화가 가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신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만 봐도 민속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더라도 우리생활은 모두 민속적인 것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생활이다.

한 민족의 풍속은 삶의 터전이 되었던 지리적인 여건과 사상 및 역사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전통문화이다. 그래서 세시풍속은 바로 그 민족의 특성이 되었다. 따라서 어느 민족이든지 교육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자기들의 민족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전통문화는 우리 겨레의 뿌리이다. 전통문화 속에는 조상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들어있다. 그래서 전통문화는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것이고, 우리 겨레를 영원히 살아가게 하는 확실한 끈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제사람들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마을제사와 세시풍속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시키고, 풍요와 건강을 획득하고자 했다. 인제군 민속의 생명은 원형적 고유성과 아울러 전승의 변화과정에 오는 재창조성일 것이다.

필자는 내 고향 인제군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이학주 교수의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에 조사되지 않은 마을 위주로 조사를 다녔는데, 인제군 관내에 이렇게 많은 제당과 민속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다.

그런 인제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마을제사를 통해서 채록하고 조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마을어른이나 이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제물을 마련하고, 산제당과 서낭당에서 제액초복(堤厄招福)하여 풍요와 건강을 비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인제사람들은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 문화를 활용해서 체험마을과 친환경농업마을의 대표 모델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지리적인 여건, 전통문화를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마련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법으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인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제는 강원도 영서와 영동을 잇는 요충지로, 삼림자원이 풍부하여 화전민들이 골짜기에 터를 잡고 아주 오래전부터 생활해왔다. 이런 지리적인 여건과 생활양식으로 인해 다양하고 독특한 민간신앙이 전해오고 있다. 그것은 자연고을 단위의 서낭당과 산제당이다.

이번 인제군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인제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서낭제, 산신제 등은 그 전통성으로 유지하며 전형적인 산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전승 현실이 녹녹치 않았다.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이 줄고, 레포츠나 숙박 사업에 종사하는 외부인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인제지역의 마을제사의 전승 현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번 조사처럼 지속적으로 마을제사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책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인제문화원 정병석 원장님과 백창현 사무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마을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들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각 마을의 제사와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많은 분들

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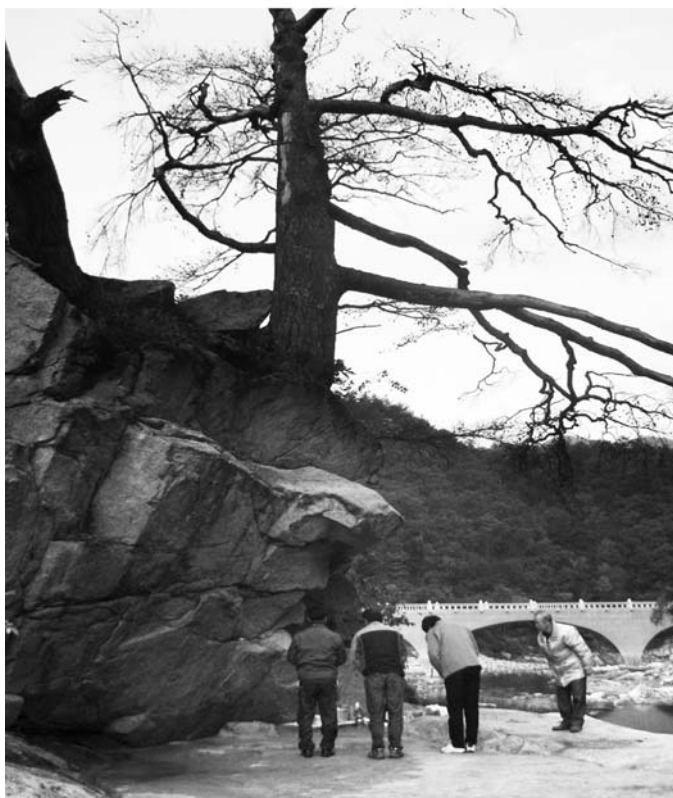
이 책의 내용은 앞으로 이 지역의 군사(郡史)나 마을지를 편찬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인제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자에게 큰 보탬이 될 자료가 될 것이다.

아직 인제군 관내에는 조사하지 못한 수많은 제당이 산재되어 있다. 면적이 넓고 삼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골짜기와 계곡에 제당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적인 여유와 인력을 보충해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마을제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다.

목 차

발간사	3
서문	5
인제지역의 마을제사 조사 자료	
1. 상남면 미산 1리 고로쇠마을 <고로쇠마을 방태산 산신제>	11
2. 인제군 상남면 상남 1리 <상남1리 서낭제>	42
3. 어론리 <청정조각공원 남근조각과 기자신앙>	56
4. 인제읍 원대리 <삽재마을 서낭제>	72
5. 상남면 하남3리 <옷밧골 서낭제와 미기동 서낭제>	85
6. 남면 신흥리 <지내비골 산신제>	101
7. 인제읍 함강리 <인제향교 석전대제>	118
8. 인제읍 고사리마을 <고사리 산신제>	152
9. 인제읍 하추리 <가래나무골 서낭제>	171
10. 상남면 하남1리 매화동 <매화동 산신제와 서낭제>	191
11. 기린면 진동1리 <상치전골 서낭제>	212
12. 북면 용대1리 <용대1리 마을제사>	223
12. 남면 신흥1리 <유목동 닭마우 서낭제>	246
14. 상남면 상남2리 <용소마을 서낭제>	264
15. 기린면 현4리 <임명골 산신제>	286
16. 북면 원통2리 <아전살이 서낭제>	299
참고문헌	310

인제지역의 마을제사 조사 자료



1. 상남면 미산 1리 고로쇠마을

고로쇠마을 방태산 산신제



미산리 방태산 산신제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8월 15일 09시~13시

2010년 10월 16일 15시~21시

2010년 10월 17일 09시~13시

조 사 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제 보 자: 황광호(남,45)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이장.

박영화(남,48)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용금자(여,40)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김창수(남,44)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이강희(남,48)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임경래.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사무장.

성지스님.

정암스님.

(2) 마을유래와 개관

◎ 마을 경력

- ▶ 행자부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 ▶ 새농촌건설 '강원도 대표 모델마을'
- ▶ 산림청 지정 '가고 싶은 산촌 생태 마을 15선'
- ▶ 농촌진흥청 지정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농촌마을 100'

본래 미산리는 강릉군(江陵郡) 내면(內面) 내삼리(內三里) 지역으로 미산(美山), 미산동(美山洞)이라고 불렀으나 광무10년(1906)에 인제군(麟蹄郡)에 편입되었다가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연동(龍淵洞)을 병합하여

강릉군(江陵郡) 내면(內面)으로 환원되었으며 1939년에 다시 인제군(麟蹄郡)에 편입되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양분되면서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인제군(麟蹄郡) 기린면(麒麟面)으로 환원되어 기린면 상남출장소 관할하에 있었다. 1983년 1월 10일 상남출장소가 상남면으로 승격되어 상남면(上南面) 미산리(美山里)라 하였으며 행정리수는 2개리다.

◎ 마을현황

가구(호)			인구(명)		
계	농가	비농가	계	남자	여자
79	56	23	173	90	83

● 거북바위

한니동에 위치한 바위로 예전부터 이 바위에 제당을 설치하고 산신제를 지냈다고 해서 지당바위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그 모양새가 거북이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이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영험한 동물로서 현재도 이 바위 앞에서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날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 율곡 선생과 “나도 밤나무 전설”

방태산 등산로의 하나인 한니동 계곡 입구에서 150m 정도 걸어가면 수령이 400~500년 된 밤나무 고목이 있는데(유래 표지판 설치), 이곳 주변에 얽힌 전설이다.

이율곡 선생의 부친이 율곡을 데리고 이곳을 지나다 주막에서 하루 머무르게 되었는데 꿈에 도인이 나타나 “너의 아들 수명이 길지 못하다.”고 말하고는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면서 “이 마을 뒷산에 1,000그루의 밤나무를 심고 떠나라.” 하기에 몇 일 동안 심었다. 어느 날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나무를 세어보자 기에 한그루가 모자라는 999그루였다. “한 그루는 어디에 있느냐?”고 호랑이가 다그치자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가 튀어나오며 “나도 밤나무”라고 외쳐 화를 면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이 밤나무 고목은 율곡 선생이 심은 밤나무라고 전해온다.

- 용바위와 용마(龍馬) 전설

이 전설은 이조시대에 지금의 용바위(마을회관에서 내면 방향으로 3km 지점의 미산 계곡내에 위치)가 있는 주변을 용연동으로 불렀는데 그 곳에 가난하게 살던 노부부가 있었다. 어느 해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가 어려서 부터 매우 험한 산을 뽀박질하며 오르내리고 한 번 집을 나가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고 나가 지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두 부부는 큰 걱정과 근심을 이기지 못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니 그 아이가 집안은 물론 마을에게

도 큰 흉조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두 부부는 생각하다 못해 그 아이를 잡아 죽였는데 그 때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는 비늘 세 개가 붙어있었다 한다. 그 후부터 얼마 안 되어 용바위에는 용마 한 마리가 자주 나타나 며칠



씩 울어댔다는 슬픈 전설을 간직한 곳이다.

위와는 다른 전설로 용이 하늘로 승천하였던 자리라 하여 용바위라 한다. 실제 바위 밑에 커다란 구멍이 나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미산1리 산신제당은 골짜기마다 여러 개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각 반 별로 골짜기에서 산신제를 매년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두 번 지낸다. 제당이 많고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마을제사를 함께 올리는 의견이 모아졌고 2007년 제1회 방태산 산신제, 방태산 문화제를 시작으로 1박 2일의 일정으로 마을제사가 시작되었다.

2010년 미산1리 고로쇠마을의 산신제는 10월 16일(음력9월 9일)~17일 미산1리 산림휴양관 일원과 한니동 거북바위에서 열렸다.

10월 16일(음력 9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한니동 거북바위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방태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산신제당

한니동 거북바위는 마을 회관에서 개인산 입구 방향으로 1km 정도 차로 이동하면 다리를 건너 우측의 ‘개인산 약수터’라는 표지

판을 따라 우회전해서 2km 정도 올라가면 방태산 등산로 입구가 나온다. 방태산 등산로 입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등산로 입구를 따라 1시간 정도 등반해야 한다.

방태산 등산로를 따라 등반을 하다보면 좌측에 미산1리 주민들이 산신제를 올렸던 제당을 만날 수 있다. 제당은 바위 옆에 나무로 기둥을 해서 놓고 그 위에 슬레이트로 지붕을 해서 덮었다. 당의 크기는 높이가 80cm 정도이고, 넓이가 1m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다. 제당 안에는 한지를 걸어두었다. 제당 주변에는 나무들이 뺏뺏하게 들어차 있다.

이 곳 제당은 주민뿐만 아니라 방태산과 개인산에서 산삼을 캐기 위해 온 심마니들이 제를 올린다고 한다. 이들은 입산하기 전에 산신제당에서 개인적으로 과일, 포, 술을 올리고 산삼이 눈에 띄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방태산 등산로를 따라 1시간 정도 등반하면 거북이를 닮은 바위가 있다. 제당의 형태는 자연 상태의 바위로 크기는 높이 20m, 넓이 30m 정도 된다.

제당의 이름을 주민들은 한니동 계곡에 있는 바위라고 해서 ‘한니동 거북바위’라고도 하며,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라는 뜻에서 ‘지당바위’라고도 한

다. 산신제의 이름은 방태산에 있다고 해서 ‘방태산 산신제’라고 한다.

그리고 거북바위 머리 부분에는 마을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쌓아 만든 돌탑이 있다.

거북바위 아래에는 산신제가 끝나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먹을 수 있는 초가집과 정자가 있다.



방태산 산신 징승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미산1리 산신제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일 년에 두 번 지낸다. 방태산 산신제는 문화제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0년 음력 9월 9일 (양력 10월 16일) 방태산 산신제는 오후 2시 마을회관에서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제사가 시작된다.



방태산 산신제가 열리는 한니동 거북바위

음력 9월 9일(10월 16일)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서 마을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산신제와 문화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오후 9시가 되면 낮에 깎은 장승을 가지고 방태산 산신제 장승 점안식을 한다. 점안식은 '방태산 산신령님의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로 시루떡과 소주, 돼지 머리를 제물로 해서 고사를 지낸다. 고사는 마을대표로 이장이 먼저 배례한다.



제4회 방태산 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

절을 올리고 나서, 돼지 입에 정성껏 돈을 물리고 술을 세 번 장승에 뿌린다. 주민들과 참가자들의 고사가 끝나면 마을대표와 장승 제작에 참여한 사람, 정암스님 등이 장승에 매달았던 줄을 끊는 행사를 하고 장승을 세운다.

장승은 육송을 가지고 두 개를 만든다. 한 개는 미산1리 고로쇠마을을 지키는 장승으로 여자장승이다. 다른 한 개는 방태산신을 뜻하는 장승으로 남자장승이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오래전에는 마을의 큰 어른이 제사를 주관 했지만 점차 이장이 초헌관이 되어 제사를 진행하였다가 최근에는 특별한 제관의 선정 없이 반 별로 소소하게 산신제를 지냈다.

골짜기마다 소소하게 산신제를 지내오다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마을제

사를 공동으로 지내지는 의견이 모아져서 2007년을 시작으로 지금은 일 년에 두 차례 한니동 거북바위에 산신제를 지낸다.

제관은 성지스님이 불교식으로 주관하고, 마을대표로 미산1리 이장과 정암스님이 산신제 진행을 돕는다.

도가는 산신제와 문화제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마을부녀회에서 제사 음식과 식사를 준비한다. 옛날처럼 제관과 도가를 선정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방태산 산신제 준비에 소홀함이 없다.



산신제를 주관하신 성지스님

© 2010년 제4회 방태산 산신제 행사 계획표

날짜	시간	내용	장소
10월 16일(음력 9월 9일)	오후 2시	-가훈쓰기, 다도체험 -걸개그리기 체험 -장승깎기, 지공예 체험	마을회관 상설체험장 운영
	오후 7시	<방태산 문화제> -내빈소개 및 인사 -난타 공연, 플룻연주 -전통춤, 시낭송 -7080 가요, 색소폰연주	
	오후 9시	-달빛 취하기 -모닥불 점화 -마을 노래방 -풍등 띄우기 -풍물 난장	
10월 17일(음력 9월 10일)	오전 10시	-한니동 등반	
	오전 10시	<방태산 산신제>	
	오후 1시	<음복>	

③ 제비와 제물

옛날에는 미산1리 5개 반 주민들이 정성으로 낸 비용을 모아서 제비를 마련하여 반마다 따로 산신제를 올렸지만 최근에는 3개 반 주민들만이 산신제를 지냈다.

그러다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와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마을제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제사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후 2007년 제 1회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미산1리 주민들 모두가 함께 마을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산신제에 올리는 제물은 돼지머리, 물, 시루떡, 대추, 꽃감, 밤, 배, 사과, 술 등을 올린다.



한니동 거북바위 아래의 초가집과 정자

④ 제수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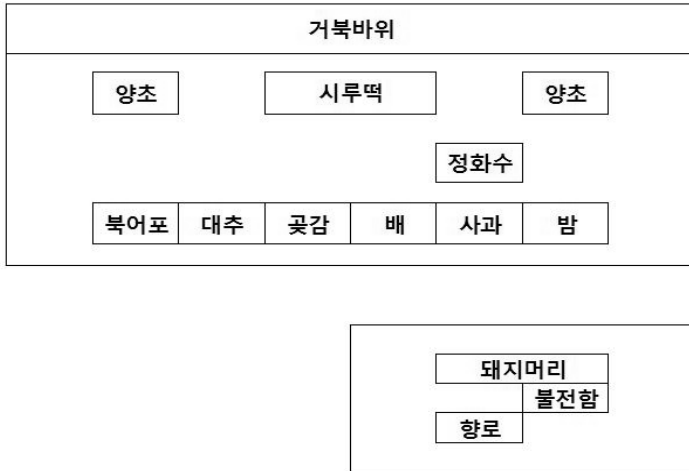
마을제사의 준비는 미산1리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마을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도가집을 정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

산신제 전날 열리는 문화제에는 저녁에 돼지고기, 국수, 부침개 등을 준비해서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음주가무를 즐긴다.

다음도표는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사용한 경비내역을 정리한 도표이다.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는 마을운영비와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운영비,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300 만원을 포함해서 총 1000만 원 정도 사용됐다.

사업비 구분		집행 세부내역	집행액	강원문화재단 지원금
인건비	출연료	200,000원 * 17명	3,400,000	200,000
	스 탭	50 * 10명 * 2일	1,000,000	
	소 계		4,400,000	200,000
제작비	소 품	페인트 외	302,700	302,700
	자 재	밧줄 외	138,050	138,050
	무 대	돛자리 외	495,300	495,300
	홍보물	현수막 6식	455,300	455,300
	리플릿	1000부	308,000	308,000
	제례상	돼지머리 외	500,650	500,650
소 계		2,200,000	2,200,000	
진행비	교통비	주유비	100,000	
	식 비	4,000 * 3식 * 100명	1,200,000	
	소 계		1,300,000	
임차비	영상임차 비	500,000	500,000	500,000
	스피커	100,000	100,000	100,000
	소 계		600,000	600,000
기타	숙박비	60,000 * 15개	900,000	
	주류	500,000	500,000	
	음료	100,000	100,000	
	소 계		1,500,000	
합 계			10,000,000	3,000,000

◎ 산신제 제물 진설내용 및 위치



⑤ 금기방법

산신제 제일이 다가오면 주민들은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제물을 구입한다. 산신제와 문화제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100여명 가까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한다.

산신제에 사용할 제물은 정성껏 준비해서 뚜껑을 덮고, 시루떡은 봉지를 감싸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절대 열지 않는다.



정암스님이 돌탑에 오방끈을 휘감는 모습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음력 9월 10일(양력 10월 17일) 오전 10시 방태산 산신제가 마을주민과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태산 한니동 거북바위에서 엄숙히 봉행되었다.

한니동 거북바위에 도착하면 제일먼저 제단을 청소하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은 시루떡과 북어포, 대추, 꽃감, 배, 사과, 밤, 돼지머리, 향을 올린다.



성지스님과 향을 피우는 마을대표

성지스님의 예불로 방태산 산신제를 시작한다.

〈산신청〉 山神請

◎ 보례진언(寶禮眞言)

(삼보님전 두루 두루 예를 올리는 주문)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신 봉헌산신전 일일무수례

我今一身中 卽現無盡身 奉獻山神前 一一無數禮

부처님 앞에 선 제가 이 한 몸 돌이켜 살펴보니 곧바로 헤어릴 수 없이 많은 제 몸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신 전 앞에서 그 하나하나의 몸들이 무수히 예배 공양드리웁니다.

『옴 바이라 믹』 - 3번
(시간에 따라서 천수경 독경을 올린다)

◎ 거목(擧目)

나무 만덕고성 성개한적 산왕대신(절)
南無 萬德高勝 性皆閑寂 山王大神
만가지 덕을 높게 쌓고, 수승하시며 성품이 모두 고요하신 산왕대신

나무 차산국내 항주대성 산왕대신(절)
南無 此山局內 恒住大聖 山王大神
이산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큰 성인이신 산왕대신

나무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절)
南無 十方法界 至靈至聖 山王大神
시방법계에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산왕대신

◎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모든 의식에서 시방법계에 두루 계신 불, 보살님이나 영가를 청할 때 이 진언을 한다.)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타 아다야』 - 3번

◎ 유치(由致) - 합장

(불공을 올리는 연유를 아뢰는 의식)

절이 산왕대성자 최신최령 능위능맹 능맹지처 최요항마 최령지시
切以 山王大聖者 最神最靈 能威能猛 能猛之處 催妖降魔 最靈之時
간절히 사뢰옵나니 가장 신묘하고 가장 영험스러운 산왕대성께서는 혹은 위풍으
로 혹은 용맹으로, 용맹스러우실 때에는 모든 마군을 항복 받으시고

소재강복 유구개수 무원부중 시이사바세계 남섬부주 동양
消災降福 有求皆遂 無願不從 是以 娑婆世界 南瞻部洲 東洋

가장 신령스러운 곳에는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리시며 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
고 원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음이 없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바세계 이사천하
남섬부주 동양

대한민국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방태산하 보은사 청정수월 도량
 大韓民國 麟郡鄆 上南面 美山里 芳台山下 報恩寺 請淨水月 道場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방태산하 보은사 청정한 도량에서

원아금차 지극지정성 공양발원재자
 願我今此 至極至精誠 空養發願齋者
 오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마련하고 예배드립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미산리부녀회, 미산리작목반, 미산리노인회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미산리부녀회, 미산리작목반, 미산리노인회

각 각등 보체 이차인연공덕 산신제지원
 各 各等 保體 以此因緣功德 山神祭之願
 각각 등 보체 등이 이 인연공덕으로 산신제를 지원하고

이 금월금일 건설법연 정찬공양 산왕대신 병종권속 기회영감 곡조미성 양표일심
 선진삼청

以 今月今日 虔說法筵 淨饌供養 山王大神 竝從眷屬 冀回靈鑑 曲照微誠 謹秉一心
 先陳三請

금월금일 경건히 법연을 마련하고 깨끗한 공양구를 산왕대신님과 모든 권속님들
 께 공양하오니 신묘한 거울을 돌리시어 애절한 정성을 굽어 비취 주옵소서. 우러러
 일심으로 먼저 삼청하옵니다.

◎ 청사(請詞)

(모든 불보살님들이 자비와 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 것을 찬탄하고 불공 올리는
 이곳에 오시기를 청하는 뜻)

나무일심봉청(南無一心奉請)
 (한마음으로 귀의하며 받들어 청하옵나이다.)

후토성모 오악제군 직전외아 팔대산왕 금기오온 안제부인
 后土聖母 五岳帝君 職典嵬峨 八大山王 禁忌五蘊 安濟夫人
 어머니처럼 땅 전체를 맡으신 오악제군님들과 높은 봉우리를 맡으신 팔대산왕님
 들과 오온의 목들음을 금기하신 안제부인과

익성보덕진군 시방법계 지령지성 제대산왕 병중권속
 益聖保德眞君 十方法界 至靈至聖 諸大山王 竝從眷屬
 성스러움을 더하고 덕을 보존하시는 여러 진군님들과 시방세계에 매우 신령스러
 우시고 매우 성스러우신 모든 산왕님들과 그리고 그 권속이신 여러 산왕들이시여,

유원승 삼보력 강림도량 수차공양
 唯願承 三寶力 降臨道場 受此供養
 바라옵건대, 삼보의 위신력을 받자와 도량에 강림하시어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 향 화 청(香花請) - 3번
 (향과 꽃으로 부처님을 청하는 것)

◎ 가영(歌詠) - 목탁
 (부처님의 공덕을 읊으면서 불공을 올리면서 이 도량에 오시기를 청하는 노래)

영산석일여래족 위진강산도중생 만리백운청장리 운거학가입한정
 靈山昔日如來囑 威鎮江山度衆生 萬里白雲靑嶺裡 雲車鶴駕任閑情
 영산회상에서 법을 설하시던 부처님께서 열반시에 모든 산신에게 부촉하시기를,
 산과 강에서 위엄을 떨치어 중생들을 구호하라 하심, 만리에 희구름이 가득하고 푸
 른산봉우리와 마을이 겹겹이 둘러있는데 구름을 수레삼고 학을 가마삼아, 한가하게
 고요함에 임하도다.

고아 일심 귀명정례(반배)
 故我 一心 歸命頂禮
 이에 일심으로 귀명하여 이마를 땅에 대고 예를 올리나이다.

◎ 헌좌진언(獻座眞言)
 (삼보를 자리에 앉도록 권하는 의식으로, 즉 진리를 안래하는 진언)

아급경설보엄좌 봉헌제대산왕전 원멸진노망상심 속원해탈보리과
 我今敬說寶嚴座 奉獻諸大山王前 願滅塵勞妄想心 速圓解脫菩提果
 제가 지금 경건하게 보배자리 마련하여 대산왕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원하건대
 번뇌띠를 망상심을 없애고서 속히 해탈하여 보리과를 원만히 하소서.

『옴 가마라 승하 사바하』- 3번

◎ 공양계 - 목탁
(공양을 올리는 노래)

이차청정향운공 봉헌제대산왕전 감찰재자건감심
以此清淨香雲供 奉獻諸大山王前 鑑察齊者虔懇心
청정하온 향의 구름을 공양으로 대산왕전에 받들어 올리오니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 살피사

『원수에납수』(절) 『원수에납수』(절) 『원수자비에납수』(절)
願垂哀納受 願垂哀納受 願垂慈悲哀納受
자비를 드리우사 받으시옵소서 자비를 드리우사 받으시옵소서 자비를 드리우사
받으시옵소서.

◎ 예참 - 목탁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공양드리며 참회하는 의식)

지심정례공양 만덕고승 성개한적 산왕대신(절)
至心頂禮供養 萬德高勝 性皆閑寂 山王大神
지극한 마음으로 만가지 덕을 높게 쌓고, 수승하시며 성품이 모두 고요하신 산왕
대신께 엎드려 절하오며 공양 올리나이다.(절)

지심정례공양 차산국내 항주대성 산왕대신(절)
至心頂禮供養 此山局內 恒住大聖 山王大神
지극한 마음으로 이산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큰 성인인신 산왕대신께 엎드려 절
하오며 공양 올리나이다.(절)

지심정례공양 십방법계 지렁지성 산왕대신(절)
至心頂禮供養 十方法界 至靈至聖 山王大神
지극한 마음으로 십방법계에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신 산왕대신께 엎드려
절하오며 공양 올리나이다.(절)

◎ 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

(널리 삼보님들 전에 공양을 올리는 진언)

『옴 이아나 삼바바 바이라 흙』 - 3번

◎ 보회향진언(普回向眞言)

(자신이 지은 공덕을 널리 모든 법계의 일체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진언)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 마하 자가라바 흙』 - 3번

◎ 산왕경(山王經)

대산소산 산왕대신 대약소약
산왕대신
大山小山 山王大神 大岳小岳
山王大神

대각소각 산왕대신 대축소축
산왕대신
大覺小覺 山王大神 大丑小丑
山王大神



향을 올리는 주민들의 모습

미산재처 산왕대신 이십육정 산왕대신
尾山在處 山王大神 二十六丁 山王大神

외악명산 산왕대신 사해피발 산왕대신
外岳明山 山王大神 四海被髮 山王大神

명당토산 산왕대신 금귀대덕 산왕대신
明堂土山 山王大神 金貴大德 山王大神

청룡백호 산왕대신 현무주작 산왕대신
靑龍白虎 山王大神 玄武朱雀 山王大神

동서남북 산왕대신 상방하방 산왕대신
東西南北 山王大神 上方下方 山王大神

원산근산 산왕대신 흥산길산 산왕대신
 遠山近山 山王大神 兪山吉山 山王大神

◎ 정근(精勤) - 목탁
 (불보살 생각하고 명호를 부르는 기도)

나무 만덕고성 성개한적 산왕대신(산왕대신 산왕대신 ~~~)
 南無 萬德高勝 性皆閑寂 山王大神
 만가지 덕을 높게 쌓고, 수승하시며 성품이 모두 고요하신 산왕대신 산왕대신~~

◎ 원성취진언(願成就眞言)
 (소원하는 바가 원망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진언)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훴』 - 3번

산신경 예불을 하면서 성지 스님의 안내에 따라 마을대표가 반절을 하고 향을 하나 올린다. 이 때 성지스님은 계속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올린다.

마을대표가 향을 올리고 나면, 정암 스님이 시루떡 봉지를 열고, 정화수 뚜껑을 열고 잔을 세 잔 올린다. 그리고 향을 올린다.

성지스님의 예불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주민과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돼지머리와 불전함이 있는 곳에 와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깨끗이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정성껏 불전함에 돈을 넣거나 돼지머리에 돈을 끼운다.

예불 중간에 성지스님과 참가자 전원이 '산왕대신' 이라고 3~5분 정도 반복적으로 외친다. 이유를 묻자, 정암스님은 "예불로 불러 온 산신님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정성을 잘 받아달라는 의미에서 참가자 전원이 '산왕대신'이



마을주민들과 참가자들이 소지올리는 모습

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한다.

산왕대신을 외치면서 참가자들은 한 명씩 향을 올리는데, ‘향초가 타면서 올라가듯이 나를 대신해서 향을 태워 올린다는 의미’이다. 향을 올리는 사람 외에 다른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산왕대신을 외친다.

참가자들의 향을 올리는 절차가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마을대표가 마을소지를 먼저 올리고, 참가자들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참가자들은 불전함이나 돼지머리에 다시 성의를 표하고 잔을 세 번 올린다. 그리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성지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축문을 읊는다. 소지가 잘 타지 않으면 다시 올린다.

참가자들의 소지를 모두 올리면 산신제는 마무리된다. 마을제사가 끝나면 거북바위 아래에 있는 초가집과 정자에서 점심을 함께 먹는다. 2010년 음력 9월 10일(양력 10월 17일) 방태산 산신제에는 삼계탕과 시루떡을 함께 나눠 먹으면 음복했다.



제물을 진설하고 예불을 올리는 성지스님

② 축문

양고 제대산왕대신전 침수연민지지정 각방신통지성력
 仰告 諸大山王大神前 僉垂憐愍之至情 各放神通之聖力
 상래소수공덕해 회향삼치실원만
 上來所修功德海 回向三處悉圓滿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해동
 娑婆世界 此四天下 南瞻部洲 海東
 대한민국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방태산하 보은사 청정수월 도량

大韓民國 麟郡蹄 上南面 美山里 芳台山下 報恩寺 請淨水月 道場
 원이금차 지극정성 헌공 발원제자
 願我今此 至極精誠 獻供 發願齋者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미산리부녀회, 미산리작목반, 미산리노인회
 각 각등 보체 이차인연공덕 일일유천상지경 시시무백해
 各 各等 保體 以此因緣功德 一一有千祥之慶 時時無百害
 농업자 오곡풍족 박복자 복덕구족
 農業者 五穀豐足 薄福者 福德具足
 상업자 재수대통 사업자 사업성취
 商業者 財數大通 事業者 事業成就
 병고자 속득쾌차 마을주민 화합발원
 炳苦者 速得快差 마을住民 和合發願
 사대강건 육근청정 안과태평 수명장원 자손창성
 四大強健 六根請淨 安過泰平 壽命長願 子孫昌盛
 부귀영화 심중소구소원 만사여의 원만형통지대원
 富貴榮華 心中所求所願 萬事如意 圓滿亨通之大願
 연후원 원제유정등 삼장돈제 오복증승 원제유정등 삼업개청정
 然後願 願諸有情等 三障頓除 五福增崇 願諸有情等 三業皆清淨
 봉지제불교 화남대성존 구호길상 마하반어바라밀
 奉持諸佛教 和南大聖尊 俱護吉祥 摩訶般若婆羅密

〈축문해석〉

모든 산왕대신님께 우리러 고하나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을 향한 지극한 연민의 마음 드리우시어 신통력으로
 보살피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닦아 온 모든 공덕의 바다 삼처에 다 회향해서 모두 원만
 하여지이다.
 해동 인제군 미산리 방태산 보은사에서
 오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미산리부녀회, 미산리작목반, 미산리
 노인회
 각각의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엮드려 바라옵니다.
 오늘 이 인연 공덕으로 매일매일 천가지 경사만 일어나게 하옵시며
 어느 때 어느 곳이든 백가지 재앙이 없어지길 바라옵니다.
 농업자는 오곡이 풍족하게 하시고, 복이 없는자는 복과 덕을 모두

갖추게 하시고

상업자는 재수대통하게 하시고, 사업자는 사업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병고자는 빨리 쾌차하고, 마을주민들간에 화합하기를 발원합니다.

지(地), 수(水), 화(火), 풍(風) 사대(四大)가 강건하며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마음(意) 육근(六根)이 청정하길
바라웁니다.

또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목숨이 짧은 이는 수명이

늘어나고

마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일은

뜻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나이다.

원하옵건데 모든 중생들이

몸과 입, 마음으로 지은

삼업이 청정해지며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받들도록 하옵소서

대성존께 절하오니 함께 길상을 보호하여, 큰 지혜로써 열반 언덕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방태산 산신 장승을 만드는 김민철 제보자

(4) 영험담

특별한 영험담은 없다.

미산1리는 옛날부터 심마니들과 화전민 들이 생활터전이였다. 방태산 산신제가 열리는 한니동으로 등반하기 전에 방태산 등산로가 아닌 도로를 따라 차로 20분 이동하면 개인약수터가 나온다. 차량을 이용해 굽이도는 산길을 따라 중턱까지 오른 뒤, 다시 원시림의 짙은 숲길을 40분 쯤 걸어가야 만날 수 있는 개인약수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해발 약 1000m 지점에서 샘솟는 탄산약수다. 1891년 함경북도 출신의 지덕삼이라는 포수가 백두대간에서 수렵생활을 하던 중에 발견했다고 전한다.

약수터 둘레엔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빌며 쌓아놓은 돌담이 늘어서있다. 또 심마니들이 산신제를 올리는 제단이 남아있는데, 이는 약수 앞으로 흐르는 맑은 계류와 어울려 무속적인 분위기를 잘 자아낸다. 이 약수를 정화수로 올려놓고 기도하면 신이 잘 내리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여기에서 신을 많이 받아간다고 한다.



장승 점안식 때 황광호 이장이 배례하는 모습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약수터 위쪽에 ‘용궁사’라는 자그마한 절집이 있었는데, 산신당엔 약수로 병을 고친 환자들이 남긴 현판이 여러 개였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엔 이곳에서 100여명의 환자들이 상주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이들 중엔 올라올 때는 업혀왔지만 내려갈 땐 자기 두발로 내려가는 이들도 많았다고 전해온다. 그만큼 약효가 높은 약수다.

심마니들은 방태산 곳곳에서 제를 올린다. 특히 한니동 거북바위에 오르기 전에 있는 산신제당에서 제를 많이 올린다. 이들은 입산하기 전에 과일과 포, 술을 제물로 하여 향을 키우고 산삼이 눈에 띄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때로는 정화수만 떠놓고 입산 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오방색 천과 산신제에 참가한 사람들

심마니들의 제사는 산삼을 꼭 만나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산삼 캐러 산에 다닐 때 다치지 않고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치성

이기도 하다.

산삼을 발견했을 때는 산에서 내려와 제당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제를 올리고 마을에서 잔치를 열기도 했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의 운영은 작년까지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가 주관해서 이루어 졌다. 작년의 경우 산신제와 문화제에 쓰인 경비는 총 1000만 원이다. 공연 팀은 대부분 별다른 공연비 없이 무료로 참여한다.

2010년 방태산 산신제는 미산1리 고로쇠마을과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가 함께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경비는 마을운영비와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운영비, 강원문화재단에서 받은 지원비를 사용했다.

마을제사의 결산은 산신제가 끝나고 한달 안에 마을회의를 열어서 지출내용과 비용을 마을주민들과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사람들에게 알린다.



산신제 전날 문화제 행사가 열리는 무대

3) 마을제사의 특징

마을은 마을사람들이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집이 한 가족의 생활공동체라면, 마을은 마을사람들의 생활공동체이다. 이러한 마을은 자

연이라는 특성으로 묶이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신앙을 영위한다.

고로쇠마을의 산신제는 남녀가 같이 참여를 하며, 최근에는 관광 레저사업을 통해서 외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외부인들도 제사에 참여한다.



산신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쓰는 축원문

이곳 고로쇠마을은 산신과 성황신을 따로 모시지 않고 한곳에다가 모신다. 마을 주민들은 산신제를 지낸 후로 마을에서 사건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제사를 드리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개인의 소원을 빈다.

방태산 산신제에는 제사 전날 문화제가 열린다. 마을의 전통문화 및 미풍약속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문화의 중요성과 자긍심을 부여한다.

특히 전야제 행사를 통해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산사 음악회와 공예품 및 농수산물 판매 수익금을 인제군 결식아동 돕기에 사용한다.

방태산 산신제는 틀에 박히고 형식적·작위적인 여타의 축제가 아닌, 마을의 친환경 농산물과 자연, 사람냄새, 전통 제례행위로 어우러지는 작지만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고로쇠마을의 산신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을 주민 외에 심마니들이 올리는 제사가 있다. 예로부터 인제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였으며, 산삼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인제 지역은 1980~90년대까지만 해도 8~90명의 심마니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심마니의 활동 역시 주목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심마니들은 마을주민들이 제사를 올리는 같은 산신제당에서 제를 올린

다. 이들은 입산하기 전에 제당에서 개인적으로 과일과 포, 술을 제물로 하여 향을 키우고 산삼이 눈에 띄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때로는 정화수만 떠놓고 입산 제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제사는 심마니들이 산삼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산삼 캐러 산에 다니는 동안 다치지 않고 액운으로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치성이기도 하다. 심을 봤을 때는 산에서 내려와 제당에서 감사하다는 의미의 제를 올리고 마을에서 잔치를 열기도 했다.



거북바위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 모습

4) 산제당 근처의 산삼금표(山蔘禁標)

조선시대에 황장목(黃腸木)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림 구역을 만들어 표시를 해놓는 제도인 황장금표(黃腸禁標)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황장목 보호림 가운데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위치한 황장금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산삼의 금표인 ‘산삼가현산 서표(山蔘加峴山西標)’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산1리 고로쇠마을이 산신제당으로 가는 개인산 입구의 바위에는 ‘산삼가현산 서표’가 있다. ‘산삼이 많이 생산되는 산의 서쪽’이라는 뜻으로 일종의 금표(禁標)이다.

금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물이나 지역에 일정한 표식을 두어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하거나 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는 조선시대 산림정책이다.

산삼의 경우도 이와 같이 금표가 있었는데 1992년에 정선군 가리왕산에 임도를 내면서 발견한 ‘강릉부 산삼봉표(江陵付山蔘封標)’와 인제군 상남면 미산1리 ‘산삼가현산 서표’가 그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산에는 어디서나 산삼이 자라고 있었으나 고려 말에 원나라의 무리한 요구로 산삼을 무차별 남획하게 됨으로써 산삼이 급격히 줄게 되었다고 한다. 산삼의 수가 줄자 산삼생산지에 산삼 채취를 금하는 금표(禁標)까지 세우게 된 것이다.



『산삼가현산 서표』가 새겨진 바위

5) 2010년 음력 9월 9일 방태산 산신제 참관기

하남1리 마을제사가 끝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임경래 사무장하고 통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다.

미산1리 고로쇠마을의 마을제사는 이미 두 차례 조사를 했지만, 10월 16일~17일 1박 2일 동안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가 열린다고 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가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새벽 4시부터 고사리, 하추



소지를 올리는 참가자들

리, 하남1리 마을제사를 참가해서 그런지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2010년 제 4회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가 시작하기 전까지 고향집에 한숨 자고 출발하기로 했다.



난타 공연 모습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에는 오후 2시부터

다양한 체험학습장이 열렸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미산1리 산림휴양관에 모여 있었다.

낮에는 가훈쓰기, 다도체험, 장승깎기, 지공예 체험 등이 마을 어린이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았다.

저녁이 되어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마을부녀회에서 준비한 국수와 전, 양념돼지고기 등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함께 나눠 먹으며 문화 예술 행사를 즐겼다.

난타 공연과 플룻 연주, 7080 대중가요 등을 함께 듣고 따라 부르며 주민들과 관광객은 하나가 됐다. 주민들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행사장에는 7~8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필자도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정암스님과 임경래 사무장, 미산1리 이장님과 식사를 함께 하며 술을 먹었다. 산신제와 문화제 행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 순간 필자도 축제에 흠뻑 빠져 들었다.

여러 공연팀의 공연이 시작할 때마다 주민들은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하고 함께 어울렸다. 공연팀의 대부분은 공연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공연한다고 한다. 함께 축제의 주체가 되어 즐기고 참여한다.

마을주민들은 공연팀과 외부에서 찾아 온 분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

한다. 방태산 산신제와 문화제 행사는 마을제 사이면서,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이 함께 들어가는 축제였다.

공연팀의 공연이 끝나고 방태산 산신의 눈을 뜨게 한다는 방태산 산신 점안식을 시작했다. 점안식은 돼지머리, 시루떡을 제물로 올리고, 마을대표부터 절을 하고 술을 세 번 장승에 뿌린다. 마을대표 외에도 개인의 안녕



미산1리 산신제당 분포도

과 복을 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점안식 행사가 끝나면 마을노래자랑을 하며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다. 마을 어린이들까지 흥겹게 춤추는 모습이 보는 사람의 어깨마저 들쭉들쭉거리게 한다.

음력 9월 10일(양력 10월 17일) 오전 9시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마을회관에서 함께 아침식사를 하고, 방태산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등산을 준비한다. 필자도 마을주민들과 식사를 하고, 산신제가 열리는 한니동 거북바위로 등반을 시작했다.

방태산 산신제에 참가하기 위해 함께 등반한 사람은 제사 준비를 위해 먼저 출발한 일행을 제외하고 30명 이상이었다.

거북바위까지는 마을회관에서 1시간 정도 등반해서 도착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축원문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 개인의 소원과 복을 빌었다.

제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방태산 산신제는 성지 스님이 주관해서 불교식으로 지낸다. 제사가 시작되면 성지스님이 목탁을 치고, 마을대표가 촛불을 켜고, 마을대표가 반절을 하고, 향을 하나 올리는데 이 때 성지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예불을 계속 한다.

마을대표가 향을 올린 이후에는 정암스님이 절을 하고 시루떡을 감싸고 있던 봉지를 열고, 정화수 뚜껑을 열고 술을 세 잔 올린다.

성지스님이 예불을 계속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과 참가자들은 제단 앞에 마련된 돼지머리와 불전함에 와서 향을 피우고, 정성껏 불전함에 성의를 표시한다. 향을 피우기 전에는 반드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정성껏 손을 씻는다.

예불의 내용은 산신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니 마을주민들과 참가자들의 정성을 잘 받아달라는 의미이다.

예불을 하는 중간 중간 성지스님의 진행에 맞춰서 참가자들 모두 '산왕 대신'을 외친다. 산왕대신을 외치는 이유는 예불로 불러 온 산신님을 참가자들이 큰 목소리로 부르면서 산신님이 정성을 잘 받아달라는 의미이다.

필자도 불교를 믿지 않지만, 주민들과 함께 산왕대신을 외쳐봤다. 주민과 참가자들은 '나를 대신해서 향을 태워 올린다.'는 의미로 향을 올린다.

향을 올리고 나면 마을대표가 마을소지를 올리고, 주민들과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개인소지를 올린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곡물 쪽에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주민들은 불전함에 정성껏 성의를 표하고 술잔을 세 번 올린다. 불전함에 모인 돈과 전날 문화제 행사에서 체험장, 마을특산품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인제군 불우이웃 돕기 모금행사에 쓰인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산신제는 끝이 난다. 거북바위에서 50m 정도 내려오면 초가집과 정자가 있는데 산신제가 끝나면 이곳에 모여 식사를 함께

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동안 마을주민과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일부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마을제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점심은 삼계탕과 시루떡을 먹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음복했다.

식사를 하면서 예불과 산신제를 주관했던 성지스님께 예불의 내용과 절차를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불교식이라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 이메일로 예불 자료를 주신다고 했다.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을주민들과 성지스님, 정암스님, 임경래 사무장님 모두 감사하다.



방태산 산신제 보존회 임경래 사무장



2. 인제군 상남면 상남 1리

상남리 서낭제



상남 시가지 전경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21일 9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 1리

제보자: 이 일(남,52)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이장.

신순진(여,77)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전광옥(남,88)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김용운(남,73)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장화영(남,67)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곽옥순(여,84)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2) 마을유래와 개관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이었다가 신라 시대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안변도호부 춘주군의 속현으로 기린면이라 하였다가 이조시대에는 춘천도호부 춘주군의 속현으로 있다가 광무 10년(1906)에 인제군 기린면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남리의 일부를 남면 김부리에 넘겨주고 1945년 38도 선이 그어짐에 따라 상남과 하남은 그 해 9월 18일 홍천군 신남면에 편입 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다.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홍천군 내면의 미산리가 기린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에 의거 상남면, 하남리, 미산리와 남면의 김부리를 편입시켜 기린면 상남출장소에서 상남면으로 승격되었다.

이곳의 가구 수는 135가구이며, 인구는 460명 정도인데, 남자가 240명이고 여자가 220명으로 남자가 많은 편이다. 대부분 농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상남은 오래 전에는 엄수동이라고도 많이 불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상남면에는 상엄수동, 하엄수동이라는 지명이라던지, 엄수동에 관한 전설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상남 수동의 황룡등천(黃龍登天)’¹⁾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인제군사』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100년 전 상남면 상남 1리 수동(水洞)에 사는 한 노파가 어느 날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나를 보려거든 내일 아침 일찍 높이로 오라”하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깨어보니 기이한 꿈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노파는 손녀를 앞세우고 마침 딸의 집 잔치를 보러가는 길에 이 높이 있는 곳에 가 보았다. 높이 있는 곳에 닿자 손녀가 “할머니 저게 뭐예요.”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할머니는 손가락질을 하는 곳을 보니 그곳에는 황룡(黃龍)이 돌기둥을 칭칭 감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서움을 참지 못해 “용이다!”고 손녀에게 대답해 주고 놀란 할머니와 손녀는 10리가량 뿔박질을 했을 때 맑은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며 안개가 자욱이 퍼지더니 오색 무지개 속에서 황룡이 일어나며 서서히 하늘로 향하여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후부터 이 폭포를 용폭(龍瀑) 또는 용소(龍沼)라고 부르며 이 전설을 듣는 이로 하여금 괴이함을 던져주고 있다.

용소의 위치는 현재 상남2리 용소마을에 위치한 용소폭포라고 추측이 된다. 용소폭포는 상남면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을 만큼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인제군은 군사적 요충지로 군부대가 많이 있으며, 6.25 전쟁에 관련된 전적비나 위령비가 인제군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상남면에도 6.25전쟁과 관련된 전적비가 있다.

상남리에서 하남리로 넘어가는 오미재 고개에는 6.25전쟁 10대 전쟁사의

1) 『인제군사』, 인제군, 1996, p.964.

하나로 꼽히는 ‘국군 제 3군단의 현리 전투’(1951년 5월 16~22일)를 기념해 세운 ‘현리지구전적비’라는 비석이 있다. 특히 이 비석은 6.25전쟁에서 가장 처참한 우리 아군의 패배로 기록되고 있는 현리전투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현리지구전적비

현리지구전투

전투기간: 1951.5.16~5.22

아군: 제3군단, 미 제 10군단

적군: 북괴군 제 5군단, 중공군

하늘도 멧혀 울고 땅도 목매었던 혈육의 비극 6.25. 피어린 전투가 계속되고 있던 1951년 5월 북괴군 제5군단과 중공군 제 12군은 우리 육군 제 3군단과 미 제10군단에 대공세를 취하여 후방의 요지인 오미 재고개를 차단하였다. 군단은 완강한 방어를 시도하였으나 지형과 기상의 악조건으로 인접부대간의 협조가 단절되어 끝내 크나큰 희생만을 치루고 후퇴함으로써 중심 50km의 돌파구를 허용하고 말았다. 이 쓰라린 전투를 거울삼아 나라지킴을 새롭게 다지고 이 전투에서 이름 없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이 전적비를 세워 그 높은 뜻을 기린다.

1985년 6월 25일

육군 제 2307부대

현 인재문화원 원장님이신 정병석씨는 실재 6.25 현리전투 참가자로 얼마 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리전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피리와 북소리를 앞세워 공세를 펼친 중공군의 기세에 눌린데다 최고위 지휘관들이 도주하면서 지휘통제가 무너져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다. 중대 또는 소대가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속수무책이었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상남1리 마을의 서낭제는 매년 정월에 행해지고 있다. 제사의 명칭은 제보자에 따라 산치성 또는 서낭제라고 불리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낭제를 좀 더 선호하고 있었다. 제당은 상남중학교 입구에서 독가촌²⁾ 마을로 100m 정도 진입하면 마을 공동화장실이 나온다. 마을공동화장실 옆쪽에 있는 야산으로 10m 정도 입산하면 제당이 보인다. 숲이 울창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즐비해서 멀리서는 제당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만 걸어가면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제당을 발견할 수 있다.

제당은 본래 나무집 형태였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간첩들이 산속의 산신당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서낭당이 있는 독가촌 마을



서낭당의 모습과 형태

2)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였던 1966년 화전정리관련법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산촌 마을에 살고 있던 수많은 가구가 마을의 한 곳으로 이주하여 블록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생겨난 마을들은 독가촌(獨家村)이라 부른다.

보기 싫다고 하여 면사무소에서 망치로 부셨다고 한다. 그 이후 마을의 여러 집에서 우환이 많이 생겨서 다시 주민들이 비용을 마련하여 지금의 슬레이트로 새로 서낭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상남리 서낭제는 일 년에 한번 정월에 날을 받아서 지낸다고 한다. 2010년 올해는 음력 1월 6일(양력 2월 19일)에 서낭제를 올렸다.

시간은 보통 새벽 5시 30~6시 쯤 서낭당에 올라간다고 한다. 이장을 중심으로 각 반장들 오래전부터 축문을 읽었던 장화영씨가 제관이 되어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서낭제를 모시기 전에 마을에서는 먼저 제관을 뽑는다. 서낭제는 대개 남자가 중심이 되어 대표를 뽑아 지낸다. 따라서 제관은 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제관은 제물을 장만하는 도가(유사, 당주, 소임)와 초헌, 아헌, 종헌의 삼제관, 그리고 축관으로 대여섯 명을 뽑는다.

도가가 초헌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바깥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더 뽑기도 한다. 이 가운데 특히 도가는 생기 북



상남리 이일 이장

덕에 맞추어 뽑지만 마을의 토박이로서 모범이 되는 주민 가운데 뽑기 마련이다.

제관은 제일이 결정되면 사나흘 전부터 금기에 들어간다. 마을에서는 서낭당과 제관의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 잡인을 금한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서낭당 근처에 함부로 갈 수 없고 제관의 집에 가는 것도 삼간다. 특히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상가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않는다.

도가집은 반별로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3~4집 정도 우선 후보를 정해 놓고, 이장과 반장들 주축으로 후보 가운데 생기가 맞는 집을 선정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을 도가집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집집이 조금씩 각출하거나 마을의 공동경비로 사용한다. 오래 전에는 집집마다 쌀을 거둬서 떡과 제물을 마련하였으며 먹을 음식이 마땅치 않았던 시기에는 제사가 끝난 후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남은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제물로는 돼지 1마리, 떡, 감주, 나물, 포 등을 올리고 과일로는 사과, 배, 수박, 대추, 밤 등을 올린다. 특히 돼지는 토종돼지인 흑돼지를 사용한다고 하며 암돼지는 사용하지 않고 수돼지만 사용한다고 한다.



서낭당 내부 사진

이는 토지신의 여성적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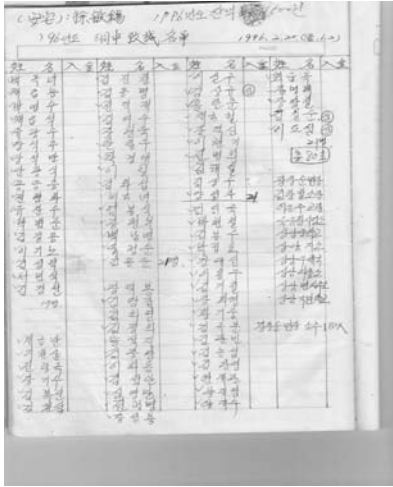
원리에서 암수의 결합, 즉 여성과 남성의 결합이 지닌 다산적 풍요의례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남리는 서낭제에 대한 장부를 잘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일 이장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구체적인 제비 금액과 제물의 내용,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부까지도 알 수 있었다. 장부는 80년대부터 2010년 올해의 서낭제에 관한 자료까지 잘 정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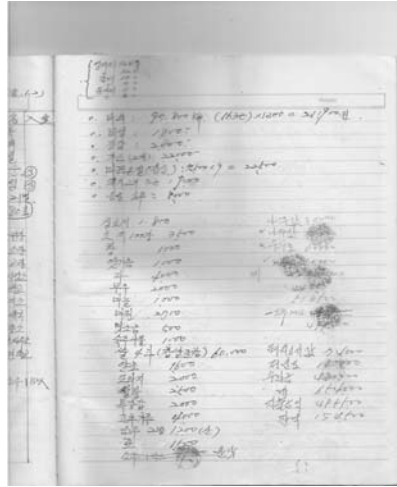
필자는 90년대와 2010년 올해의 서낭제의 제비와 제물의 내용이나 금액, 제사의 참여한 사람들의 인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상남리 서낭제의 시기별 변화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봤다.

	1996년 서낭제	2010년 서낭제
날짜	음력 1월 2일 (양력 2월 20일)	음력 1월 6일 (양력 2월 19일)
참가 호수	80호	73호
제비	돼지고기값 : 74,000 전년도 이월금 : 100,000 회비 : 480,000 총 수입금 : 654,000 지출금액 : 499,500 잔액 : 154,500	전년도 이월금 : 1,018,112 회비 : 780,000 총 수입금 : 1,798,112 지출금액 : 1,090,000 잔액 : 708,112
제물	창호지, 초지, 향, 숙주나물, 쌀(참쌀포함), 양초, 포, 소주, 돼지	창호지, 초지, 향, 숙주나물, 쌀, 양초, 포, 소주, 돼지
기타사항	면장이 소주 1box 기증	

상남리 서낭제의 경우 제비와 제물은 1996년의 서낭제와 2010년 올해의 서낭제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지출비용이 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1996년 서낭제 참여 명단



1996년 서낭제 제비와 지출내용

④ 제수준비

제수는 이장님과 반장들이 준비한다. 쌀과 고기, 소주는 아주 많이 구입해야 한다. 보통 70호가 넘는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동네잔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준비한다.

⑤ 금기방법

옛날에는 부정을 많이 가렸지만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한다.

제관과 도가집에 선정된 사람들은 상가집에 방문하거나 부부관계에서도 조심해야하며, 살생을 금하는 정도를 지키고 있다.



도가집을 오래한 박옥순 제보자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관과 도갓집이 선정되면 즉시 그들 집은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부터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집안에서 근신하며, 술과 담배를 금한다. 그리고 제사 전에 목욕재계하고, 이른 시간에 제물을 가지고 당으로 간다. 복장은 따로 예복을 갖



제의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이일 이장

추지는 않고, 평상복 중에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입는다. 제사일을 앞두고 부정하거나 상을 당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제사가 끝나고 도가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다.

당에는 새벽 5시 30분 정도에 오른다.

도착하면 제당 주변을 정리하고 불을 켜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을 다 진설하고 나면, 최근 몇 년 동안 축문을 읊었던 장화영 제보자의 주관 하에 제사를 시작한다.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화영씨가 축문을 읊는다. 축문을 다 읽고 나서 재배를 다시 한 후에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상남면에 있는 관공서에 대한 소지를 올린 후에 마을 주민 개개인의 이름을 다 써서 소지를 올린다. 개개인의 소지를 다 올리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소지를 올리는 와중에 다 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다시 올려준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다시 재배를 하고 고수례를 한다.

고수례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남은 제물을 챙겨서 도가집으로 이동한다.

제사 후에는 도가집에서 잔치를 벌인다. 예전에는 풍물놀이도 하고, 율놀이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풍물놀이는 하지 않고, 민속놀이나 음주가무로 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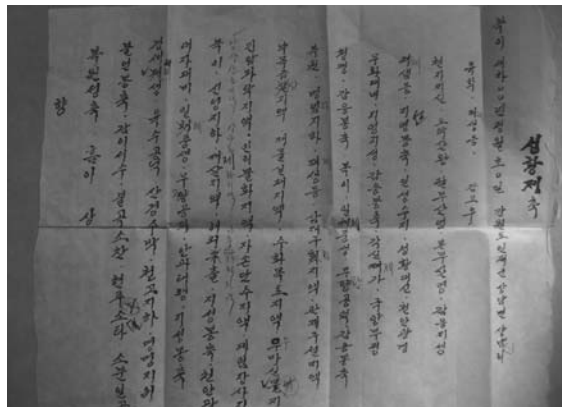
② 축문

상남리 축문은 상남2리 축문과 똑같다. 다만 지역 이름이 다르고, 상남2리 축문이 한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상남리 축문은 한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두 마을의 축문이 같은 이유는 오래전 한자를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축문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이후로는 상남면 대부분의 마을이 그때 만들어진 축문을 사용하게 됐다고 한다.

상남면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황제축

복이 세차○○년 정월 초○일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1리
 유학○○○ 감고우
 천지지신 오악산왕
 팔부산령 본부산령
 감응지성제 생등지령
 봉축인생 수지성황
 대신천안
 광명무지 대비지령
 지성감응 봉축각실
 제가 국량부정청쟁감응
 봉축복이 일체중생무량
 공덕감응 봉축복원명령
 지하제생등 삼재구형지역
 관재구설지역 악목급상지역



서남제 축문

재물실패지역 수화목토지역
 우마실패지역 전담과락지역
 인리불화지역 자손단수지역
 대립장사지역 암상산군지역
 상하불화지역 야중악적지역
 복이신령지하제살지역
 해외속출지성 봉축천안
 광명대자대비 일체중생
 무량공덕 안과태평
 지성봉축 경세제생
 유수공덕 산경수박
 천고지하명명 지위불언봉축
 감이서수 불곡소찬
 현주수식소분 일곡복원
 성축흠이 상향

〈번역〉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엎드려 비옵나니. 해바 바뀌어 을사년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엄수동에서는 ○○○는 밝게 고합니다.
 천지신 오악산왕 팔부산령 본부산령님
 감응하여 모두 이르렀고 생등에게는 존령들입니다.
 우리들이 봉축하오니 성황신께서는 지켜주십시오.
 큰 천안과 광명을 알지 못하고 크게 존령께 복종합니다.
 지성으로 감을 바라니 집집마다 봉축합니다.
 모든 집과 나라의 대들보에 조용히 감응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봉축하오니 모든 중생은 한량이 없습니다.
 공덕에 감응하십시오. 밝으신 신령을 봉축합니다.
 아래에 사는 모든 생등은 3재 9횡의 액과
 수화목토에서 우마를 잃는 액과
 논밭이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는 액과 이웃의 액과
 불화의 액과 자손의 짧은 수명과

큰 수풀이 자라는 액과 뱀의 액을 엮드려 비오니
 신령의 아래에 있는 모든 흉살 액을 바다 밖으로
 속히 쫓아내기를 지성으로 빕니다.
 받들어 천안께 축원하오니
 광명과 대자대비로써 일체 중생의
 해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안과태평하게 해 주십시오.
 지성으로 봉축하오니 해마다 모든 사람에게
 물 흐르듯이 공덕을 내리시어
 산처럼 가볍게 물처럼 넓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밝게 하시니
 위치하신 곳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봉축합니다.
 감히 여러 음식을 진설하고 부처님께 올면서 소찬을 올립니다.
 맑은 물과 작은 장식과 작은 향을 놓고
 한번 울고 엮드려 원합니다.
 그걸 마시도록 축원하오니
 신명께선 제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영험담

특별히 영험담을 들어 본적은 없다.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
 고, 가가호호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 뿐 이라고 한다.

다만 미신이어도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큰 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사를 지낼 때 마음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를 올린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의 운영은 이장이 중심이 되어 이뤄진다. 상남리 같은 경우는 오
 래전부터 공책에 그 해의 마을제사에 지출된 경비나, 참여한 마을주민의 이
 름, 지불한 회비 등을 잘 정리해 놓았다. 올해도 마을제사가 끝나고 도가집
 에서 잔치를 열기 전에 제사에 지출된 비용과 잔액에 대한 결산을 다 한다

고 한다.

오른쪽 사진은 80~90년대
까지의 마을제사에 관한 장부
이다.

이 장부에는 제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이름, 제비 금
액, 새로 참여하게 된 신입, 제
물내용과 제물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구체적인 비용, 전년도



동중치성인명부(洞中致誠人名簿) 서낭제 장부

잔액과 이번 년도의 지출비용에 대한 정리와 올해의 잔액이 적혀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면장이나 파출서장, 인근 군부대장 등의 지원비나
지원품목까지 적혀 있다.

3) 마을제사의 특징

마을공동의 서낭제를 통해서 마을은 지난해에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일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잠시 동안
이나마 일상적인 일을 떠나 경건한 신앙의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생
활을 맞이하는 다짐을 함께 함으로써 협동과 단결을 위한 계기를 갖는 것이
다.

마을에서는 몇 년 전까지도 정월에 하는 서낭제 외에도 정월대보름에는
서낭당에서 팽과리, 장구, 북 등으로 신명나는 놀이를 즐기고 잔치를 하기
도 했지만, 교회에 다니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서낭제에 참여하는 주민들
의 수도 줄고 서낭제의 규모 역시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
의 마을주민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서낭당의 영험함을
믿고 기억하고 있다.

3. 어론리 청정조각공원 남근조각과 기자신앙

“청정조각공원” 남근조각과 기자신앙



청정조각공원 내 남근 작품들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10월 2일 9시~14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제보자: 고명규(남, 70세) 화가, 조각가

(2) 마을유래와 개관

본래 남면지역으로 동리 사람들 중에 말다툼이 많아서 어론(於論)이라 했다고 전해지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탄리(禾呑里)를 병합하여 어론리(於論里)라 하였다.

인제군의 관문에 위치하고 홍천과 경계를 이루는데, 경계를 이루는 작은 고개를 건이고개라고 한다.

건이고개는 고개 아래 건이원(建伊院)이 있었다 해서 불리는 이름인데 고개가 하도 낮아서 『놀이 좋기는 합강정 넘기 좋기는 건이고개』라는 노래도 있다.

동국여지승람 「역원(驛院)」편을 보면 “市伊院 在縣南 五十三里 洪川縣界”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이원 건이고개의 한문 표기만 다를 뿐 실제 건이원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³⁾

『인제군사』에는 남면 어론리 사람들이 예전부터 즐거부르고 전해 내려오는 「어론리민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연작산 굽이내려 어론이루고
새마을 일터에서 단합을자랑

3) 『인제군사』, 인제군, 1996, pp.190~191.

4) 『인제군사』, 위의책, pp.993~994.

기름진 옥토위에 번영을 다짐

뭉치고 단결하여 일어난 우리 후렴
빛내자 우리마을 어른이라네

충효의 이름높여 일어난마을
오늘도 보람있게 햇불을들고
영원히 빛나보세 우리의기상

어론리에는 청정조각공원이라는 휴게소가 있다. 홍천에서 인제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휴게소인데, 이곳은 대략 3500점의 남근 조각들이 있는 곳으로 언론매체나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법 많이 알려졌다.

이런 어론리 마을에 20여년 전에 정착한 화가이자 조각가 고명규씨를 필자가 주목한 것은 남근이라는 우리의 전통 목공예를 홀로 수십 년간 작업하면서 고대사회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남근예술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론리 청정조각공원의 남근은 이번 조사 취지와 조금은 다를 수 있기에 망설였지만 남근과 기자신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신앙이자 한국의 전통문화였기에 충분히 다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기자신앙

성은 이따금씩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불경과 경애의 대상으로 자리 잡기도 하였고 이와는 달리 생명과 탄생의 근원으로 인식되어 가장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⁵⁾ 성은 성 그 자체가 지닌 신비스러운 재생산 능

5) 이창식, 『민속문화의 정체성 연구』, 집문당, 2001, pp.70~72.

력으로 인해 인간에게 성스러운 감정을 들게 하거나 아니면 성 자체의 파괴적인 능력으로 인해 저속한 감정을 들게 하는 양면 가치를 지닌 ‘생산성’과 ‘쾌락성’을 표출하는 주술적 종교적 관심의 다양한 표현물을 찾을 수 있다.⁶⁾ 는 점에서 성신앙의 모태를 찾을 수 있다.⁷⁾

이러한 기자신앙(祈子信仰)은 우리민족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 전해져 오거나 또한 우리 생활의 일부로 남아 있다.

원시나 현대사회를 막론하고 주술이 우리 생활의 곳곳에 묻어있는데 실재로 모든 문화, 종교, 예술 등은 주술에서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가 나지 않게 기도 하는 것도, 수능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들 올리는 것도,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 역시 주술이다. 특히 이러한 주술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실천하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마도 기자신앙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기자신앙의 치성기간은 미리 정하는 수가 많은데 3일, 7일, 21일, 백일 간 등이며 남이 모르게 빌어야 효험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 한밤중이나 새벽을 택한다. 의례방법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것 외에는 촛불을 켜 놓고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거나 정화수를 받쳐놓고 손을 비비며 기원하는 비손형식이 많다. 치성을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재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을 가린다. 이러한 치성은 가장 많이 행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범상치 않은 자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치성을 드리는 유형이다. 가장 광범위한 신앙대상은 기자석(祈子石)이다. 2개의 바위가 서로 포옹하듯이 엉켜있거나 남성 또는 여성의 성기를 닮은 바위가 주로 기자신앙의 대상이 된다. 아들바위, 남근석, 선바위 등으로 부르는 기자석은 서울 인왕산의 선바위, 서울 자하문 밖의 기자암, 전라도 지리산의 선바위, 북제주 용담넷가의 석불 등이 특히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자석에 빌 때는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작은 돌을 가지고 상석에 계속 문지르는데 어

6) 조화웅, 「성승배와 성상징」, 「설화학요강」, 새문사, 1989.

7) 장장식, 「민간신앙으로 본 성」, 「한국의 민속과 성」, 지식산업사, 1997, pp.113~145.

느 순간 돌이 상석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외의 자연물로는 나무가 있는데 구멍이 나 있는 고목, 두 나무의 가지가 한 나무처럼 엉켜있는 것, 인체를 닮은 나무 등이 기자신앙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나무 밑에서 빌거나 인근의 방을 빌려 부부가 합방하면 아들을 잉태한다고 믿었다. 그 외 깨끗한 샘을 찾아가 비는 경우도 있는데 경주 석굴암의 약물이 아들을 낳는 효험이 있다고 믿어왔다.

무속신앙을 통한 기자행위도 다양하다. 영남지역의 삼제당굿이나 제주의 불도맞이 굿에서는 산신(産神)을 청하여 아들 낳기를 빈다. 불도맞이굿을 보면 먼저 심방이 인간의 생명을 주는 불도할망의 신화를 구송한다. 이어 불도할망이 오는 길을 닦는 질침을 한 뒤 심방이 할망다리(한필의 미녕)를 들고 춤을 추어 신이 하강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생명을 죽이는 악심꽃을 꺾어버린 후 생명을 상징하는 환생꽃을 흠쳐와 아들 낳기를 원하는 부녀자에게 환생꽃을 주는 것으로 불도맞이굿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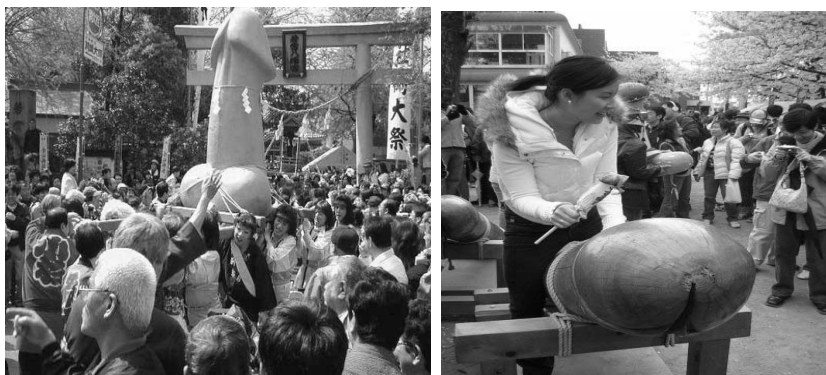
그 외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는 노력도 많은데, 특정한 물건을 먹거나 몸에 지니는 것이 있다. 수탉의 생식기를 생으로 먹는다든가 석불의 코를 떼어 가루를 내어 먹는 방법, 아들 낳은 산모에게 첫국밥을 해 주고 그 산모와 함께 국밥을 먹는 것, 아들 낳은 집의 금줄에 달려 있는 고추를 흠쳐 달여 먹는 것, 비석에 새겨진 글자 중 아들과 관련된 한자, 즉 자(子)·남(男)·문(文)·무(武)·용(勇) 등을 떼어 가루로 먹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몸에 지니는 방법으로는 부적을 간직하거나 다산한 여인의 속옷이나 월경대를 흠쳐다가 몸에 두르고 다니기, 신부가 신혼여행갈 때 아들 낳은 집의 금줄을 걸어서 가마에 걸기 등 많은 예가 있다. 기자신앙은 일차적으로 자손을 보기 위한 것이지만 아들을 낳은 후에는 그 아들이 무병장수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진다.

3) 다른 나라의 기자신앙

(1) 일본의 남근축제 카나마라 마쓰리

일본 도쿄 남부 가와사키의 와카미야 하치만구 사당에서는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카나마라 마쓰리’라고 우리말로는 남근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열린다. 시골 마을의 축제지만 카나마라 마쓰리 역시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남근 퍼레이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고 매년 가와사



무로 남근을 쥐는 모습, 인터넷 공모로 남근을 탄 여인(니이가타 호다레마쓰리), 닌교오쿠리마쓰리, 혼보지강마쓰리 때 쓸 남근상을 만드는 주민들 (시계방향)

키에 위치한 와카미야 하치만구 사당을 찾는 이들이 늘어 이제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축제가 되었다.

남근축제가 있는 날이면 거대한 남성성기모양의 형상을 앞세워 퍼레이드를 여는데 이는 출산을 통한 번성과 에이즈퇴치

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여성의 질 속에서 살면서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의 남근을 뜯어 먹을지도 모르는 악마를 물리치는 것을 비는데 전설에 따르면 한 지방의 장인이 악마의 이빨에 상처를 입은 남근을 쇠로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고도 전해지는데 모든 과정은 성직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 중국 지린성 창춘시 세계 최대의 남근상

창춘의 위락시설 사만 환락원에 최근 높이 9m, 직경 1.8m에 달하는 남자 생식기 모양의 대형 조형물이 만들어졌다. 남근상은 ‘제1회 샤먼문화축제’의 상징물로서 철골 구조물에 동아줄 350m를 감아서 제작했다.



옛날 이곳 창춘시를 통치하던 잔혹한 여군주를 어원키라는 영웅이 나타나 굴복시킨 뒤 앞으로 남자를 숭상하라는 의미로 남근석을 건네 이를 제일 높은 언덕 위에 설치했다는 전설이 있다.

4) 우리나라의 기자신앙

1) 강원도 삼척시 해신당공원

남근숭배의 민속을 주제로 조성된 테마공원으로 해신당과 남근조각공원, 삼척어촌민속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옛날 신남마을의 애랑이라는 처녀가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애바위에서

해초를 캐다가 갑자기 거세진 풍랑으로 인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뒤로 고기가 잡히지 않자 나무로 남근 모형을 깎아 처녀의 원혼을 달렸다. 이를 애바위 전설이라 한다. 이후 해신당을 지었고, 지금도 음력 정월대보름과 10월의 오일(午日)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전해진다.



해신당

2) 신라 최고의 사찰 황룡사 목근

지난 1970년대 말 황룡사 발굴 때 출토된 유물 한 점은 지금껏 고고학계에서 ‘해석 불명’으로 남아 있다. 이 사찰 회랑 외곽에서 남근이 나온 것이다. 짙은 회색의 활석으로 만든 이 남근은 길이 8.7cm, 귀두 최대 직경 5.3cm로 음경 부분이 부러진 상태였지만, 사실적으로 조각됐다. 함께 나온 유물이나 발굴 정황을 종합할 때 통일신라 초기(서기 7세기 말~8세기 초) 것으로 추정됐다.

성적 유희를 위해 제작했다고 보기엔 약간 크다. 물론 ‘사용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점잖은 국가 사찰에서 남근이 어떤 ‘상징성’을 띠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반면 1996년 여름, 황룡



황룡사에서 발견된 남근

사 동편 담장 바깥쪽 배수로에서 나온 활석제 남근(서기 7세기 말~8세기 초)은 ‘사용 흔적’이 너무나도 뚜렷했다. 당시 발굴을 했던 이은석 문화재청 학예연구관은 “이 남근도 음경이 부러진 상태로 발굴됐는데, 부러진 곳의 색깔과 손을 많이 타 부분의 색깔이 완전히 달랐다”며 “한참 사용하다가 음경 부분이 부러지자 요즘 말로 치면 하수구에 던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 전체적인 비례미나 귀두의 곡선 부분, 미세한 피부 주름, 요도구(口) 등을 마치 그리스나 로마의 조각상처럼 극(極)사실적으로 묘사했다. 크기도 귀두 최대 직경 4.8cm로 실제 크기와 거의 같았다. 남은 음경 길이는 7.9cm 였다. 자연을 모방, 혹은 복제하듯 만든 사실적 조각상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 전통으로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인 유물이었다.

이 남근이 나온 배수로는 경주 도심의 하수구로, 오수나 빗물이 황룡사 영역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만든 것이었다. 1970년대 경주 안압지 발굴 때 나온 목제 남근은 자위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귀두 양쪽에 달린, 여성의 성감을 자극하는 ‘혹’ 때문이다. 손을 많이 타 반질반질하다는 것도 그렇고, 안압지가 신라시대 태자가 거주하던 동궁(東宮)으로, 시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도 여기에 가세한다. 일부에서는 이 ‘혹’을 근거로 통일신라시대에도 일종의 성기확대수술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의학사적 증거는 없다. 혹 달린 남근은 서기 전 2세기 중국 한(漢)나라 제후 유승의 묘에서 청동으로 만든 게 나온 적이 있다.

김종대 중앙대학교수(민속학)는 그러나 “신라의 남근은 실제 유희용이라기 보다는 아들 낳기, 혹은 풍요를 바라며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신라시대(통일신라 포함) 남근은 지금까지 5~6점 정도 출토됐으며, 백제나 고구려에서는 각각 한 두 점 정도 나왔다.

5) 화양(畫洋) 고명규(高明圭)

“모든 작품은 그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풍경이다...”

화양 고명규는 1943년 충남 서산에서 아버지 고창선과 어머니 김도화 사이의 12남매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한옥을 짓는 도편수 아버지 밑에서 어릴 적부터 나무 다루는 법을 익혔고, 한국의 집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풍경을 고려해서 짓는 자연친화적인 구조라는



말을 듣고 크게 느낀바, 이후 조각에 있어서도 그 재질과 형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물성(物性)과 신성(神性)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안과 밖을 살리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다. 화양의 작품들은 철저한 자연친화적인 예술세계를 구현, 자연이 이미 반을 조각하였으며, 조각자인 당사자가 그 나머지 반을 창작, 조각하여 완성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랫동안 동양사상 및 순수미술에 깊이 천착하여 수학하였으며 현재는 지금의 작업장인 강원도 인제에서 조각에 전념하고 있다.



(1) 작품세계

조각가 고명규의 작품세계는 본능이론을 위시한 욕망의 방출과 만

고명규 조각가

죽을 중시했던 프로이드(Freud)이론에서 자아의 기능과 역할, 본능과 초자아와의 관계 안에서 역동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심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관여되어 있으며, 그 무의식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드(id)라고 불리는 생명이자 본능적, 성적인 에너지가 그 핵심을 이룬다.



역사에서 남성은 다른 동물 및 적들과 싸움을 하거나 경쟁을 하면서 힘을 키워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 생명에 대한 보존이자 연장이며, 생명체의 핵심을 이루는 종족번식의 수행인 것이다. 그러나 능동적 생명의 근원이자 에너지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남근, 즉 남성의 성기다. 이렇듯 돌출물, 즉 남근은 생명의 특권인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교적 공통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간의 잠재 속에 남아 있는 아버지의 거대한 성기는 아버지의 힘, 무서움, 권위를 연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권력, 지배, 경외 등을 포함하여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Sexuality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생명이자 사랑을 말한다. 정신이나 영은 불멸이라면 Sexuality란 불멸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인 생명의 나르시즘이며, 자아의 자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무자아’를 지향하는 죽음에 대한 열망이다. 모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음이 없듯이, Sexuality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고명규의 예술세계는 성을 그 출구로 발견한다. 여기에서 보여 지는 남근은 단순한 남자의 성기가 아니다. 이는 봄의 들판에 피어나는 뾰족한 새싹이며, 꽃이며, 수정을 위해 날아드는 벌과 나비의 형상인 것이다. 꽃과 새싹은 가장 잘 발기한 남자의 성기와 다름없으며, 무자아를 지향하는 생명이자 또한 죽음인 것이다. 조각가 고명규의 작품에서 보여 지는 Sexuality란 숨겨진 권위에 대한 반란이며, 사회의 경직된 것에 대한 반란이며 모든 잠재되고 억눌린 것들에 대한 해방이다. 숨겨진 남근을 예술로 과감하게 대상화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런 생명이자 에너지로서 환원시키고 있다.

고명규의 Sexuality란 자아와 개성의 죽음이며,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려는 예술혼이다. 예술이란 위대한 분노이며 공시에 처절한 자기 파괴이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자기사랑의 방편인 것이다.



(2) 남근 조각을 하게 된 계기

여기부터는 고명규 조각가의 말을 녹취한 것을 옮겨 적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내가 동양화를 그리다가 남근쪽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선 우리조상들이 예로부터 남근을 많이 다뤘기 때문이야. 고대부터 혼수

로도 가지고 갈 정도로 많았고 보편적이었지. 그런데 이러한 우리 전통문화가 조선시대에 와서 성리학적인 지배이념이 들어서면서 전통문화인 남근문화에 대해 소홀히 하고 천시하고 등한시켰어.

중국은 성인박물관이 3개나 있는데 우리의 고구려 시대의 남근이나 성인 예술 조각품도 많이 있어. 성인예술품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시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 전수나 관심이 별로 없지. 일본이나 독일도 성인박물관이 있는데 말이야...

하회탈 같은 전통 탈이나 전승이 잘 된 것들은 예술품이 많지만 이쪽 성인 예술품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내가 이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보니 남근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들이 많아. 이게 내가 남근 예술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야.

둘째는 예술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예술성이 없으면 작품을 안해. 맛을 느끼는 미각, 듣는 청각, 보는 시각, 냄새의 후각 그리고 만져서 느낄수 있는 촉감 중에 가장 으뜸이 뭔지 알아? 그건 바로 촉감이야..난 그렇게 생각해..남근의 예술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촉감이야..만졌을 때 그 오묘한 느낌 그게 매력이야..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곡선의 미가 아름답잖아.. 남근은 예술성이 아주 풍부하고, 남근의 곡선의 미와 신비한 촉감, 이게 내가 남근 예술을 하는 이유야.”

(3) 기자신앙에 대한 고명규 조각가의 생각

“고려시대에는 시장바닥에서 남근을 꺾었다고... 특히 청나라에 사신들이 가면 춘화도, 춘화자⁸⁾ 등도 가지고 가곤 했는데.... 예전에 옥으로 깎은 남근과 뿔로 만든 남근을 가지고 자매끼리 다투는 장면을 가지고 생겨난 사자성어가 바로 옥신각신이거든..그 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남근이고 남근예술이라는 거지.. 특히 소나무 송진이 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든 남근을 여자의 성기에 넣으면 각종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해..

8) 청자에 성교하는 장면 같은걸 그린 그림.

특히 예전에는 항생제가 없어서 성인병에 걸리면 죽었는데 남근을 가지고 가서 자꾸 만지라고 했거든 그러면 칠거지악(七去之惡)⁹⁾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다.

예전에 여자들에게 남근을 자꾸 만져라. 또 만지고 그래라, 남근 잘 꺾어진 것을 자주 만지면 신비로운 촉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스트레스가 풀리고 남근을 가지고 촉감을 느끼다보면 여자도 흥분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여자가 흥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준비가 이뤄지게 되는거지..그럼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게 되고 그럼 임신이 잘 되는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오면서 신앙적인 것과 연결되면서 삼신할미가 등장하고, 남근이나 남근석에 가서 빌거나 만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아들을 낳을수 있다는 것으로 점차 신앙적인 의미가 붙여지게 된거지.”

6) 고명규 조각가의 목표

고명규 작가는 우리나라의 성문화도 이제는 개방적이면서도 건전하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의 전통 남근 예술을 죽는 순간까지 작업하고 이어가고 싶다고 한다. 현재까지 작업한 작품 수는 대략 3000 점인데 외국과 같은 남근박물관 같은 것을 나중에 설립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려가려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⁹⁾ 칠거지악(七去之惡)은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不順父母) 아들이 없음(無子) 음탕함(不貞) 질투함(嫉妬) 나쁜 병이 있음(惡疾) 말이 많음(多言) 도둑질을 함(竊盜).

7) 기자신앙의 특징

우리는 흔히 ‘민속적이다’, ‘우리의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쓰는 이 ‘민속’, ‘우리 것’이라는 개념은 그냥 막연하게 옛것, 우리의 전통 놀이나 문화라고 단순하게 취급할 뿐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현대화, 과학화, 세계화 등의 시대 흐름 속에 우리전통문화 중에 점차 전통이 끊기고 무관심으로 인해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도 많이 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세계화를 이야기하며 살고 있더라도 우리생활은 모두 민속적인 것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생활이다.¹⁰⁾ 그러나 우리는 우



10) 이경옥, 「민속신앙을 통한 민족정서의 재인식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철학:한국체육철학회지 5권 2호』, 1997, p68.

리에게 어느 것이 옳은 지 “신토불이”라는 말이 왜 캠페인 문구가 되어버렸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은 참으로 깊고도 신중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속신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생활 중 가치성이 있는 것이 미래의 전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기자신앙과 남근을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문화의 한 부분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손가락질 받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묵묵히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고명규 조각가님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고 싶다.

4. 인제읍 원대리

삼재마을 서낭제



원대리 마을 사진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8월 7일 9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제보자: 이용우(남)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이장.

조남운(남, 64)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원대리는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중 오대산에서 영서 쪽으로 형성된 영춘지맥(한강기맥)의 정기를 받고 있는 유서 깊은 마을로서 수백만평의 국유림이 에워싸고 있는 아늑한 장풍득수지형임이다.

마을 중앙엔 응봉산 986고지에서 발원한 청정계곡수가 흐르며 계곡이 깊고 바람이 없으며 동계내내 천연설이 풍부하고 녹지 않아 예로부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아 포근하다하여 ‘응달말 청량골’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으며 외세의 침략과 6.25전쟁 시 지역민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던 오지 심산유곡이기도 했다고 한다.¹¹⁾

또한 강원도 중동부 영서지방인 인제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촌이며 마을 평균고도는 300~600m이고 분단의 상징 38선이 마을을 횡단하고 있으며 반경10km(차량으로 20분거리)이내에 인제8경으로 불리는 국립공원 설악산, 소양호, 내린천을 위시한 유명계곡과 약수터 등의 수려한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주 5일 근무제등 도농교류 활성화 기회에 편승하여 다양한 삶의 질 향상 욕구 충족지로서의 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모험관광테마를 적극 개발 및 지원하는 인제군 정책이

11) 김황년, 「인제 원대리 마을 발전 계획-3반 안삼재 청량골 중심으로」라는 책 인용.

집중 투자되고 있는 지역으로 21세기 자연과 문화로 이루어진 선진형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인제군이 추구하는 모험관광 1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름다운 내린천 계곡의 신비한 자연경관과 함께 사계절 그린투어 및 테마 파크형 휴양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필자는 대학교 시절에 내린천 래프팅 업체에서 래프팅 가이드를 했었기에 이곳 원대리 마을은 아주 익숙하다. 특히 원대리 마을에는 양,조씨 분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많이 거주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원대리에는 ‘열녀 김씨 기일제’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인조(仁祖)14년 병자호란(1636).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풍야현에 기골이 장대하고 인품이 고귀한 조옥립(趙玉立)이란 장군이 있었다.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한바 있는 이 장군은 병자호란때 관군(官軍)을 지휘하고 되놈(胡軍)과 분투하였으나 대세가 불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의 기회를 보기 위해 인제면의 원대리에 은신하였다.

이 장군에게는 삼척 김씨의 부인이 있었다. 조옥립 장군의 뒤를 따라 들이 닦친 되놈들은 김씨에게 조장군이 있는 곳을 밝히라고 두 손바닥에 쇠로 구멍을 뚫는 등 갖은 고문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끝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되놈들은 마당에 장작을 쌓아 놓고 김씨를 화형(火刑)에 처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 순간 돌연 폭우가 쏟아져 뇌성벽력(雷聲霹靂)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이렇게 되자 되놈들은 무서움에 떨며 모두 도망을 쳤으며 김씨는 끝내 남편이 있는 곳을 적에게 알려주지 않아 남편을 구했다는 것이다. 조장군의 후손들은 삼척김씨가 10여일 후 죽자 그녀에 의해 그들이 대(代)를 이을 수 있었다고 하여 김씨의 기일(忌日)로 음력(陰曆) 10월 1일 이면 문중에서 제사를 매년 올리고 있다.¹²⁾

12) 『인제군사』, 앞의책, p.929.

원대리 마을의 연혁을 보면 본래 동면지역으로서 원(院)집이 있었음으로 원터, 원대(院垔)라 했다고 전하고, 관음원(觀音院)이란 소암자(小庵子)가 있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전해오고 있다. 1919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남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원대리(院垔里)라 하였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원대리에 6대에 걸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조남운 제보자에 의하면 이곳 원대리 마을사람들은 서낭제 올리는 골짜기를 가리켜 '삼재'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곳 삼재에는 서낭나무가 2그루 있으며, 무장골에는 산신당이 있다. 원대교를 지나 100m 정도 가다보면 좌측으로 삼재교가 나오는데 삼재교를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삼재2교가 나온다. 삼재2교를 따라서 숲속 길로 200m 올라가게 되면 서낭나무가 있다.



큰말구리나무

이 나무는 '큰말구리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전에 길이 하도 험해서 말이 구부러 쉬었다가 뾰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제를 올리곤 했지만, 지금은 마을제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심마니들이 가끔 이곳에 와서 소소하게 제를 올린다고 한다.¹³⁾

삼재골의 또 다른 서낭나무는 마을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개천 바로 옆에 있어서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안삽재 서낭나무’라고 부른다.

예전부터 청송 심씨, 풍양 조씨, 제주 고씨, 삼척 김씨 이 네 성씨가 원대리를 개척하고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에는 이들 성과 관련된 전설들이 많다. 앞에서 언급한 삼척 김씨 기일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설도 전해져 내려온다.

예전에 조씨 할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가 계속 일을 안하려고 해서 신기하게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호랑이가 근처에 있어서 소가 호랑이를 무서워해서 일을 안했다고 한다. 이때 조씨 할아버지가 연장으로 호랑이를 잡았다고 한다.

조남은 제보자의 아버지도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께서 소장수를 하셨는데, 하답 3리에서 원대리로 걸어오는데 호랑이가 계속 따라와서 놀라고 무서웠었다고 한다. 때 마침 집에 거의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니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안삽재 서낭나무는 위에 부분이 잘려있었는데, 2007년 인제지역의 큰 수해로 인해서 서낭나무가 훼손이 되었다고 한다. 서낭나무라고 하기에는 볼품없고 반 이상 잘려 나갔지만, 그 강한 물살에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은 웬지 이 마을의 서낭나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주고 있지 않나 싶다.

안삽재 서낭나무에서 차로 5분여를 달려 원대리 사방댐에 도착하였는데, 차에서 내려 개천을 건너 50m 정도 산을 오르면 무장골 산신당 있다. 무장

13) 조남은 제보자에 의하면 큰말구리 나무 근처에서 산삼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 심마니들이 큰말구리 나무에 와서 산신제를 올린다고 한다.

골 산신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역시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사망덤도 생겨났으며, 이곳 산신당이 위치하던 나무가 썩어서 쓰러지고 당도 수해의 피해로 무너졌다고 한다.



부러진 안삽재 서낭나무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원대리 마을사람들은 음력 3월 3일, 음력 9월 9일 1년에 두 번 산신제를 올린다. 시간은 새벽 6시경에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제를 올린다고 한다. 오전에는 먼저 무당골 산신당에 가서 제를 올리고, 무당골 산신제가 끝나면 다시 제사 준비를 해서 저녁쯤에 안삽재 서낭나무에 내려와서 다시금 서낭제를 올린다고 한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은 생기 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세 사람 정도를 뽑는다. 제관은 공양주 1명, 축관 1명, 제관 1명으로 구성되며, 제사를 준비하는 남자 몇 분도 함께 참여한다. 제관은 제사 10일전쯤에 선출한다.

제관으로 뽑히면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데 몇일 전부터 부부관계



제관을 오래 했던 조남은 제보자

도 하지 않아야 하며, 버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제관에 선정된 사람은 절대로 초상집을 가지 말아야 하며, 살생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동물이나 작은 피도 보지 말아야 한다. 특히 무당골 산신당에 올라왔을 때에는 절대로 잡담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예전에는 모두 목욕재계를 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손과 얼굴을 잘 씻는다.

③ 제비와 제물

제의 비용은 마을운영비로 충당 하기도 하지만 주로 전 세대가 같은 몫으로 분담한다.

제물은 10일 전에 제사에 올릴 제주를 빚는 것으로 시작된다. 구덩이를 깊게 파서 아래에 깨끗한



제주를 담그던 터

돌을 깔고 그 위에 술을 올린다. 술에는 쌀과 누룩을 넣고 불을 집힌다. 시간이 좀 지나서 불을 끄고, 술 주변을 창호지로 감싼다. 이 때 술과 구덩이 주변을 칩으로 둘러쳐서 짐승들이 못 오게 만들고 10일간 기다린다. 제사 당일 전까지는 절대로 뚜껑을 열거나 맛을 보지 않는데, 다 빚은 술의 맛을 무지 달고 좋았다고 한다.



무당골 산신당 옆, 예전에 쓰던 제기들

제주를 준비를 해 놓고 장을 보게 되는데 장을 보러 오갈 때에는 부정한 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인과 흥정을 벌이거나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않는다. 제물로는 삼색 실, 닭, 북어포, 떡, 메 등을 올린다. 특히 닭을 올릴 때는 부정을 탄다고 해서 꼭 익히지 않

고, 생닭을 써서 올렸다.

한편 제사 당일에는 새벽 6시쯤 제관들 세 명이 일찍 무장골 산신당에 올라와서 메밥을 짓고, 주변 청소와 우거진 풀을 깎고 주변을 정돈한다.

④ 제수준비

쌀이나 모든 것은 깨끗한 것으로 하고, 밥은 제사 당일 일찍 당에 가서 지었다.

⑤ 금기방법

도가란 제물을 맡는 이를 지칭한다. 도가는 보통 생기를 보아 생기가 가장 좋은 이가 도가를 한다. 대체로 마을의 연장자가 도가를 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생기를 보아 도가를 선정하던 전통은 최근에 와 희미해졌다. 생기를 볼 줄 아는 이도 적거니와 제관과 도가 하기가 힘들다 하여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장, 반장 등이 대체로 도가와 제관을 맡아 제사를 준비한다.

산신당에는 절대 여자는 참여 할 수 없으며, 주로 도가에서 제물 준비하는 정도만 참여한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전날 제당 청소를 하고 산신당 주변의 풀도 베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 청소를 다 한 이후에는 금줄을 친다.

복장은 아주 오래 전에는 예를 갖추서 입었지만, 지금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는다고 한다.

제사 당일 6시쯤 제관을 비롯한 제물 준비를 한 남자 몇 명이 무장골 산신당에 올라가게 된다. 이 때 여자는 부정 탄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는다. 산신당에 도착하면 한명은 주변 정리를 하고, 한 사람은 끓는 물에 생닭을 손질하며, 다른 한사람은 제주를 떠서 제사 준비를 마친다. 산신당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절대로 잡담을 하지 않는다.



산신당을 지탱하던 나무 썩어 쓰러져 있다

제물 준비를 모두 끝내고 보통 아침 8시쯤 제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세 제관이 함께 술잔을 들고 올라가

제단에 잔을 올리고 절을 올린다. 이때 제관 중에 가장 생기 복덕하고 경험이 많거나 말씀을 잘하시는 어른이 축원을 읊는다.

축원을 다 읊고 나서 세 제관 모두 일어나서 재배했다. 재배가 끝나면 축원을 읊었던 제관이 소지를 다시 올린다. 소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올려 지게 된다.

이곳 원대리 마을의 산신제에도 인제군 여러 마을의 제사와 같이 소지를



무너진 무장골 산신당의 모습

태울 때 제사에 참여 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지를 올릴 때 다 타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덜 타서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 타지 않는 소지는 불길하고 정성이 덜하다고 여겨, 다 타지 않은 소지의 이름들만 모아서 다시 소지를 올린다.

소지가 다 타면 무장골 산신당 바로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나무로 제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세 명의 제관들 주도하에 제를 올린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축을 읊고 잔을 올리며 재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이 세가지 나무에서 제를 올리는 이유는 한 나무의 가지가 세 그루의 나무처럼 신비롭게 자랐으며, 예전에 이 근처에서 산삼을 꺾 적이 있어서 언제부턴가 무장골 산신당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이곳에 와서 다시 간단한 제를 한다고 한다.

세 가지 나무에서이 간단한 제사가 끝나면 축관부터 음복을 한다. 축관의 음복이 끝나면 제관과 공양주 순으로 음복을 하고, 제관들의 음복을 끝으로 제사에 참가한 남자 모두 음복을 한다.

음복이 끝나면 고시래(고수레)를 한다. 고시래란 제물의 일부를 덜어내어 제당 근처에 남겨놓는 행위를 말하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이를 제반, 퇴송 등의 용어로도 사용을 한다. 고시래를 하는 이유는 잡신들이나 주변 짐승들이 먹고 가리는 것인데 오늘 산신을 모신 제물이니 이 음식을 먹고 그 은덕을 입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제사가 다 끝나면 제물을 다시 싸들고 마을로 내려온다. 보통은 도가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마을 입구에 있는 안삼재 서낭나무에서 서낭제를 준비한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은 대략 20명 정도 되었다.



세가지나무

오전에 무장골과 세 가지 나무에서 제를 마치고 내려오면 마을 주민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담소도 나누며 저녁에 있을 안삽재 서낭제를 준비하게 된다.

보통 저녁 6시쯤 제관 3명과 제사 준비를 도울 남자 몇 명이 마을 입구에 있는 안삽재 서낭나무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제의 절차는 무장골 산신제와 일치한다.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수풀을 낮으로 정리하고 제단을 깨끗하게 닦고 제물을 올린다.



안삽재 서낭나무

축관이 축원을 읊고 잔을 올리면, 다 같이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하면서 그날 제사는 모두 끝마치게 된다. 안삽재 서낭제까지 모두 마치면 도가집이나 이장집에 마을 주민 모두 모여 남은 제사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술을 마시며 마을 잔치를 연다.

② 축문

축문은 따로 없다. 옛날에는 유생이나 한자를 아시는 어른들이 축문을 작성해서 제를 올렸지만 점차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축문이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제관 중에 말씀을 잘 하시는 어른이 축원과 읊고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조남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는 제사를 올리지도 않고 축문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도가를 오래하면서 제관들이 축원을 읊는 걸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마을 사람들을 위해 높으신 신령님께 비나오니 동네가 무사태평하고 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지를 올려주는데,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축원 내용은 각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였다.

(4) 영험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특별히 없다. 예전부터 특별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따로 없고, 그냥 평범하게 지냈다.

다만 평소에는 산신당 주변이나 마을에서 까마귀를 쉽게 볼 수 있고, 까마귀 울음소리가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들리는데 이상하게 제사 당일에는 항상 까마귀가 울지를 않는다고 한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의 운영은 제사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기 2주 전에 모여서 도가와 제관을 선정하고 제비를 마을 주민들에게 걷은 비용으로 충당하고, 제사가 끝나면 이장이나 반장이 얼마나 들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먼저 무장골 산신당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마을의 산신당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안삼재 서낭나무와 별도로 지어져 있다. 조남운 제보자는 “산신은 산을 지키고 서낭은 마을 지킨다.”고 얘기했듯, 산신과 서

냥의 기능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보면 그 지점은 일단 마을로부터 단절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을과 산을 연결 짓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원대리 마을의 산신제와 서낭제는 마을제사로서의 기능은 거의 사라졌다. 젊은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면서 마을제사의 전통이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2007년 인제 지역의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서낭나무나 산신당이 피해를 보거나 무너지면서 그 이후에는 마을 공동의 제사는 없어졌다고 한다. 다만 가끔 심마니들이 소주나 간단한 제물을 놓고 제를 올리는 정도라고 한다.

비록 마을제사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지만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 한 나무에서 가지가 세 개로 쭉 벌어 자라 마치 한 나무가 세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는 세 가지 나무 역시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마을 입구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서낭나무가 인상 깊었다. 엄청난 물살에도 온전하게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반토막이 된 서낭나무의 모습이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도 반 만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혼이 느껴지는 것 만 같아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바쁘신 와중에도 음료수까지 주시며 조사 내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장님과 조남운 제보자에게 감사드린다.

5. 상남면 하남3리

옷빚골 서낭제와 미기동 서낭제



옷빚골 서낭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8월 28일 9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제보자: 박주흥(남, 58)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이장.

송규돈(남, 64)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함연흥(남, 76) 인제군 상남면 하남3리.

(2) 마을유래와 개관

하남 3리는 후평동, 의식동, 미기동의 3개 반으로 이뤄져 있다. 각반마다 주민들이 부르는 지명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 이름과 뜻이 매우 재미있다.

후평동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뒷버덩’ 이라고 더 많이 불린다. 의식동은 ‘칠전동, 옷밭골’ 이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옷(衣)과 밥(食)을 따서 예로부터 옷과 밥을 걱정 안할 만큼 살기가 좋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함연흥 제보자

하남 3리 후평동(後坪洞) 직금(織錦) 고개를 올라서면 낮으막한 구릉인의 식동(衣食洞)에는 유구열 묘비가 있다. 그 내용은 『인제군사』에 자세히 기록되어있다.¹⁴⁾

14) 『인제군사』, 앞의책, p.834.

〈유구열묘비(柳龜烈墓碑)〉

문화인이며 제 31대손인 유근우(柳根雨)의 차남인 구열(龜烈 1732~1822)의 묘비이다.

조선 제 21대 영조(英祖) 8년(1732) 8월 1일에 태어나 91세를 일기로 많은 치적을 남기고 1822년 8월 14일 서거하였다.

구열(龜烈)은 서사(筮仕)·제릉참봉(齊陵參奉)을 거쳐서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수작(受爵)하고, 호조참의(戶曹參議)로 발탁된 후 봉장(奉藏)하다가 서거 3년 후인 1825년 2월 10일 건립한 석비이며 후손으로 제 34대손 만선(萬善 1916~)이 후평동(後坪洞)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인(貞夫人) 김해김씨(金海金氏 1794~1856)도 옆에 안치되어 있으며 특히 식견이 높고 표리가 교결하며 효우(孝友)가 출천(出天)한 과인임을 당시의 서간문(書簡文)을 통해 알 수 있다.

▲서사(筮仕) : 사마시(司馬試 보통고시)에 합격하였으나 다시 대과를 보지 않고 관계에 봉직함을 말한다.

하남3리에는 재미난 전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굴바우에 관한 이야기다.

뒷버덩 뒤편에는 굴바우라고 사람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굴이 있는데, 그 굴은 터널처럼 되어있고, 옛날 어른들은 박쥐도 집을 짓고 살고, 구렁이들이 많이 살았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하남3리의 후평동, 의식동, 미기동 모두 각 반마다 서낭당과 지당이 다 존재한다.

의식동(옷바탕) 서낭당은 후평동에서 미기동으로 가는 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 중심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서낭당 바로 옆에는 지당도 함께 있다. 산신의 성에 대해서는 박주홍씨는 지당나무는 남신이며, 서낭나무는 여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암수서낭의 구도는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성이다. 인간도 암수가 있어서 생산을 하고, 신들도 암수가 있어 서로 혼례를 올리는데, 서낭도 당연히 암수가 있어야 생산과 풍요를 담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웃밭골 지당(좌측)과 서낭당(우측)

한편으로 신의 성별에 따른 기능도 염두에 둘 수 있다. 풍요와 관련이 있으면 음성신(陰性神)을, 재앙의 퇴치와 같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 양성신(陽性神)을 상징한다¹⁵⁾는 김의숙의 논지를 하남3리 의식동 마을에 적용해 보면 남성과 여성, 즉 수서낭과 암서낭을 동시에 구도화함으로써 풍요와 재앙퇴치 등을 종합적으로 기원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기동 서낭당은 하남초등학교에서 상남리로 가다보면 고개가 나오는데 고개를 넘으면 바로 좌측으로 미기동으로 가는 미기교가 나온다. 미기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서낭당과 지당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미기동 서낭당 역시 의식동(웃밭골) 서낭당과 마찬가지로 암수 서낭당의 구도로 되어 있다.

의식동과 미기동 서낭당의 특징은 두 곳 모두 당의 형태가 나무라는 점이다. 수목신앙은 원초적으로는 수목 속에 초자연적인 영의 위력이 내재한다고 믿는 animism(애니미즘)인 수목숭배사상이 발전한 것일 것이다. 수목신은 곡물을 성장케 하며 가축의 번식을 가능케 한다는 농경생산과의 관계에

15) 김의숙, 「한국민속제의아 음양오행」, 집문당, 1993, p.137.

서 삼림이나 수목을 신앙하는 습속은 세계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수목에 대한 관념은 단군신화에 잘 나타나 있다.

즉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하늘에서 하강한 곳이 태백산맥의 신단수이고, 웅녀가 임신되기를 기원한 대상이 신단수이다. 여기에 나타난 신 출현형식과 신의 표상으로서 신앙된 신단수 곧 신목에 대한 관념이 전술한 바와 일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¹⁶⁾



미기동 지당(좌측)과 서낭당(우측)

그러므로 수목은 원초적으로는 생명력과 생식력의 상징으로서 숭배되었으며, 여기에 천공의 세계에서 조상신이 의지 하강하거나 서식한다는 후대의 사상이 부합되어 신목 신앙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박주홍씨는 ‘좌측에 남신이 자리 잡고, 우측에 여신이 위치한 것은 남신이 여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라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하남3리 의식동 마을과 미기동 마을제사의 제일(祭日)은 음력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일년에 두 번씩 이루어졌던 제의가 현재에는 1회에 그치고 있다.

16) 정후수, 「성황당의 민속학적 고찰」, 『새국어교육』 3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982, pp.552-554.

음력 8월 13일 아침 6시경 지당 앞에서 각종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올린다. 지당 나무에서의 제가 끝나고 바로 옆 서낭나무에서 다시 제를 올린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으로는 잔을 올리는 헌관, 축을 읽는 축관이 있다. 제관이나 축관을 선정할 때에는 1주일 전에 부정을 타지 않고, 깨끗하고, 상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피를 보지 않은 생기복덕한 자로 선정한다. 이러한 전통은 점차 인구가 줄고, 제사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



하남 3리 박주흥 이장

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제관을 선정할 때 엄격하게 생기를 보기 보다는 이장, 노인회장, 반장 등이 별 다른 탈이 없다면 제관이 된다.

마을제사 1주일 전에 부정 안타고 깨끗하며 부부간의 생기가 맞는 집을 선택해서 도가를 지정한다. 도가에 선정이 되면 지당나무와 서낭나무에 새끼줄을 걸고 주변 정리를 한다. 제사 당일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출입하거나 새끼줄에 손을 절대로 대면 안 된다. 제사 당일에도 부정 타지 않은 지정된 사람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마을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집집마다 조금씩 모아서 제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해마다 통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장치를 하기도 했다. 통돼지를 잡을 때는 피도 다 먹었기 때문에 바위 위에 통돼지를 올려놓고, 바위에서 돼지 피가 잘 흘러내리도록 흙을 파서 흐르는 피를 받아 마을

주민들끼리 나눠 마셨다고 한다.

요즘 마을제사에 올리는 제물은 돼지머리, 메, 시루떡, 북어포, 무생채, 막걸리 또는 소주를 올린다.

송규돈 제보자에 의하면, 예전에는 제사 일주일 전에 제당 근처에 와서 새우젓갈통 만한 크기의 통 안에 쌀과 누룩과 물을 섞어서 잘 봉한 다음 땅을 파서 묻어서 제주(祭酒)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제사 당일에 돼지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메, 시루떡, 북어포, 막걸리나 소주 등의 제물은 2개씩 준비한다. 아침 일찍 지당에 도착하면 창호지를 깔고 제물을 차례대로 진설한 다음 제사를 올린다. 지당 제사가 끝나면 돼지머리는 조심스럽게 서낭당으로 옮기고 나머지 메와 북어포, 제주 등은 새 것으로 올린다.

④ 제수준비

의식동과 미기동 마을제사는 두 곳 모두 예전에는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지금은 간소하게 제를 올리기 때문에 각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남 시내나 현리 시내에 가서 제물을 구입한다. 도가에 선정이 되면 금줄을 치게 되는데, 최근에는 금줄을 치기도 하고 치지 않기도 한다.



미기동 서낭당 사진

제수 비용은 위에서 보았듯이 마을 주민들이 정성으로 각 호수마다 거두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을 운영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⑤ 금기방법

상을 당했거나, 피를 봤을 경우에는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여자들도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 지당과 서낭당 제사가 모두 끝나고 도가집이나 마을회관에서 남은 제물과 음식들을 먹을 때 참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엄격한 금기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을 땀다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안 좋은 것을 보거나 겪었을 때는 제관이나 도가를 맡지 않으며,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서낭제를 올리는 달이 다가오면 마을주민들은 회의를 열어 그 해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헌관과 축을 읽는 축관, 도가를 선정하게 된다.

제관에 선정이 되면 제사일이 되기 전까지 목욕재계(沐浴齋戒)를 한다. 제의에는 여자들이 참석하지 못한다. 제비는 마



축원을 읊는 송규돈 제보자

을 운영비나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 주민들이 정성껏 호수 별로 모아서 제물을 구입한다. 제사 전날 제관들은 제당에 찾아가 주변 정리와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제사일이 되면 평상복 중에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입고, 오전 6시경 지당으로 향한다. 지당에 도착하면 다시금 주변 정리를 한 후 창호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예전에는 제당에 와서 메밥을 짓거나 했지만 요

좁은 도가에서 밥을 다 지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사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다.

제물이 다 진설되면, 헌관이 혼자서 잔을 한 잔 올리고 축관이 축원을 한다. 축문은 따로 없고, 축원을 올리고 나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마을 공동의 안녕을 빌고 각 가구별로 소지를 다 올린다.

이 소지는 ○○○의 소지입니다. 올 한해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의식동(옷빋글) 지당은 얼마 전 벌목 작업을 하면서 외부 작업자들이 지당나무인지 모르고 잘라 버렸다. 지금은 서낭나무만 멀쩡히 서 있었는데 같이 동행했던 하남3리 이장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불쾌해했다.



잘려진 의식동(옷빋글) 지당나무

지당에서 제사가 끝나면 바로 옆에 서낭나무에서 다시 제사를 올린다. 지당나무에서 올렸던 돼지머리는 다시 올리고 나머지 제물들은 새 것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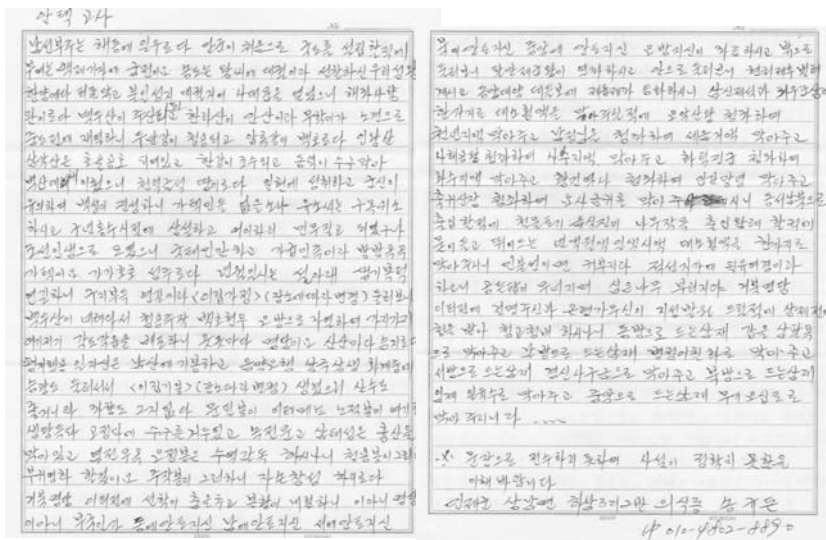
제사가 다 끝나면 술잔을 서낭나무 근처에서 고수레를 했다. 고수레는 접시에 제물로 받쳤던 음식들을 조금씩 덜어서 남겨 두고 마을회관이나 도가로 돌아온다.

이때는 여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복을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해의 마을제사를 마무리 한다.

② 축문

하남3리에는 축문은 따로 없고, 입으로 전해 내려온 ‘안택고사(安宅告祀)’라는 것으로 축원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송규돈 제보자는 하남3리 지역의 마을제사 때마다 축원을 해 왔다. 송규돈 제보자에 따르면 예전부터 전해 듣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며, 내용에서 날짜와 장소, 마을이름만 다르게 해서 독축한다.

이날 녹취를 할 때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받아 적기가 어려웠었는데, 송규돈 제보자는 좋은 취지로 하는 만큼 직접 자필로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송규돈 제보자가 자필로 보내온 안택고사

◎ 안택고사(安宅告祀)

남선부주는 해동에 일우로다 단군이 처음으로 국도를 설립할적에 부여는 백제기자에 궁전이요, 송도는 왕씨에 대궐이라 선찰하신 우리성왕

한양에다 터를 닦고 불일성지 대궐지어 사대문을 열었으니 해좌사향 관이로다
 백두산이 주산되고 한라산이 안산이라 무학이가 노건으로 중도전에 재열하니
 두만강이 청룡되고 압록강이 백호로다 인왕산 삼각산은 호골용호 되어 있고
 한강이 조수되고 동녘이 수구막아 벽산대해 이뤘으니 천덕금석 땅이로다
 일현에 성취하고 군신이 유의하여 백성이 진성하니 가택인들 없을소나
 유소씨는 구목위소하시고 구년홍수시절에 상설하고 어이하리 민무질고 되었구나
 조선인생으로 모였으니 국태민안하고 가급민족이라 방방곡곡 가택이요 가가호호
 성주로다

연월일시는 설아래 생기복덕 연결하니 구지부득 연결이라 이집가정(장소나
 마을에 따라 변경) 둘러보니 백두산이 내려와서 청용주작 백호현무 오방으로
 자열하여 가지가지 여기저기 각도 각읍을 배포하니 곳곳마다 명당이요 산산마다 승
 지로다

평지행용 일지신은 남산에 기봉하고 음양오행 상극상생 화계중에 승광도 둘러서서
 이집기봉(장소따라 변경) 생겼으니 산수도 좋거니와 좌향도 그지없다

문필봉이 어테메노 노적봉이 여기로다

생왕득과 고정파에 수구를 거두었고 녹전문고 삼태성은 홍산을 막아있고 염전무곡
 오정봉은 수역감독 하시나니 청용봉이 그러하니 부귀영화 할것이오

주작봉이 그러하니 지손창성 하리로다

거북명당 이터전에 선학이 춤을 추고

봉황이 내림하니 이아니 명당이며

아아니 부국인가

동에안토지신 남에안토지신 서에안토지

신 북에안토지신 중앙에안토지신

오방지신이 좌중하시고 밖으로 둘러보니

팔만제군왕이 열좌하시고

안으로 둘러보니 현처제후빌려 계시고

동양대양 대들보에 제읍제좌 승화하시니

삼신제석과 좌우조상이 한가지로

대소형액을 막아주실적에

오악산왕 청좌하여 천년지약 막아주고

남정남을 청좌하여 세음지액 막아주고

사해용왕 청좌하여 사수지액 막아주고

화덕진군 청좌하여 화수지약 막아주고

황건역사 청좌하여 인간망녕 막아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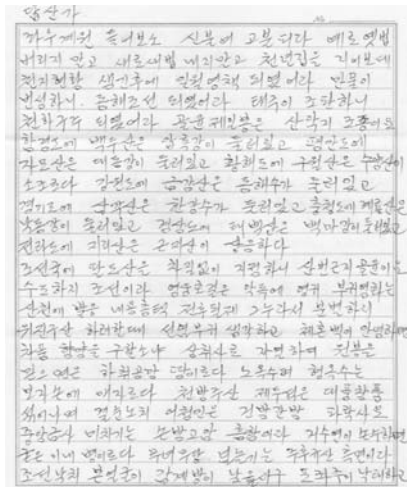
안택고시를 읊고 있는 송규돈 제보자

축귀신장 청좌하여 오사금귀를 막아주시니
 동서남북으로 출입할적에 철물토기 음식진미
 나무작목 출입왕래 할 적에 묻어듣고 뛰어드는 년액월액일액시액 대소형액을
 한가지로 막아주시니 인불언이면 귀부지다
 적선지기에 필유여경이라 하오니 공든탑이 무너지며 심은나무 부러지랴
 거북명당 이 터전에 건명주신과 곤명가무신이 지성발원 드릴적에
 상제전에 청을 받아 청고청비 하시나니 동방으로 드는삼재 갑을 삼팔목으로 막아주고
 남방으로 드는 삼재 병정이칠화로 막아주고
 서방으로 드는 삼재 경신사구금으로 막아주고
 북방으로 드는 삼재 임계 일옥수로 막아주고
 중앙으로 드는 삼재 무기오십토로 막아주시니라

송규돈 제보자는 ‘안택고사’외에도 ‘답산가(踏山歌)’를 외우고 있었다. 이 답산가는 실제로 상남면, 기린면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송규돈씨는 예전에 인제군에서 발간된 책에 답산가에 대한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과 달라서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아줬으면 했다.

◎ 답산가(踏山歌)

좌우계원 들어보소 신불여 고불되랴
 예로옛법 버리지 말고 새로새법 내지말고
 천년집을 지어보세
 천지현황 생긴후에 일월영채 되었어라
 만물이 번성하니 동해조선 되었어라
 태극이 조판하니 천하구주 되었어라
 끝윤제일봉은 산악지 조종이요
 함경도에 백두산은 압록강이 둘러있고
 평안도에 자모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에 구월산은 수양산이 소조로다
 강원도에 금강산은 동해수가 둘러있고
 경기도에 삼각산은 한강수가 둘러있고
 충청도에 계룡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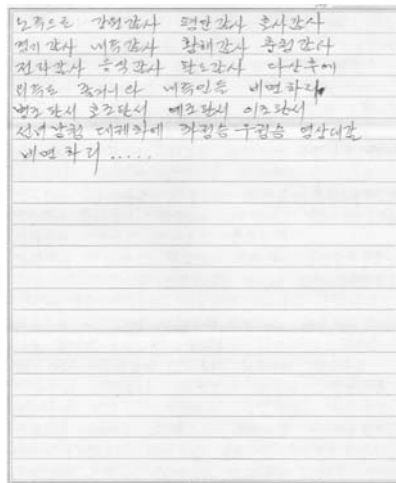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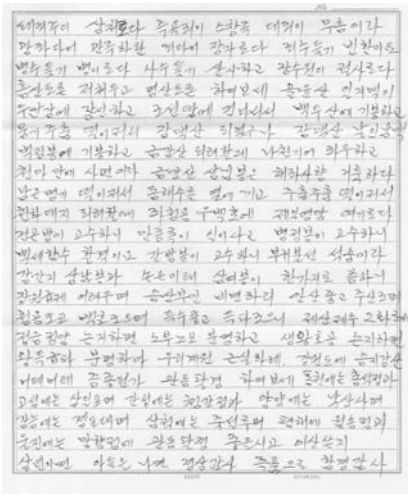


송규돈 제보자가 보내온 답산가

경상도에 태백산은 백마강이 둘러있고
 전자도에 지리산은 근지산이 상응하다
 조선국에 팔도산을 차질없이 지정하니
 산변근지골운이요 수도하지 조선이라
 영웅호걸은 악독에 영귀 부귀영화는 산천에
 발흥 내용총택 전후될제 그누라서 분별하리
 위진구산 하려할 때 선염부귀 생각하고
 체훈백이 안녕하면 차품 한양을 구할소냐
 상취사로 자열하여 원봉을 믿으면은
 하취공망 땅이로다

노옥수며 형옥수는 보지손에 애자로다
 천방주산 제두석은 대풍창풍 섞어나며
 결순노치 어청인은 건장간방 파락사오
 중앙금사 미치기는 손방고암 흥함이라
 지수연이 손수하면 굳은 이내 병이로다
 무너무당 넘놀기는 주휴규산 측면이라
 조선나치 본얼굴이 감계방이 낮을시구
 포좌주이 낙태하고 태좌주이 상처로다
 즉육죄이 스창측 대죄이 무흠이라
 광좌다어 관즉하완 죄다이 장자로다
 죄수들기 빈한이요 병수들기 병이로다
 사수들기 산사하고 장수원이 절사로다
 흡산토론 저쳐두고 명산토론 하여보세
 골운산 일지맥이 두만강에 장신하고
 조선땅에 건너서서 백두산에 기봉하고
 몽기주춤 떨어져서 장맥산 되었구나
 장맥산 날인냥액 백정봉에 기봉하고
 금강산 되려할제 나천기어 좌우하고
 천마만에 사면이라 금강산 상님봉은
 해좌사향 거룩하다

남은명기 떨어져서 동해수를 옆에 끼고 주춤주춤 떨어져서 천하대지 되려할 때
 좌청룡 우백호에 제일명당 여기로다
 건곤방이 고수하니 만종록이 일어나고 병정봉이 고수하니 백세향수 할격이요
 간방봉이 고수하니 부귀불선 석숨이라



감간지 상남봉과 손은이태 삼여봉이 한가지로 층하니 장원급제 어려우며 승상부인
 비면하리 안산종교 주산조으며 청용조코 백호조으며 득수종교 득다조으니
 제산계수 도화로세
 정음정양 논지하면 노부노모 분명하고 생왕호용 논지하면 왕득급과 분명하다
 우리계원 근실하네
 강원도에 승지강산 니데머테 증중턴가 관동팔경 하여보세
 통천에는 총석정과 고성에는 삼일포며 간성에는 청간장과
 양양에는 낙산사며 강릉에는 경포대며 삼척에는 죽서루며
 평해에 월송정과 울진에는 망향정에 관동팔경 좋을시고
 이신쓴지 삼년이면 아들을 나면 경상감사 즉품으로
 함경감사 노즉으로 강원감사 평안감사 호사감사
 경기감사 내즉감사 황해감사 충청감사
 전라감사 응식감사 팔도감사 다산후에
 외즉도 좋거니와 내즉인들 비면하리
 병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선녀낭청 대제하에
 좌정승 우정승 영상대감 비면하리

(4) 영험담

하남3리에 사시는 채금용 할머니는 예전에 신 내림을 받아서 그 분이 마을제사를 항상 주도했다고 한다. 한번은 채금용 할머니와 함께 서낭나무에서 정화수를 떠서 정성껏 제를 올렸더니 집안 일이 잘 풀리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농사가 흉년이 들고 그러면 밥을 지어서 서낭나무나 지당나무에 와서 정성껏 제를 올려서 아픈 몸이 건강해지거나, 하는 일들이 잘 풀렸다고 한다. 특히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한 병이 있을 때도 이곳 서낭나무나 지당나무에 와서 정성껏 빌면 나왔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는 마을 운영비나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쓴다. 예전같이 통돼지 한 마리를 잡을 때는 돼지구입비만 20~30만 원 정도 들었다. 지금은 돼지머리만을 올리기 때문에 제사비용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돼지머리, 북어포, 술, 초, 향 해 5~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반장님이 제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내년에 있을 제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 할 수 있는데, 전통사회에서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해,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갖가지 질병 등은 당시로서는 넘지 못할 산이며 건너지 못할 강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사회는 갖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의이다.¹⁷⁾

다시 말해 제의 행위는 인간이 그 의식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제의 대상이 어떤 형태이던 정성을 다 한다면 그 대상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강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런 제의의 성격은 하남 3리 의식동과 미기동 마을제사에도 잘 나타난다. 마을 전체의 행사인 마을제사가 있는 반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의를 치르기도 한다. 제의의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동일하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잘 담겨져 있는 곳이 서낭당과 지당이다.

17) 이영식, 「횡성지역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집, 강원도민속학회, 2005, pp.521~522.

의식동과 미기동의 서낭당과 지당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음으로서 합배를 통한 출산의 소망을 담아내었고, 이는 곧바로 농작물의 풍작과 이어지는 일종의 유감주술인 것인데, 이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은 상호간 단결과 생산력을 담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기동 서낭당 내부사진

송규돈 제보자와 하남3리 이장은 마을제사가 예전처럼 통돼지 한 마리 잡아서 모든 마을주민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함께 음복했던 때가 그렇다고 한다. 마을 인구가 점차 줄고 마을제사의 전통을 이을 젊은 층들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하남3리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의식동(옷बाट) 지당나무가 잘라진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우리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단면이 아닐까 싶다. 이런 사고를 계기로 마을 곳곳에 남겨진 민속, 전통문화와 유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6. 남면 신흥리

지내비골 산신제



지내비골 산신당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8월 14일 10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평리

제보자: 장영호(남,57) 인제군 남면 신평리.이장님.

박정순(여,49) 인제군 남면 신평리.

전학순(남,86) 인제군 남면 신평리.

석명스님 인제군 남면 신평리. 우리좋은절

(2) 마을유래와 개관

본래 남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치리(沙峙里)와 유목정(楡木亭)의 일부를 병합하여 신평리(新豐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생김에 따라 피난민이 급증하므로 북쪽 일부와 다릿골(교동(橋洞)), 절뚜루¹⁸⁾, 진뚜루¹⁹⁾를 떼어 신남리(新南里)를 신설하였다. 면 소재지에서 2km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산신당 옆에 우리좋은 절 사진

가구수는 132호이며, 인구는 남자 222명 여자 218명 총 440명이 거주하

18) 절뚜루 : 신남 옆에 있는 들로 면적은 2천5백여평이고 절이 있었다. 소양댐으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에는 이곳에 석불좌상이 1기가 있었으나 인제읍 서릿골에 있는 백련정사(白蓮精舍) 주지 강석천(姜昔泉) 스님이 지금의 백련정사 뒷편에 옮겨 모셨다. 『인제군사』, 인제군. 1996, p.1187.에서 인용.

19) 상베바우 앞 들 옆에 있는 마을로 군인들이 진을 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 있다.

이 지역에는 예전부터 ‘송도령’이라는 산과 관련된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데, 송도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전설일거라 여겨진다. 『인제군사』에는 ‘송도령’ 전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옮겨본다.

남면(南面)의 소재지인 신남리(新南里)에서 신평리(新豊里)를 지나 어론리(於論里)로 들어서는 초입새의 국도 건너 오른쪽에는 기암 절벽의 남성적인 육중한 산이 웅립하고 있으니 이 산을 예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송도령(松道令 473m) 이라고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아득한 100년전 이 고장에는 매우 어려운 가장에서 태어난 송도령(松道令)이라는 초부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여 늘 산야를 찾아 다니면서 땀나무와 풀나물과 석이버섯 등을 따서 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어느날 이 초부는 이 산의 중턱에 발달한 5,000평 가량 될 듯한 평탄한 놀이터로 올라가 그 정상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석이버섯을 따기 위해 생각한 나머지 줄을 매놓고 작업을 계속하였다. 의외로 석이버섯을 많이 따내어 기쁨을 감추지 못한 이 송도령은 곤충류의 다족류(多足類)에 속하는 지네가 줄을 끊어 버려 그만 추락되어 죽게되자 그후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초부의 이름을 부쳐 송도령(松道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완고한 가문에서 태어난 어론1리 경주인 김성규(金聲奎 1922~1933. 6월 사망)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여러번 들었다고 전해준다.

정상에는 마치 무당의 흰옷을 펼친 모습과 같은 모양을 한 무당굴이 있는가하면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왔다는 산제굴이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앓는 신평천(新豊冷泉)과 함께 주위의 자연경관이 하도 저승하여 봄부터 가을에 이르러 관람객들로 줄을 잇는다. 뿐만 아니라 이 무당굴과 산제굴에 얽힌 일화로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어 행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날이 개인날 이 정상에 오르면 멀리 맑게 푸른 소양호(昭陽湖)가 보이니 청록으로 반사하는 호면(湖面)은 과연 조망풍요(眺望豐饒)에 충만해 있는 것만 같은 인상을 주고도 남음이 있는 한편 다기(多岐)한 능선을 따라 발달한 설악산(雪嶽山)의 웅장함과 절승의 산악미를 한눈에 볼수 있어 산따라 물따라 시가 저절로 흘러 나올듯 그 조망은 가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일대장관이 아닐 수 없다.²⁰⁾

장영호씨(57,남,이장님)에 의하면 제당 근처의 ‘송도령’은 주민들 사이에서 송덕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송덕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는 이곳 이장님에게 전화를 신평리 마을제사에 대해 물었더니 이장님은 친절하게 위치를 설명해주었고, 2010년 8월 14일 오전 10시경에 신평리 마을을 찾았다. 산신당은 홍천에서 남면 시내로 들어서기 전에 ‘자재리’라



개천 위에 바위가 바로 지내비골 산신당

는 표지판을 따라 이동해야 한다. 다행히 이장님이 마을 입구까지 마중나오셔서 산신당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서 산신당까지는 차로 5분정도 소요되는데 산신당까지 가는 길은 맑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이 지역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고스란

20) 『인제군사』, 앞의 책, pp.140~141.

히 담겨 있었다.

산신당은 개천 건너편 큰 바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당집으로 크고 화려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곳 주민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본래 산신당은 지금의 지내비굴이 아닌 ‘새제’라는 골짜기에 있었다고 한다. ‘새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제시대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해를 많이 죽었지만 ‘새제’ 마을 사람들은 별로 피해를 보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새제라고 불린다고 한다. 산신제를 지내는 당의 이름을 물어보자 새제마을에 있다고 하여 ‘새제 산신당’이라고 하였다.

새제 산신당은 오래 전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이후 마을 곳곳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많이 생겨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신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이후 현재의 ‘지내비굴’에 산신당이 생겨나서 지내비굴 산신제라고 주민들은 부른다.



바위굴 같이 생긴 것이 지내비굴 산신당

지내비굴이란 지명유래는 『인제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지내비굴, 지내미굴로 불리우고 있으며, 지내가 많아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하고, 권애비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지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권애비가 살아서 「권애비굴」이라 부르던 것이 지내비굴로 변화한 것이 더욱 실감난다.

전학순 제보자는 “산신당이 바위굴에 자리 잡고 있고, 앞에는 깨끗한 개천이 흐르고 주변에는 푸른 산이 자리 잡고 있으니 제사 지내기에 이보다 좋은 명당이 없다.”고 한다.

산신당은 주변에 나무들이 즐비하고, 바위굴 형태로 생겨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있다. 장영호 이장님이 산신당까지 직접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면 개천 건너 바위굴이 산신당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지나쳤을 지도 모르겠다.



산신당 내부 사진

그런 점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마을 입구에서부터 산신당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준 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당의 형태는 자연적으로 된 바위굴 아래에 모셨다. 바위굴의 높이는 대략 70cm정도 되었는데 제당 아래에는 가로 1m 정도의 큰 대리석 2개를 깔아서 제물 진설대를 만들어 놓았다. 산신당 양쪽과 지붕을 벽돌이나 인위적인 재료로 막은 것과 달리 자연굴 자체를 산신당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거 같다.

바위와 큰 나무 등은 예로부터 원시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앙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바위와 거목은 천신의 하강단계인 동시에 주거처인 곳이라고 신앙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애니미즘(Animism)과 애니매티즘(Animatism)이 강력히 작용하여 이 바위와 거목들을 제천단으로 숭배하고 소원성취를 기원함으로 시작한 누석단과 암석신앙이 발전했다.²¹⁾

그래서 암석은 제단이 되기도 하고 신령이 그 암석 자체에 깃들여 있다고도 하는 신앙에서 산신당의 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진설대

박정순 제보자에 따르면 산신당 앞에 개천이 흐르고 있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산신당 안으로 물이 들어

가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산신당의 위치를 옮겨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새로 안전한 곳으로 산신당을 옮겨 지을 계획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마을 인구도 줄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어서 이마저도 흐지부지 됐다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예전에는 제사 날짜를 받아서 제를 올렸지만, 지금은 제사 날짜를 볼 줄 아는 어른도 없고 정해진 날짜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마을에

21) 유중선, 「암석신앙전설」, 「한국민속학」2집, 1970, p.57.

서는 일 년에 두 번 음력 8월 14일
과(추석전날) 음력 1월 2일(구정
이튿날)에 산신제를 지낸다.

시간은 일찍 새벽에 산신당에
가서 지낸다. 보통은 새벽 5시 30
분쯤 제당에 와서 청소를 한다.
일부 인원들은 돼지를 잡고, 메밥
을 짓고, 산신당 진설대에 제물들
을 올린다.



제사에 오래 참여한 전학순 제보자(86세)

산신당에 올라오면 잡담을 하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사 준비를 한
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마을 어른 중에 생기가 좋고, 부정 타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서 제관과 도
가로 선정했다. 보통 제관과 도가는 제사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미리 정한다.

제관과 도가에 선정이 되면 항상 청결하고 부정 타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
해야 한다. 피를 보거나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개를 잡으면 안 된
다.

제관은 제사 전에 목욕재계를
해야 한다. 제관이 목욕을 하는
것은 심신을 정화하여 제신을 맞
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때
그 목욕은 심신을 정화한다는 의
미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존재에
서 신성한 존재로의 종교적 탄생



우리좋은절 석명스님

을 의미한다.

또한 제관과 도기는 성생활을 금해야 한다. 이러한 금기생활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제관으로 선정된 그날부터 부부가 각각 다른 방에서 잠을 자거나 같은 방에서 잘지라도 일체 성교를 금한다.

특히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신당에 올라왔을 때는 더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담배는 태우지 않고, 잡담은 금지한다.

제사를 주관하셨던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관 뽑기가 쉽지 않아 2년 전부터는 제당 옆 '우리좋은절'의 석명 스님이 제관을 맡아 주신다고 한다.

제사 당일에는 석명스님을 제관으로 하고, 마을대표로 이장님이 소지를 올린다고 한다.

③ 제비와 제물

산신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인제군 관내 다른 마을들과 대부분 비슷하다. 이른바 유교식 제물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용된다.

제비와 제물은 제사 날짜에 따라 규모면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음력 1월 2일 구정 때에는 동네 주민들 모두가 45만 원 정도를 모아서 돼지를 잡는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메, 포, 북어찜, 과일 시루떡 등이 올라간다. 구정 때는 통 돼지를 잡기 때문에 남은 고기는 주민들끼리 나눠서 먹으며 잔치를 연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제당 앞의 정자에서 율놀이 행사도 한다.



제사 후 동네잔치를 하는 원두막

음력 8월 14일 산신제에

는 구정 때와 달리 통돼지는 잡지 않고, 주민들이 모은 제비를 가지고 돼지 머리만 구입해서 밥 세 공기, 포, 북어찜 등과 함께 제물로 올린다.

제주는 오래 전에는 직접 빗은 술을 사용했다. 제사 일주일 전에 산신당 근처에 와서 제주미와 누룩과 물을 섞어 단지에 넣고 땅을 파서 묻어 만들게 되는데 제사 일에 꺼내 사용하게 된다. 이 때 제주는 도가나 생기가 좋은 사람만이 참여해서 빗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소주나 막걸리를 사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④ 제수준비

제물은 보통 산신제 전날에 이장이나 반장이 장을 봐 온다. 예전처럼 도가가 잘 운영이 되었을 때는 도가에 금줄을 치고 제물을 준비하고 장도 보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이장이나 반장이 제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물은 주로 신남 시내에서 구입한다. 음력 1월 2일 구정 때 산신제에는 마을 운영비와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제비로 통돼지를 잡는다.

돼지는 인제군 관내의 다른 마을제사에 쓰이는 것처럼 수퇘지를 사용한다. 이는 제사에 여자들이 참여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이다.

오늘날에는 제주를 소주나 막걸리로 대신하지만, 제사를 많이 주관했던 어른들이 많이 살아 계실 때는 제주도 직접 정성껏 담갔다.

⑤ 금기방법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부정 탄다고 해서 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장을 볼 때도 남자들만이 제물을 구입할 수 있다. 여자가 제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도가의 안주인이 음식을 준비할 때 정도만 해당된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과 도가는 여러 가지로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한다. 다른 마을제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지 않아야 되며, 상가집을 방문하거나 부부관계도 금해야 한다.

또한 피를 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개나 가축 등을 살생해서 먹어서도 안된다. 가족 중에 임신을 했거나 생리를 하는 여성이 있으면 생기복덕이 달아도 제관이 될 수 없었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의는 우선 제사 당일에 제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새벽 5시 30분경 이장을 주축으로 반장님과 제사 진행을 도울 남자들 몇 명이 제당에 오면 제당 주변을 깨끗하게 쓸고 정리한다.

주로 해뜨기 전에 제사를 시작하는데, 우선 제당 안에 마련된 제단의 양쪽에 촛불을 켜고, 창호지 한 장을 건다. 이후 깨끗한 창호지 한 장을 제단에 깔고, 준비해온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을 진설한 후에 제관과 참가자들이 함께 절을 한다. 이후 이장이 대표로 다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린다. 잔을 올리고 나면 밥그릇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꼽는다. 젓가락도 포나 북어점 위에 올려놓는다.



신평리 장영호 이장

이장이 다시 절을 올리면 석명 스님이 축원을 한다. 축원 내용은 마을의 안녕과 마을 주민들이 무탈하게 한해를 보내게 해달라는 내용

이다. 특히 축원의 뒷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직업과 자녀들의 각 종 시험이나 진급 등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축원이 끝나면 이장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한지를 곱게 접어 양초에 불사르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소지가 잘 올라가느냐 마느냐로 그 해 길흉화복을 일부 짐작을 한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소지의 영험함을 믿는 편이다. 간혹 소지가 다 타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가 끝나면 음복을 한다. 제물을 일부 제관들이 먼저 시음을 하는 것이다. 제관 외에도 제사 진행을 도와주러 온 남자들도 음복을 할 수 있다.

음복이 끝나면 일부 술을 제당 주변에 뿌리고, 제물 일부를 제당에 남겨 두고 오는 고수례를 한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는 제물들을 다 챙겨서 제당 앞 쪽에 있는 원두막에 주민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한다. 제당에서 마을회관이나 마을 시내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최근에 원두막을 제당 앞에 만들었다고 한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여자도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며 율놀이 행사도 하고 잔치를 벌인다.

올해 음력 1월 2일에 있었던 산신제에는 15명 정도가 마을제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② 축문

예전에는 한문을 이는 어른들이 더러 있어서 고축을 하였지만, 한자를 아는 마을 주민들이 없어지면서 최근에는 제를 올리면서 간단한 축원을 하는 정도로 간소화하고 있다.

이런 전통이 쭉 내려오다 2년전에 제당 옆에 '우리좋은절'이 생기면서 석명스님이 축원을 대신 해주고 있다. 축원은 스님이 읊어주시다보니 유교적 내용과 불교용어들이 접목된 것이 특징이다. 석명스님의 지내비꼴 축원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이 山祭를 지내게 된 因緣功德으로
 이 마을 주민들이 六根은 청정하고
 四大剛健하며
 安過泰平하며 자손 昌盛하며
 惡人들은 멀리하고 貴人은 相逢하고
 壽命長壽하고 財數大通하며 富貴榮華를 누리고
 또 農業者들은 雨順風調하고
 五穀豐盛하며
 萬事 如意圓滿亨通 大願하나이다.

다시 원하옵나니 지내비굴 산신님이 加被하사
 각기 東西四方 出入諸處 할 때
 相逢吉慶 不奉災害
 官災口舌 三災八難
 四百四病 營爲消滅 하시고
 學者들 日就月將
 수험자들 각종 試驗合格하시고
 유소년자들 바른성장
 進級者들 進級 速成就
 事業者들 事業繁昌
 商業者들 財數大通
 無福者들 福德具足
 職業者들 守分成就
 無職業者들 職業 速成就
 문연자들 結婚 速成就
 無子女들 速得子女
 短命者들 壽命長壽
 병고자들 卽得快差
 夫婦不和合자들 和合速成就
 부동산매매자들 速賣却成就
 운전자들 매사 무사고운전

心中 所求所願 萬事 如意 원만 成就志發言.

이 산재를 지내게 된 인연공덕으로
 이 마을 주민들이 육근(죄의 근본이 되는 (눈,코,귀,혀,몸뚱을 지칭)은 청정하고
 사대(도가에서는 도(道)하늘(天)땅(地)임금(王), 불교에서는 천지만물을 뜻함)
 강건하며
 평안하고 태평하며, 자손이 창성(기세가 일어나 크게 뻗어나감)하며
 악인들은 멀리하고 귀인들은 서로 만나며
 수명은 장수하고, 재수가 대통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농업자들은 농사가 잘되도록 비가 때를 맞추어 오고 바람이 고르게 불고
 오곡이 풍성하며
 만사가 뜻 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비나이다.

다시 원하옵나니 재리비골 산신님이 보살피어
 각기 동서사방 여러 곳에 드나들 때
 경사스러운 일만 만나게 하고, 재해는 만나지 않게 하며
 관재(관청에서 비롯되는 재앙)와 구설(시기하며 헐 뜻는 말)
 삼재팔난(모든재앙과 고난) 사백사병(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을 영원히 소멸
 하시고
 학업자들은 일취월장하게
 수험자들은 각종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유소년들은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진급자들은 빠르게 진급하게 하시고
 사업자들은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창업자들은 재수가 대통하게 하시고
 복이 없는 자들은 복을 갖게 하시고
 직업을 가진 자는 자신의 하려는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직업이 없는 자는 직업을 빨리 가지게 하시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는 빨리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갖지 못한 자는 자녀를 빨리 갖게 하시고
 수명이 짧은 자들은 오래 살게 하시고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빨리 낫게 하시고
 부부가 화합하지 못하는 자들은 빨리 화합 할 수 있게 하시고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빨리 팔 수 있게 하시고

운전자들은 매사에 무사고 운전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제 발언으로 모두 뜻대로 원만히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4) 영험담

신평리 주민들은 지내비굴 산신당을 매우 영험하고 신성한 곳으로 생각
 하고 있다. 비록 산신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차 줄고 있지만 주민들은 산
 신제를 올려서 마을이 편안해지고 사고도 안 나고, 아주 신비로운 곳이라고
 한다.

장영호 이장은 다음과 같은 영험담을 얘기했다.

〈병이 고쳐진 이야기〉

옛날 인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 제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꼭 한 달에 2번씩 이곳 제당에 와서 떡과 시루를 올
 려서 정성껏 제를 올렸거든.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인천에서
 엄청 먼 이곳까지 와서 제사를 올리지 궁금하기도 해서 동네 한분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는거야... 병원
 에서 아무리 치료를 하고 좋은 약이라는 건 다 먹어보고 해도 낫지를
 않더라...

그래서 멀어도 항상 이곳에 한 달에 두 번씩 꼭 찾는다고 하더라
 는거지..

그렇게 한 달 두달이 지나서 어느 날 부턴가 그 사람이 찾아 오지
 를 않아서 내심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또 오더라는거
 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곳에 정성을 드린 이후에 병이 고쳐져서 고
 마워서 찾아온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장영호)

주민들 사이에서 이 제당을 신비롭게 여기게 된 이야기는 마을에서 벌어

진 이상한 일들과도 관련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고로 죽어간 이야기〉

원래 이 제당은 여기 말고 지금 군부대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근대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제당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한동안 산신제를 하지 않았어.

근대 그 이후로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거야. 젊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고, 각종 사고로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주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래도 산신제를 안 올려서 그런가 같으니까 다시 제당을 옮겨서 제를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

그래서 지금 제당 위치로 옮겨서 제을 올리니까 그 이후에는 약 먹고 자살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어진거야. 참 신기한 일이란 말야.(박정순)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가 끝나면 마을주민회의 때 이장이 제사에 사용된 비용을 얘기하는 것으로 간단히 마무리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산은 우리민족의 민간신앙의 주요 대상이다. 더구나 생활이 궁핍한 산촌 주민들에게는 풍요를 안겨주는 산이야말로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산신은 산촌 주민들에게 ‘인간에게 병이나 재난을 안겨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산신의 주인이다. 그런 산신에게 혜택에 감사하고 풍요를 빌기 위한 산신제는 절대적이다.²²⁾

특히 신평리의 산신제는 1년의 두 번 한해를 시작하는 음력 1월 2일과 산의 혜택이 풍성해지는 가을 음력 8월 14일에 지낸다.

신평리의 산신제는 인제 지역의 산신제와 마찬가지로 산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숭배관념이 투사된 제의로서, 신의 생명력을 의지해 지내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재미난 특징은 스님이 축원을 해준다는 점인데, 축원 내용을 보면 재미나면서도 현실적인 내용이 많이 첨부 된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자들은 일취월장하게
 수험자들은 각종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진급자들은 빠르게 진급하게 하시고
 사업자들은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업이 없는 자는 직업을 빨리 가지게 하시고
 결혼을 하지 못한 자는 빨리 결혼을 하게 하시고
 자녀를 갖지 못한 자는 자녀를 빨리 갖게 하시고
 수명이 짧은 자들은 오래 살게 하시고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은 빨리 낫게 하시고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은 빨리 팔 수 있게 하시고
 운전자들은 매사에 무사고 운전하게 하시고

위의 내용처럼 전통 유교식 축문과 달리 최근의 사회적 이슈들도 어느 정도 접목된 현실적인 주민들의 고민이나 자녀들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서 흥미롭다.

²²⁾ 김정하, 「인제군 산신제의 시기 및 구성 원리 고찰」, 『강원민속학』 제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년, pp.159~160.

7. 인제읍 함강리

인제향교 석전대제



인제향교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9월 24일 15시~17시

조 사 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제 보 자:

(2) 마을유래와 개관

인제읍은 군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현내면(縣內面)이라고 하여 하도리(下道里), 상도리(上道里), 덕산(德山), 덕적리(德積里), 청계동(?溪洞), 고사동(古沙洞), 7개리를 관할하였는데 1906년에 군내면(郡內面)으로 고치고 상도(上道), 동(東), 남(南), 북(北), 합강(合江), 덕산(德山), 니(泥), 가아(加兒), 덕적(德積), 고사(古沙), 차평(車坪)의 11개 리로 개편(改編)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行政區域) 통폐합에 따라 동면(東面)의 원대(院垔), 하추동(下楸洞), 이탄(耳呑)을 편입(編入)하여 귀둔(貴屯), 하추(下楸), 원대(院垔), 가리산(加里山), 고사(古沙), 남북(南北), 상동(上洞), 합강(合江), 가아(加兒), 덕산(德山), 덕적(德積)의 11개 리로 개편하고 1916년 인제읍(麟蹄邑)으로 고쳤다. 1948년 38°선이 생기면서 38°선 이북 10개 리가 共產 治下로 넘어가고 38°선 이남 원대리는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 에 다시 편입되어 11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거하여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행정리(行政리)는 19개리다.

인제읍 상동리에는 인제군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인제향교가 있다.

필자가 인제향교에 찾았을 때 향교재단 직원들이 인제향교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제향교재단에서 제공

한 인제향교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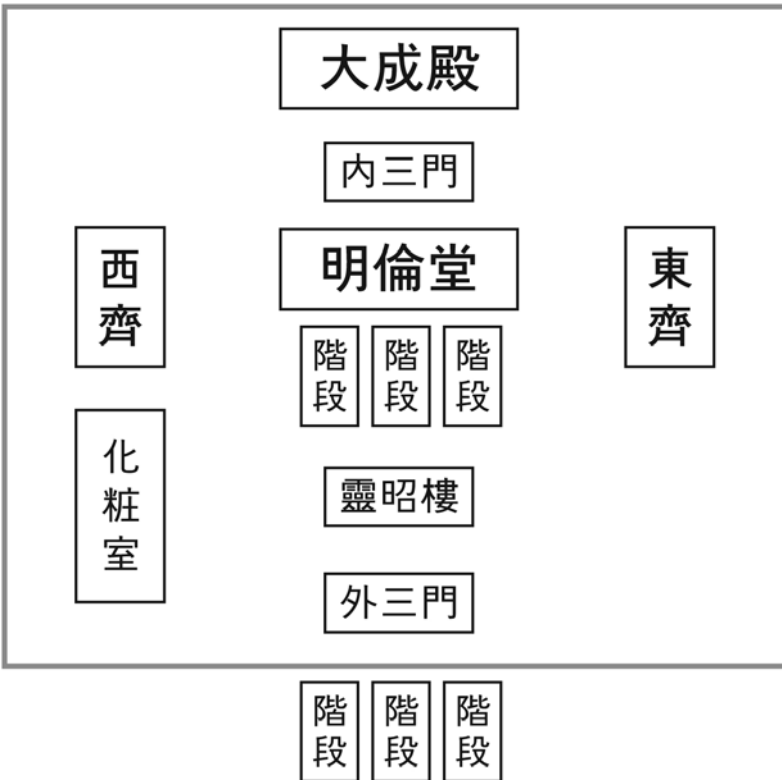
- 인제향교(麟蹄鄉校)의 창건연대(創建年代)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80년 이전(以前)에 창건(創建)한 것으로 보여지며, 광해군(光海君)2년 경술(庚戌)에 현감(縣監) 이빙이 중건(重建)하고, 광해군(光海君)7년(年) 을묘(乙卯)에 현감(縣監) 구인기(具仁基)가 군(郡)의 서쪽으로 이건(移建)하였으며, 순조 4년(年) 갑자(甲子)에는 현감(縣監) 홍혁(洪赫)이 군(郡)의 동쪽으로 이건(移建)하였다. 또 소화(昭和)갑술(甲戌)(1934)에는 수해(水害)로 인하여 군수(郡守) 정하형(鄭河亨)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었다.
- 인제향교는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영소루, 담장 등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매년 춘추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대성전 단내에는 오성위(五聖位)와 송조2현, 우리나라 18현 등 총 25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인제향교는 건축 양식부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향교 건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안쪽을 담장으로 막고 내삼문을 달아 제사와 교육 공간을 구분하였다. 내삼문 밖에 대성전과 같은 방향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를 두었다. 명륜당 앞에 계단을 만들고 명륜당보다 낮은 곳에 영소루를 배치하고 누 아래에 삼문을 두었다.

국가로부터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여 지금은 봄·가을에 석전을 봉행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만 실시한다. 대대로 내려오던 기문류(記文類)가 있었으나 6·25전쟁 때 불에 타 없어져, 전해지는 문헌이나 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 인제향교 배치도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28-2
- 면적 : 1,597㎡
- 향교건물 배치도



◎ 麟蹄鄉校 文廟位牌 位次圖

- 大成殿 位牌 位次圖 大聖至聖文宣王

文昌侯 崔致遠	邲 成 兗 延 國 國 國 國 宗 宗 復 復 聖 聖 聖 聖 公 公 公 公 曾 曾 顏 顏 子 子 子 子	弘儒侯 薛 聰
文忠公 鄭夢周		文成公 安 珦
文獻公 鄭汝昌		文敬公 金宏弼
文元公 李彦迪		文正公 趙光祖
文正公 金麟厚		文純公 李 滉
文簡公 成 渾		文成公 李 珣
文烈公 趙 憲	鄒 推 汽 吉 國 國 國 國 亞 亞 述 述 聖 聖 聖 聖 公 公 公 公 盟 盟 子 子 子 子 思 思	文元公 金長生
文正公 宋時烈		文敬公 金 集
文純公 朴世采		文正公 宋浚吉
徽國公 朱 憲		豫國公 程 顥

西從享位

東從享位

2) 마을제사의 내용

석전대제(釋奠大祭)란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文廟)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석전’이라 함은 옛날 중국에서 자연이나 조상들의 묘에 올리던 제사와 학

교에서 앞선 성인들과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하여 올리던 제사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학교에서 행하는 제사만을 석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석전대제 모습

학교에서는 봄·가을·겨울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스승들 중 훌륭한 분께 석전을 올렸는데 시대에 따라 모시는 분이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부분 공자를 으뜸으로 받들었다. 이런 석전을 올리는 사당을 마련하여 그의 학문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석전대제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공자를 중심으로 공자의 제자와 우리나라 명현(名賢) 16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성균관 대성전과 전국 234개 향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석전대제는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곁들여지는 종합예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절차를 보면 영신례, 전폐례, 초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철변두, 송신례, 망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연주되는 음악은 ‘문묘제례악’이라 하는데, 문묘제례악은 공자와 그의 제자인 안자, 증자, 맹자 등 유교 성인과 우리나라의 설총, 최치원 등 명현 16인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서 제사할 때 쓰이는 음악이다.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문묘제례악은 현재 전해지는 아악(중국계 정악) 중 유일한 것으로, 세종 때 박연(朴堧)이 옛 주(周)나라 제도에 가깝게 아악을 정비하여 새로 만든 것이다.

인제향교에서는

오성위 : 공자(대성지성문선왕), 안자(연국복성공), 증자(성국종성공), 자사(기국술성공), 맹자(추국아성공)

동방18현 : 설총, 최치원, 정몽주, 안향, 정여창, 김굉필, 이언적, 조광조, 김인후, 이황, 성혼, 이이, 조현, 김장생, 송시열, 김집, 박세채, 송준길

송조6현 :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 중 정호, 주희 2분 등 총 25위의 위패를 모셔놓고 춘, 추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다.

(1)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한편 춘기와 추기석전은 원래 음력 2월과 8월 초 정일에 제사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5월 11일 공자 유교일과 9월 28일 탄강일로 날짜를 변경, 각각 봉행되고 있다.

특히 석전대제 봉행일을 놓고 전통에 따라 음력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丁日)



석전대제에 참여한 제관들 사진

에 올려야 한다는 유럽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유교권 나라들이 공자의 탄강일을 모시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봉행일을 양력 날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였는데, 전국의 234개의 향교의 대부분이 양력 날짜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여 인제향교의 경우도 양력에 날짜에 제를 올린다.

2010년의 경우 춘기 석전대제는 5월 11일 오전 10시, 추기 석전대제는 9월 28일 오전 10시 에 치러졌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사에 참여해서 제를 올리고 주관하는 석전대제의 제관의 종류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초헌관 : 대제를 드릴 때 5성(유교 5명의 성인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께 술을 세 번 드리는데 그 중 첫 번째로 드리는 제관이다. 보통 지방의 수령이 드리고 성균관의 경우 왕이나 왕세자, 정승 등이 초헌관을 맡았다.
- ◎ 아헌관 : 두 번째로 술을 드리는 제관이다.
- ◎ 종헌관 : 세 번째로 술을 드리는 제관으로 보통 전교가 종헌관을 한다.
- ◎ 분헌관 : 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이외의 분들에게 술을 드리는 제관이다.
- ◎ 집례 : 홀기(행사순서)를 불러서 행사를 진행하는 제관이다.
- ◎ 대축 : 축문(기도문)을 읽는 제관이다.
- ◎ 진설 : 제수, 즉 제사음식을 배치하는 제관이다.
- ◎ 봉향 : 향을 드는 제관으로 봉향과 함께 입장한다.
- ◎ 봉로 : 향로를 드는 제관으로 봉향과 함께 입장한다.
- ◎ 사준 : 술잔에 술을 따르는 제관으로 술을 따른 후 봉작에게 넘겨준다.
- ◎ 봉작 : 술잔을 사준에게 받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에게 드리는 제관이다.
- ◎ 전작 : 초, 아, 종헌관에게 술을 받아서 5성 신위에 술을 놓는 제관이다.
- ◎ 알자 : 헌관을 도와 길을 인도하는 제관으로 도우미라고 할 수 있다.
- ◎ 찬인 : 축문을 읽는 대축을 인도하는 제관이다.
- ◎ 묘사 : 위패를 담당하는 제관이다.

다음도표는 2010년 5월 11일에 있었던 춘기석전대제의 제관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孔紀2560(2010)年 春期釋奠 薦望(5. 11)

구 분	성 명	직
초헌관	이재호	부군수
아헌관	이공규	인제향교전교
종헌관	한의동	인제군의회의장
분헌관(동종향위)	김창연	유도회장
분헌관(서종향위)	이용만	청년회장
집 레	이만석	의전장의
도집례	이병준	교화장의
대 축	김종규	연락장의
알 자	심인용	청년회원
봉 향	김영진	청년회원
봉 로	김한기	"
봉 작	김영진	"
전 작	김한기	"
분헌례 동종향위	정장원	"
	유중근	"
분헌례 서종향위	이규성	"
	유지관	"
사준	김종진	"
	이재진	"
사세	마순녀	여성회원
	박금녀	"
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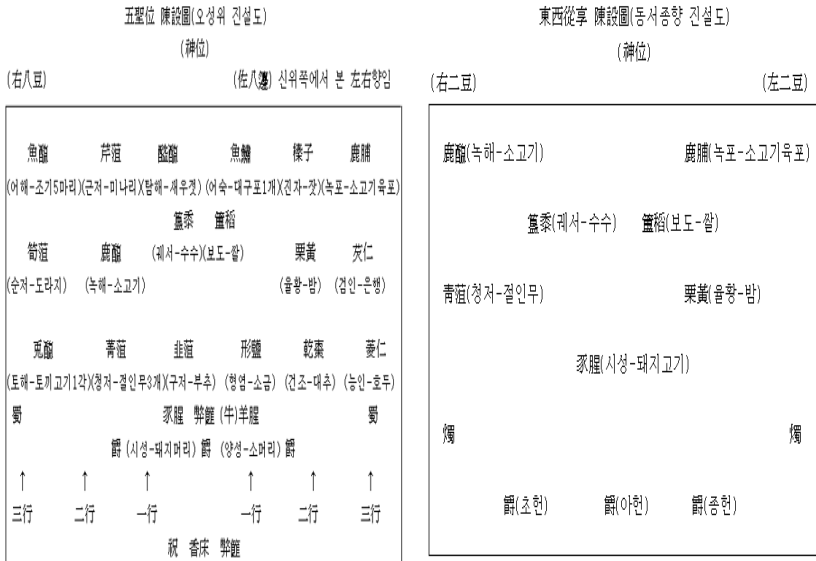
③ 제비와 제물

2010년 춘기석전대제 진설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쌀10kg, 기장, 수수, 차조 각 1말
- 은행, 밤, 대추, 호두, 잣 각 2되

- 포 7개
- 조기 7마리, 무우 13개, 미나리 3단, 도라지 2근, 부추 2단, 양초 대10개
- 식혜 2병, 약주 3병
- 청실홍실 1타래 - 흰양말 10켤래, 흰장갑 10개, 흰수건 작은것(10개)
- 소머리(황소) 1개, 돼지머리 1개, 소고기 1근씩 7개, 소고기 반근씩 7개, 소간(천엽) 1근씩 7개, 돼지고기 1근씩 7개

제물 진설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려진 제물을 보면 푸른 채소와 생고기, 생과일, 말린 고기, 생선, 밤, 대추 등이다. 석전(釋奠)을 석채(釋菜)라고도 하는데 이는 ‘채(菜)를 놓고 폐(幣)를 올린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채소와 고기는 다 익히지 않은 것으로 쓰고 있다. 이는 제사는 신성한 것이 정성이라서 익히지 않은 음식을 올린다고 한다. 그리고 제례가 끝난 후 음식을 참여자들에게 배분하는데 익힌 것은 상하기 쉬우니 날것으로 하여 고기가 귀했던 시절 다 같이 나눠먹

자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축전대제의 제비는 향교의 운영비에서 충당하게 된다. 다음 도표는 인제 향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 춘기석전대제의 제비 지출 내용을 정리한 도표이다.

내역			금액	상호	비고
대제비에산액					2,500,000
제물	우두	170,000	598,000	인제축협	
	돈두	16,000			
	양지	274,500			
	우간	20,000			
	목살	117,500			
제물	곡류	170,500	457,900	대성상회	
	과일	74,000			
	나물	51,500			
	제주	13,000			
	조기,포	59,000			
	기타	89,900			
	소주	34,800	34,800		
대제진설 준비식대		166,000	166,000	봉평막국수	
점심준비		1,200,000	1,200,000	이모부페	
합계			2,456,700		잔액 43,300

(3) 석전대제의 진행

① 제의절차

향교 대성전에 흠을 든 제관들이 들어오면 경건하게 제례가 시작된다. 제

례절차는 제례의 시작을 알리는 창홀이 있고, 행사준비를 하고 폐백과 축문을 읽는 전폐례를 마친 후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요례 순서로 진행이 된다.

초헌례는 초헌관이 첫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고, 아헌례와 종헌례 역시 아헌관과 종헌관이 생전의 성현들께 권주를 하듯이 술잔을 더 올리는 의식이다.

음복례는 초헌관이 음복 잔을 마시는 의식이다. 망요례는 축문과 폐백을 태워서 석전대제가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제례절차이다. 제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제향교 석전홀기(麟蹄鄉校 釋奠笏記)

掌饌者入實饌具畢

장찬자입실찬구필

(장찬자가 들어가 제찬을 갖추어 진설을 마치면)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 點視陳設訖還出

알자인초헌관승자동계 점시진설홀환출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진설한 찬품들을 점검하여 둘러 보고 나온다)

執禮及廟司先就階間拜位 北向西上 四拜訖 盥手位 盥手就位

집례급묘사선취계간배위 북향서상 사배홀 관수위 관수취위

(집례와 묘사는 먼저 계간 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향해 4배하고 마치면 손을 씻은 다음 각기 위치로 나아간다)

謁者贊引俱就階間拜位 四拜訖 盥手位 盥手就位

알자찬인구취계간배위 사배홀 관수위 관수취위

(알자와 찬인은 다 같이 계간 배위로 나아가 4배하고 제자리에 나아간다)

◎ 唱笏(창홀)

贊引引大祝及諸執事入階間拜位 北向西上立
 찬인인대축급제집사입계간배위 북향서상립
 (찬인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계간 배위로 나아가 서쪽을 상위로 북향하여 서시오)

四拜 大祝以下皆四拜
 사배 대축이하개사배
 (4배하시오, 대축이하 다 4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大祝及諸執事詣盥洗位 盥手 各就位
 대축급제집사에관세위 관수 각취위
 (대축과 여러 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각 제자리에 나가시오)

廟司及奉香奉爐升 開扉 開櫝 啓蓋
 묘사급봉향봉노승 개비 개독 계개
 (묘사와 봉향 봉로는 오르시오, 문을 열고 주독을 열고 제기의 뚜껑을 열고 복지를 거두시오)

奉香奉爐降復位
 봉향봉노강복위
 (봉향과 봉로는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贊引引大祝詣傳香門前 奉祝板香궤引詣香所
 찬인인대축예전향문전 봉축관궤인예향소
 (찬인은 대축을 인도하여 전향문에 나아가 축판과 향궤를 받들고 향소로 나가시오)
 降復位
 강복위
 (제자리로 가시오)

謁者贊引各引獻官入就位
 알자찬인각인헌관입취위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모시어 제자리로 나가도록 하시오)

謁者請行事 【謁者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

알자청행사 【알자진초헌관지좌백유사근구청행사】

(알자는 행사를 청하십시오)

四拜 獻官以下儒生在位者皆四拜 【一般鞠躬】

사배 헌관이하유생재위자개사배 【일반국궁】

(4배하십시오. 헌관이하 참가자 전원은 4배하십시오)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 行奠幣禮(행진폐례)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楷笏 盥手 帨手 執笏】

알자인초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하십시오)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立

인에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 북향립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大祝及奉香奉爐升

대축급봉향봉로승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三上香

삼상향

(세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이폐비수초헌관

(대축은 폐비를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大祝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초헌관집폐헌폐이폐수대축 대축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
에 올리시오)

次詣復聖公神位前
차예복성공신위전
(다음은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三上香
삼상향
(세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이폐비수초헌관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초헌관집폐헌폐이폐수대축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宗聖公神位前
차예종성공신위전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三上香
삼상향
(세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이폐비수초헌관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초헌관집폐헌폐이폐수대축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전우신위전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
 차예술성공신위전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三上香
 삼상향
 (세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이폐비수초헌관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授大祝
 초헌관집폐헌폐수대축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전우신위전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
 차예아성공신위전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

三上香
삼상향
(세번 향을 피우시오)

大祝以幣篚授初獻官
대축이폐비수초헌관
(대축은 폐비를 가져다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
초헌관집폐헌페이폐수대축
(초헌관은 폐비를 받아 헌폐하고 대축에게 주시오)

大祝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대축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대축은 폐비를 신위 앞에 올리시오)

初獻官以下降復位
초헌관이하강복위
(초헌관이하 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初獻禮(행초헌례)

謁者引初獻官詣大成至聖文宣王樽所
알자인초헌관에대성지성문선왕준소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대성지성문선왕 준소에 나아간 다음)

引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立
인에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 북향립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해 서시오)

奉爵奠爵升
봉작전작승
(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司樽舉纂酌醴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예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初獻官
 봉작이작수초헌관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초헌관이 잔을 올리는 사진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초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小退北向】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소퇴북향】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大祝升
 대축승
 (대축은 오르시오)

大祝詣獻官之左東向跪
 대축예헌관지좌동향궐
 (대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동향해 무릎 꿇고 앉으시오)

讀祝文 讀祝畢
 독축문 독축필
 (축문은 읽으시오)

大祝降復位
 대축강복위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謁者引初獻官詣復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搯笏〕
알자인초헌관에복성공신위전 〔헌관케이진홀〕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醴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예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初獻官
봉작이작수초헌관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초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宗聖公神位前
차예중성공신위전
(다음은 중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醴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예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初獻官
봉작이작수초헌관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초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술성공신위전 【헌관궤이진홀】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醴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예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初獻官
 봉작이작수초헌관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초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
 차에아성공신위전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醴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예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예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初獻官
 봉작이작수초헌관

(봉작은 작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초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초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謁者引初獻官降復位

알자인초헌관강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亞獻禮(행아헌례)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 【搢笏 盥手 帨手 執笏】

알자인아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하시오)

謁者引亞獻官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立 【獻官跪而瑻笏】

알자인아헌관예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 북향립 【헌관궤이진홀】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해 서시오)

司樽舉罍酌盎齊以爵授奉爵

시준거며작앙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앙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봉작이작수아헌관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復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복성공신위전 【헌관퀘이진홀】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盞齊以爵授奉爵

시준거떡작양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봉작이작수아헌관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

오)



아헌관이 잔을 올리는 사진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宗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종성공신위전 【헌관퀘이진홀】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盞齊以爵授奉爵

시준거떡작양제이작수봉작

(사준은 먹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봉작이작수아헌관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술성공신위전 【헌관괘이진홀】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冪酌盞齊以爵授奉爵

사준거먹작양제이작수봉작

(사준은 먹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봉작이작수아헌관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아성공신위전 【헌관케이진홀】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盞齊以爵授奉爵
 시준거떡작양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떡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亞獻官
 봉작이작수아헌관
 (봉작은 작을 아헌관에게 주시오)

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아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謁者引亞獻官降復位
 알자인아헌관강복위
 (알자는 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終獻禮(행종헌례)

謁者引終獻官詣盥洗位 【搢笏 盥手 帨手 執笏】
 알자인종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종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하시오)

謁者引終獻官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 北向立 【獻官跪而搢笏】
 알자인종헌관예대성지성문선왕신위전 북향립 【헌관케이진홀】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대성지성문선왕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해 서시오)

司樽舉纂酌盞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양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終獻官
 봉작이작수중헌관
 (봉작은 작을 중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중헌관 한의동 의장이 잔을 올리는 사진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復聖公神位前 【獻官跪而措笏】
 차예복성공신위전 【헌관괘이진홀】
 (복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纂酌盞齊以爵授奉爵
 시준거먹작양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終獻官
 봉작이작수중헌관
 (봉작은 작을 중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홍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宗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종성공신위전 【헌관케이진홀】

(다음은 종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罍酌盎齊以爵授奉爵

시준거며작양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終獻官

봉작이작수종헌관

(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종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종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홍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述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술성공신위전 【헌관케이진홀】

(다음은 술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罍酌盎齊以爵授奉爵

시준거며작양제이작수봉작

(시준은 먹을 들고 양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終獻官

봉작이작수종헌관

(봉작은 작을 종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次詣亞聖公神位前 【獻官跪而搢笏】
차예아성공신위전 【헌관케이진홀】
(다음은 아성공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司樽舉冪酌盞齊以爵授奉爵
사준거떡작앙제이작수봉작
(사준은 떡을 들고 앙제를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終獻官
봉작이작수중헌관
(봉작은 작을 중헌관에게 주시오)

終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중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중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謁者引終獻官 降復位
알자인중헌관강복위
(알자는 중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分獻禮(행분헌례)

謁者贊引各引分獻官詣盥洗位 【搯笏 盥手 幌手 執笏】

알자찬인각인분헌관예관세위 【진홀 관수 세수 집홀】

(분헌관은 각각 알자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세수하시오)

引詣從享位前 【獻官跪而搯笏】

인에종향위전 【헌관케이진홀】

(종향위전에 나아가시오)

各奉香奉爐升

각봉향봉노승

(각 봉향과 봉로는 오르시오)

三上香

삼상향

(세번 향을 피우시오)

各奉爵奠爵升

각봉작전작승

(각 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各司樽舉羃酌酒以爵授奉爵

각사준거먹작주이작수봉작

(각 사준은 먹을 들고 술을 따라 술잔을 봉작에게 주시오)

奉爵以爵授分獻官

봉작이작수분헌관

(봉작은 작을 분헌관에게 주시오)

分獻官執爵獻爵以爵授奠爵

분헌관집작헌작이작수전작

(분헌관은 작을 받아 헌작하고 전작에게 주시오)

奠爵奠于神位前 【獻官執笏俯伏興平身】

전작전우신위전 【헌관집홀부복흥평신】

(전작은 작을 신위 앞에 올리시오)

謁者贊引各引分獻官各奉香奉爐奉爵奠爵降復位

알자찬인각인분헌관각봉향봉로봉작전작강복위

(알자와 찬인은 각각 분헌관을 모시고 제자리로 가고 각 봉향 · 봉로 · 봉작 · 전작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行飲福禮(행음복례)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跪

알자인초헌관예음복위 서향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大祝詣飲福位獻官之左 北向跪

대축예음복위헌관지좌 북향궤

(대축은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헌관의 좌측에서 북향하여 꿇어 앉으시오)

奠爵升

전작승

(전작은 오르시오)

奠爵以爵福酒授大祝 大祝授初獻官

전작이작복주수대축 대축수초헌관

(전작은 음복잔을 대축에게 주시오, 대축은 음복잔을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初獻官授爵飲訖 大祝受虛爵復於坫

초헌관수작음홀 대축수허작복어짐

(초헌관은 잔을 받아 다 마시시오, 대축은 빈 잔을 받아 잔 놓는 자리에 놓으시오)

大祝以俎授初獻官 初獻官受俎以授尊爵

대축이조수초헌관 초헌관수조이수존작

(대축은 도마의 고기를 초헌관에게 드리시오, 초헌관은 도마 고기를 전작에게 주시오)

尊爵受俎降自東階出
 존작수조강자동계출
 (전작은 도마의 고기를 받아 동계로 내려가시오)

引降復位 四拜 獻官四拜
 인강복위 사배 헌관사배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4배하시오, 헌관은 4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徹邊豆 大祝升徹邊豆 【各一少移】
 철변두 대축승철변두 【각일소이】
 (대축은 들어와 변과 두를 거두시오)

四拜 獻官以下儒生在位者皆四拜 【一般鞠躬】
 사배 헌관이하유생재위자개사배 【일반국궁】
 (4배하시오, 헌관이하 참가자 전원은 4배하시오)

【鞠躬 拜興 拜興 拜興 拜興 平身】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 行望燎禮(행망요례)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北向立 【執禮師贊者詣望燎位西向立】
 알자인초헌관예망요위 북향립 【집례사찬자예망요위서향립】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로 망요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시오)

大祝以篚取祝板及幣降自西階置於坎
 대축이비취축판급폐강자서계치어감
 (대축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축판과 폐백을 취하여 서계로 내려와 구덩이앞에
 놓으시오)

可燎置土半坎

가료치토반감
(불사르고 흙으로 반쯤 메우시오)

謁者引初獻官復位
알자인초헌관복위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大祝復位
대 축 복 위



초헌관이 축을 태우는 사진

(대축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

【알자진초헌관지좌백예필】

謁者贊引各引獻官出
알자찬인각인헌관출
(알자와 찬인은 각각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奉香奉爐升 閉櫝閉扉
봉향봉로승 폐독폐비
(봉향과 봉로는 올라가서 주독을 덮고 문을 닫으시오)

贊引引大祝及諸執事俱復階間拜位 四拜
찬인인대축급제집사구복계간배위 사배
(찬인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 다같이 4배하시오)

【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국궁배흥배흥배흥배흥평신】

贊引引大祝及諸執事以次出
찬인인대축급제집사이차출

(찬인은 대축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나가시오)

執禮復階間拜位 四拜

집례복계간배위 사배

(집례는 배위에 나아가 4배하시오)

執禮以次出

집례이차출

(집례는 나가시오)

② 축문

維

孔夫子誕降二千五百六十一年

歲次庚寅五月十一日

麟蹄郡守權限代行李在鎬

敢昭告于

大成至聖文宣王 伏以維王

道冠百代 萬世宗師

茲值忌辰 精禋是宜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

配 先師

兗國復聖公 邲國宗聖公

沂國述聖公 鄒國亞聖公

從 宋朝二賢 我國十八賢 尙

饗

유

공부자탄강이천오백육십일 년

세차경인오월십일일

인제군수권한대행 이 재 호

감소고우

대성지성문선왕 복이유왕

도관백대 만세중사

자치기신 정인시의 근이

생폐예제 자성서품 식진명천
배 선사
연국복성공 성국종성공
기국술성공 추국아성공
종 송조이현 아국십팔현 상
향



(번역)

공부자 단강 2561년 경인년 5월 11일에
인제군수 권한대행 이재호는
감히 밝게 대성지성 문성왕께 고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도는 모든 시대보다 높고, 만세의 스승이시라
기일을 맞이하여 정결히 제사를 올림이 옳고 마땅합니다.
삼가 희생과 폐백 담근 지 하루되는 술과 기장 피 쌀과
여러 제수들을 공경히 별려 받게 드리웁고
선사 연국의 복성공 안씨, 선사 성국의 종성공 증씨
선사 기국의 술성공 공씨, 선사 추국의 아성공 맹씨를
배향하고 송조의 이현과 우리나라의 십팔현을 배향하오니
가상히 여기시고 흠향 하옵소서.

(4) 영험담

석전대제는 마을의 동제 성격이 아닌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을 모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를 올리면서 개인의 소원성취를 바라거나 제사와 관련된 영험담은 특별히 없었다.

3) 인제향교 석전대제의 특징

원래 향교란 지방의 학교를 말한다. 중국의 주나라 때 향(鄉)은 지방의 행정구역의 명칭이고, 교(校)는 학교의 의미로서 지방의 학교라는 뜻으로 향교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인종 때 처음으로 향교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면서 교육기능과 사회교화 기능을 없애 버리고 문묘관리 기능만 유지케 했다. 그러나 유림들이 힘을 모아 교육기능과 유교교화기능을 회복하였다.

인제향교는 오늘날 교육기능은 많이 쇠퇴했지만 석전대제와 합강제 등을 통해서 제향기능과 우리나라 전통문화행사의 명맥을 잇는 기능을 특특히 하고 있다.

첫 번째로 공부자탄생과 기일에 맞춰서 석전대제를 지낸다. 이 날에는 제사 외에도 각종 표창 등의 기념행사와 기로연 등이 열린다.

둘째로 '삭망 분향례'라고 해서 향교의 유림들이 모여 경건하게 드리는 조출한 기념행사를 한다. 공자님을 위시한 선현들께 4배 하면서 그 분들의 덕과 가르침을 추모하며 기억하는 행사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관의 이·취임 시, 향교의 임원(전교 등)이 교체될 때 혹은 건물을 수리, 복원, 중건 할 때 이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행사를 수행한다.

석전대제는 전국의 많은 향교에서 공부자의 탄강일과 기일에 맞춰서 치러지는 전통 유교 제례의식이다. 석전대제는 국가적인 행사로 정숙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음악이 연주되고 춤이 곁들여지는 종합 예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의식을 통해 조상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하는 마을을 길렀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게 되어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문화제이다.

8. 인제읍 고사리마을

고사리 산신제



고사리 산신당 옆 300년 된 소나무. 인제군에서 보호수로 지정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9월 4일 13:00~17:00

2010년 10월 16일 04:30~06:00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신당. 지당

제보자: 정교운(남,62)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이장.

이화섭(남,58)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이태성(남,64)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조종욱(여,63)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 마을유래와 개관

고사리는 본래 동면 지역으로서 고새울, 또는 고사촌(古沙村), 고사동(古沙洞)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합강리(合江里)와 하추리(下楸里)일부를 병합하여 고사리(古沙里)라 하였다. 주민들은 고사리 마을대신 ‘텃말’이라고도 부른다.

이곳 고사리 마을에는 6.25 전쟁때 치열했던 한석산 전투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다. 고경숙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한석산 전적비 寒石山 戰跡碑’ 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한석산 전적비 寒石山 戰跡碑’- 고경숙

내린천 계곡을 끼고



매봉·한석산 전적비

세월을 거슬러 오르다
 매 대신 길을 인도하는
 까마귀 한 마리 비문 끄트머리에 앉아
 뜨끔거리는 옆구리를 찌고
 한 代를 훑씬 지나왔을
 아픈 바람소리를 삼킨 언덕
 차가운 땅 속을 지나는 동안
 강요되지 않은 삶을 꿈꾸며
 강은 하류로 흐를수록 고요해지다
 소나기가 그친 뒤
 산간의 날씨가 평온을 되찾을 때쯤
 허기진 春情을 채우고저
 감자밭을 헤매다 만난 얼굴
 살아남았다는 것만도 충분히 속죄할 이유가 되기에
 한때는
 누군가의 남자였을 그들을 위해
 제비꽃 한 포기 옮겨 심어두고
 가장 정숙하게 입맞춤하다
 ‘매봉 한석산 전적비’

매봉 한석산 전적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 중 하나였던 매봉·한석산전투를 기리고, 순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전적비이다.

한석산 전적비와 관련해서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한석산 전적비와 관련된 글이 있어서 적어본다.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한석산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동남의 약 4km에 위치한 1119m 높이의 산이다. 태백산맥 북부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우뚝 솟아 있어, 지리적으로는 38도선 바로 이북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다.

6·25전쟁 전 북한군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했다. 이 한석산의 중요한 봉우리 하나가 매봉(鷹峯)이다. 당시 이곳에는 인민군 12사단의 1개 연대가 진지를 방어하고 있었다.

6·25전쟁 당시인 1951년 5월 초 이 지역에 대한 반격 지시가 제3군단으로부터 제9사단에 내려졌다. 곧 이어 30연대장에게 공격 명령이 하달됐다. 이 일대를 장악하면 교통요로를 차단하고, 적을 약 20km 후퇴하게 할 수 있었다. 30연대는 사단 포병 대대의 직접 지원을 받으면서 5월 7일 아침 7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이후 나흘 동안 주야로 혈전이 벌어졌다. 이곳의 격전은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전투 장면을 무색케 한다. 마침내 적의 연대지휘소가 있는 한석산을 탈환한 것은 5월 10일 17시께.

결과는 적군 사상 895명, 포로 42명 외에 수많은 무기 노획이었다. 30연대 유공 장병 100여 명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되고, 참전 사병들은 모두 일 계급 특진했다. 그러나 국군도 72명이 전사하고 200여 명이 부상했다. 30연대 생존 장병들은 55년 전 그날 한석산의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휘날리며 전우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던 감격적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의 30연대장(손희선 예비역 장군)은 귀중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부하 장병들을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명복을 빌고자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한석산 참전전우회가 결성되어 1990년 육군의 지원으로 격전지 인제읍 고사리에 전적비를 세웠고, 매년 한석산을 점령한 5월 10일에 전승기념 및 전몰장병 추모식을 행한다. 노장(老將)이 강조하는 6·25전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전쟁으로 인한 500만 동포의 희생과 현재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1000만 이산가족의 비극을 잊지 말라. 둘째, 동족상잔을 야기한 것은 반드시 뉘우쳐야 할 민족적 과오다. 셋째, 분단 속에서도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 발전을 이룩한 점을 잊지 말라.(손희선 장군의 <회고>)기적 같은 번영을 이룬 오늘의 대한민국. 한석산 내린천에서 급류타기(Rafting)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들 모습에 노장의 가슴이 뿌듯하다.

옛 훈련병들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했는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인제가면 또 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룩한 번영인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분단의 6·25를 통일의 6·25로 바꾸자!”고 노장은 거듭 강조한다.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가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전몰장병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²³⁾

고사리는 6.25 전쟁과 한석산전투와 관련된 지명유래가 많다. 이태성 제보자에 따르면 래프팅 급류 코스 중에서도 유명한 피아시계곡 역시 6.25전쟁 당시 계곡에서 피가 하도 많이 흘러나와서 피아시계곡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고사리 마을에는 산신에게 올리는 ‘산신당’과 땅의 신에게 올리는 ‘지당’이 있다. 일 년에 두 번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산신당과 지당에서 제사를 올린다.

산신당은 다래식당 옆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데 길옆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무당들이 자주 찾아와 정성을 드리기도 한다.

산신당 옆쪽 산으로 50m 올라가면 지당이 있다. 마을제당의 이름은 지명을 따서 고사리 산신당과 지당이라고 한다.



산신당 옆에서 이화섭 제보자

²³⁾ <http://blog.daum.net/vietvetpusan/10900807>

특히 산신당 옆에는 인제군에서 보호수(保護樹)로 지정한 300년 된 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는 높이가 18m, 둘레가 3.4m로 아주 웅장하고 장관이다.



고사리 산신당 내부

산신당과 지당은 모두 같은 형태로 지어졌다. 당집은 안에 시멘트와 돌을 이용해서 단을 만들었고, 나무로 틀을 짠 이후에, 좌우와 지붕은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막았다. 당집 안에는 대각선으로 고정된 나무에 마을제사를 지내고 걸어놓은 예단으로 실타래와 한지가 있었다. 양초는 항상 당 안에 놓았다가 제사에 사용한다.

가끔은 다른 지역에서 무당들이 찾아와 오방색의 천을 걸어 두고 간 적도 있다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사는 일 년에 두 번 지내는 데 날짜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오전 5시 30분경이다. 옛날에는 새벽 4시경에 올라가서 준비를 하였다. 노인분들이 산신당 옆 신목에서 밥을 짓고, 미리 담가 두었던 제주를 꺼내서 제물을 준비했다.



제물을 준비하는 변상순, 이태성 제보자

지금은 도가에서 제물 손질이나 준비를 다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올라가지는 않는다.

2010년 10월 16일 오전 4시 쯤 고향집에서 출발 해서 4시 30분에 이장 댁에 도착했다. 제관을 주로 하는 이태성 제보자에게 연락을 한 후 5시에 이장 댁에서 출발해서 10분경에 산신당 앞에 도착했다. 산신당에는 고사리 이장, 제관 이태성 제보자, 산신당 옆의 다래식당 주인 이화섭 제보자, 그리고 필자까지 4명이 올랐다. 제물 준비는 도가를 맡은 이장댁에서 산신당과 지당에서 지낼 제물을 각기 2개씩 준비했기 때문에 서낭당에 도착해서는 진설만 하면 됐다.



제사를 준비하는 이태성, 이화섭 제보자

제사는 5시 20분에 시작됐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지당에 올라 다시 제를 지냈다. 지당에서의 제사까지 끝나니 대략 6시 10분이 되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도가는 마을제사가 있기 10일 전에 선정했다. 미리 도가를 선정하는 이유는 제주를 담그고 제사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이 제관이나 도가를 서로 안하려고 해서 이장과 반장이 제사준비를 도맡아한다.



올해 도가인 변상순 제보자(이장부인)

도가를 10년 이상 맡아 했던 조종욱 제보자는 도가선정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에는 내 몸에 부정이 없어야 되고, 상주나 상당한 사람은 도가에 못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나서 금줄을 치고, 부부관계는 3일 전부터 절대 금지라구. 왜냐면 도가집 두 내외가 다 깨끗하게 해야 해서 절대 금지야.”

2010년 10월 16일(음력 9월 9일) 마을제사에는 정교운 이장이 초헌관, 축관은 이태성씨가 되어 제사를 주관했다.

③ 제비와 제물

2010년 10월 16일(음력 9월 9일) 마을제사에는 마을운영비 10만원으로 제물을 구입했다. 필요할 때는 마을 주민들끼리 조금씩 걷기도 하지만 올해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걷지 않고 마을 운영비로만 구입했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쓴다. 고사리에는 산신당과 지당 두 곳에서 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돼지머리는 2개를 구입했다.

돼지머리는 이장이 흥천시 내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돼지머리를 구입할 때는 암수 구별 없이 사용한다. 다른 지역 마을제사에는 통돼지를 잡을 때도 암돼지는 부정 탄다고 해서 수돼지만 잡는데 고사리 마을에서는 특별히 가리는 것은 없다.



서낭당 제물 진설 장면

때는 새벽에 도가에서 짓는다. 옛날에는 깨끗한 쌀을 가지고 가서 산신당 옆에서 밥을 지었지만 지금은 도가에서 다 지어 올라간다. 메가 다 되면

2개의 냄비에 나눠서 담는다.

코다리(북어)는 10마리를 구입해서 5마리씩 두 그릇에 나눠 담는다.

제주는 소주를 두 병 사다가 쓴다. 따라서 제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돼지 머리, 메, 코다리(북어), 양초 2개, 향, 정화수 이다.

④ 제수준비

제물을 준비할 때는 항상 2개씩 준비한다. 일부 마을에서는 서낭당에서 썼던 제물을 다시 산신제를 할 때 쓰기도 하지만 고사리 마을에서는 썼던 제물을 사용하면 부정 탄다고 해서 처음부터 2개씩 준비한다.

⑤ 금기방법

고사리 마을에는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도가의 안주인만이 제물 준비 할 때 정도만 참여한다.

금줄은 제사 몇 일전에 도가집에 친다. 금줄을 치는 이유는 부정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도가집

역시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데 몇 일전부터 몸가짐과 행동 모두 조심해야 한다. 초상집에 가서도 안 되고, 부부관계도 해서 안 된다.



축관을 담당하는 이태성 제보자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물은 제의 전날 흥천이나 인제 시내에 가서 구입한다. 제물을 구입한 이후에는 산신당과 지당에 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처음 조사 때는 다래식당 옆의 당을 가리켜서 서낭당이라고 제보했다. 서낭당에서 제사를 끝나면 바로 옆 산에 제당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서 제사를 한 번 더 한다고 했다.



고사리 정교운 이장님

그런데 2차 조사였던 10월 19일(음력 9월 9일) 산신제 당일에는 다래식당 옆의 제당은 산신제를 올리는 산신당이고, 옆 산의 제당은 '땅의 신'에게 올리는 지당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고사리마을에 거주했던 사람들과 새로 이사 온 주민들 사이에서 마을제사의 명칭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듯 했다.

제사 전날 제당 청소가 끝나면 도가집에서는 새벽 일찍 메밥을 짓고, 제물들을 손질한다. 제물은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로 보관한다. 고사리 마을은 산신당과 지당 두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물은 박스에 2개씩 담는다.



향을 피우는 모습

2010년 10월 16일에는 필자를 포함해서 총 4명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당으로 향했다. 평소에는 새벽 4시~5시 사이에 제사를 올리는데 이번 제사는 조금 늦어졌다.

복장은 따로 갖추지 않고 평소에 입던 옷 중에 깨끗한 것을 입는다.

산신당은 다래식당에서 걸어서 50m정도만 걸으면 바로 있다. 제당에 도착해서는 먼저 제당주변을 다시 정리한다. 정리가 끝나면 제당 안에 있는 양초 2개에 불을 붙이고, 제단 아래에 창호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이번 마을제사에 쓰인 제물에는 돼지머리, 북어5마리, 소주, 한지, 소지, 메밥, 초, 향, 정화수이다. 메밥이 담긴 냄비뚜껑을 열고 수저를 가운데에 뿔고, 젓가락은 코다리(북어) 위에 올린다.

제물을 다 진설하고 나면 바로 제사를 시작한다. 제일 먼저 초헌관인 이장이 향을 피운다. 그리고 나서 절을 하고 소주를 한잔 올린다. 그리고 같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절을 한다.



제물을 조금 남겨두고 온다는 고시레모습

이 때 축관은 축문을 대신 해서 축원을 읊는다. 축원의

내용은 1년 내내 주민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축원이 끝나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소지를 올리고 나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다 타지 않은 소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올려준다. 산신제가 끝나면 바로 옆 300년 된 소나무에 제물을 다시 진설해서 소주를 한잔올리고, 다 같이 절을 한다. 이태성 제보지는 고시레에 대한 유래를 이야기해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마을제사에도 제사가 끝나면 바로 옆의 300년 된 소나무에서 제사도 다시 올리고 제물도 남기고 오는 ‘고시레’라는걸 하거든. 이 소나무는 아주 오래된 나무고 영험해서, 근처에 지나다니는 잡신들이 와서 먹으라고 제도 올려주고, 밥 한 숟가락과 코다리(북어) 반,

그리고 돼지머리에서 귀를 일부 잘라 남겨 두는 거거든. 나도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고시레가 왜 고시레가 됐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옛날 강원도 영서지역 철원에는 고씨 성을 가진 엄청난 갑부가 있었다구해. 아주 얼마나 부자인지 곡간에 쌀이 항상 가득이었다지 아 마. 어느 해인가 강원도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어 나갔는데, 그 때 고씨 갑부가 곡간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먹을걸 나눠준거야. 그때부터 그 고씨 갑부의 마음씨를 기리기 위해서 제사가 끝나면 조금씩 남겨둬서 짐승들이 먹게 하거나 잡신들이 먹게 한다는 의미에서 고시레라고 하지.

산신제제사가 모두 끝나면 산신제 제물은 차에 잘 나누고, 지당에서 쓸 새 제물을 다시 챙겨서 옆 산으로 이동한다. 산신당과 그리 멀지 않아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바로 지당이 있다.

지당에 도착하면 산신제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한 후 양초에 불을 붙인다. 한지를 접어 제당 안에다가 건 이후에, 한지를 깔고 제물을 다시 진설하다. 이 때 쓰이는 제물은 모두 미리 준비해둔 새 제물이다.

제의 절차는 산신제와 똑같다.

지당에서 제사가 끝나면 참가한 사람들은 음복을 하고, 제물을 챙겨 내려와 이장님 댁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한다.

② 축문

고사리 마을제사에서 축문은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다. 이태성 제보자의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전에는 동네 어른들이 축문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축문



지당으로 제물을 챙겨서 올라가는 모습

은 없고, 축원만 한다.

이태성 제보자는 고사리 마을에서 축관을 10 여년 가까이 했다. 제보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옮겨 보았다.

〈2010년 경인년 산신제와 지당제사 축원 내용〉

유세차 경인년 10월 16일 주민을 대표해서 축을 올립니다.
 주민들 무탈하고, 그저 무사하게 1년 보내게 해주십시오.
 농사도 잘되게 해주시고, 마을 주민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위의 내용이 축문을 대신해서 읊는 축원 내용이다. 축원은 메모를 해서 보고 읽지 않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한다.

소지는 축관인 이태성 제보자의 개인소지를 먼저 올리고 나서, 마을소지를 올리고, 초헌관인 이장님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소지를 올릴 때는 마을 이름이나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한다.



지당내부와 제물 진설 상태

○○○의 소지를 올립니다. 정성을 잘 받으셨는지... 잘 받으셨으면 소지가 잘 타게 해주십시오.

(4) 영험담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무속인들이 찾아와 산신당에서 정성을 드렸는데, 그만 실수로 제당 뒷부분을 태웠다고 한다.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

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특별히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제당을 다시 짓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마을운영비나 마을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제당을 다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마을제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있었던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 마을주민 대다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날에 한 분이 고사리 마을제사에 항상 정성껏 제를 올렸는데, 그러던 어느 해인가 제관차레가 그 분에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근대 그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제관이 하기 싫고, 이곳 고사리 제당에서 제를 올리지 않고, 내가 예전부터 제를 올렸던 곳에 가서 제를 올리겠다고 하며, 자전거를 타고 갔다. 얼마 지났을까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그 분이 자동차에 치여서 크게 다친 적이 있다.(조종옥)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 운영은 이장이 알아서 한다. 주로 마을운영비로 제물을 구입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장이 주민회의 때 마을사람들에게 지출 비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제사를 지낼 때는 남자만 참여한다. 축문은 따로 없고, 제사 진행 절차나 축원의 내용 역시 간소하고 소박하다.

마을제당은 산신을 모시는 산신당과 땅의 신을 모시는 지당이 있다. 최초 현지 조사 때는 서낭당과 산신당의 구조였는데, 2차 제사 당일 조사에는 산

신당과 지당이라고 제보자들이 밝혀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르는 명칭이나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인제읍 고사리 마을제사는 전승양상이 약화되어 있다. 마을 신앙을 소중히 지켜오던 세대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젊은 세대들은 거의 마을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고사리 마을제사를 이끌어 오고, 보존하는 몇 분 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신제 등을 지켜나가고 있다. 이번 두 차례의 현지조사 역시 이장님과 이태성 제보자, 이화섭 제보자의 성원을 입어 가능했다.



지당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

특히 장수터, 피아시계곡, 밤골, 고사리로 이어지는 래프팅 급류코스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고사리 마을에는 외부인들이 래프팅업체나 펜션 사업 등으로 많이 이주해오면서 전통 마을제사의 전승양상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고사리 마을제사의 전통이 무척 오래 된 만큼 마을신앙을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어 마을의 전통문화가 잘 전승되었으면 한다.

4) 2010년 10월 16일 새벽 5시 마을제사 참관기

이 참관기는 두 차례에 걸친 고사리 마을제사에 대한 필자의 느낌과 자세한 절차를 기록하려고 마련하였다. 위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한다.

2010년 10월 16일(음력 9월 9일) 에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쉼 없이 마을제사에 참석하고 현지조사를 했던 날로 기억한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쁜 일정이었지만 본서를 내기로 했던 터라 참관하기로 했다.

우선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서울에서 미리 10월 16일(음력 9월 9일)에 마을제사를 하는 지역과 시간을 이장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하고 시간계획표를 작성했다. 인제군의 마을제사의 시기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한다면 많은 지역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행히 마을제사별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는 혼자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경로가 가까우면서 시간대가 맞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대략 이장님과의 약속을 토대로 시간을 분배한 결과 4개 마을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간을 확인해서 작성한 스케줄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고사리 마을제사 : 예상시간 04:30~06:00
- 2) 하추리 마을제사 : 예상시간 06:30~07:30
- 3) 하남1리 마을제사 : 예상시간 08:30~11:00
- 4) 미산1리 마을제사 : 예상시간 14:00~ 밤 늦은 시간까지 문화예술행사

위의 4개 마을제사는 필자가 이미 한 차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 때문에 제사내용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다.

고사리 마을제사는 새벽 5시 경에 지낸다고 해서 혹시 제사 현장을 보지 못할까봐 상남면 고향집에서 4시에 출발했다. 서둘러 도착한 시간은 어둠이 아직도 짙은 새벽 4시 30분이었다. 이장님과 연락을 하고 아징님 댁에 들어갔다. 제사에 참여하는 다른 분들과 연락이 아직 닿지 않아 기다리고 계셨다. 따뜻한 커피 한잔에 몸을 녹이고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이장님의 사모님께서 제물 준비에 한창이었다. 메밥

은 2개의 냄비에 나눠담고, 코다리(복어) 10마리는 2개의 접시에 5마리씩 나눠 담았다. 소주와 소주잔 역시 2개씩 나눠 준비했다.

사람들이 다 오자 이장님 차에 타고 앞서고, 필자도 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마을 중간을 가로질러 다래식당 옆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장에서 제물이 담긴 두 개의 박스 중에 산신제를 지낼 제물만 챙겨 올라갔다. 주차장에서 도보로 1~2분 정도만 올라가면 바로 산신당이 있다.

제당은 처음 조사 때 봤던 모습대로 있었다. 가끔은 무당들이 와서 정성을 올리고 가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몇몇 무당들이 와서 정성을 올리다가 산신당 뒤



소나무 아래 제물 진설 장면

쪽의 나무를 일부 태워서 그 뒤로는 잘 안 오는 것 같다고 한다.

제당 옆의 소나무는 300년 된 소나무로 인제군의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신기한 점은 소나무 옆에 옴나무가 함께 자란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마을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태성 제보자가 산신당 안에 걸어두었던 한지로 된 예단 옆에 깨끗한 새 한지를 걸었다.

양초에 불을 붙여 짙은 어둠 속에서 제당 안을 환하게 밝혔다. 한지를 예단에 깔고 준비해온 제물들을 하나 둘씩 진설했다. 제관들은 재미난 농담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제사를 시작했다. 다른 마을제사가 잠담도 금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진다면 이 곳 고사리 마을제사는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진설은 메밥과 정화수가 맨 앞에 놓였고, 다음 칸에 돼지머리와 복어가 올려졌다. 진설이 끝나자 제사가 시작되었다.

제사 절차는 먼저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절을 올렸다. 이후에 초헌관이 절을 다시 올리고, 술을 올린다. 그 다음에 축관이 축을 고했다. 축을 고했을 때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축원의 내용은 주민들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축원이 끝나고 나서는 소지를 올렸다. 소지 축원은 먼저 축관인 이태성 제보자의 개인소지를 올리고 나서 마을대표로 이장이 마을소지를 올리고, 이장님과 이화섭 제보자의 개인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이뤄졌다.

소지축원의 내용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였으니, 정성을 잘 받으셨으면 소지가 잘 타서 올라가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소지가 잘 타서 올라가면 다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절을 올린다. 산신제가 끝나면 제물을 챙겨서 바로 옆에 있는 300년 된 소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다시 제물을 진설하여 절을 하고, 잔을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소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접시 하나에 메밥 일부와, 북어 반쪽, 돼지머리에서 귀를 일부 잘라 담는다.

이렇게 남기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잡신을 위해서 고시래 하는 거라고 한다.(이태성)

소나무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산신제는 모두 끝이 난다.

산신제가 끝나면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와 산신제에 쓰인 제물을 내려 놓고,

지당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지당이 있는 옆 산으로 올랐다. 다래식당 주차장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으면 바로 지당이 나온다.

지당의 제사 절차 역시 산신제와 같기 때문에 제사 절차에 대한 설명은



참가자들이 절을 올리는 모습

생략하겠다.

산신제와 지당제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장님 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음복을 한다. 옛날에는 마을제사 규모도 크게 해서 돼지를 잡고, 동네 주민들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고 했지만 지금은 소소하게 제사를 올린다.

새벽 6시 10분경 마을제사가 모두 끝이 났다. 6시 30분부터 하추리 마을제사에 참관하기로 약속했던 터라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하추리로 향했다.

9. 인제읍 하추리

가래나무골 서낭제



서낭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음력 9월 9일 06:00시~08:30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가래나무골 서낭당, 반장님댁.

제보자: 박충균(남,49)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이장.

박성기(남,81)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제관

김재노(남,52)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2반 반장.도가집

김순녀(여,52)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도가집

(2) 마을유래와 개관

강원도 인제군 남설악에 또아리²⁴⁾를 틀고 앉은 하추리 마을은 인근에 유명한 명소들이 많이 자리 잡은 관광마을이다. 인구는 56호, 인구 239명이 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인제 내린천 모험레포츠 축제와, 1708m 설악산, 1518m 가리봉, 1424m 점봉산, 필레 계곡, 하추리 계곡 등이 이곳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이다.



하추리 박충균 이장

²⁴⁾ 짐을 일 때 머리 위에 얹어서 짐을 끄는 고리 모양의 물건을 의미한다. 또아리는 지방에 따라 파리, 또아리, 또가리, 또야리, 또바리 등으로도 불렸다. 또아리는 짚이나 왕골, 형짚, 죽순껍질 등으로 만들었다. 또아리를 머리에 얹고 물동이나 무거운 짐을 일 때에 몸의 중심이 맞지 않아 또아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아리 끈의 끝을 입으로 물고 물건을 들어 얹었다. 또아리 위에 얹은 물동이의 물이 걸을 때마다 출렁거려 물동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바가지나 호박잎을 띄우기도 한다.

주어진 자연환경이나 명소들뿐만 아니라 하추리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들을 만들어 마을에 활기를 더욱 불어 넣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민박요금 예고제 마을로 인제군 1호로 지정되어 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겨울에 마을에서 자체 생산하는 우드칩²⁵⁾ 발효퇴비를 이용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마을로 느타리버섯, 고추, 찰옥수수, 콩, 토종 잡곡 등이 생산되며, 다양한 여가활동과 건강, 자연체험 휴식 등 재미와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하추리 마을은 본래 인제의 동면 지역으로서 추동(楸洞)의 아래쪽이 되므로 하추동(下楸洞)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싸리목이, 농금이, 닥밭구미, 박수터, 더디미, 셋말, 검은석을 병합하여 하추리(下楸里)라 하였다.

추동의 다른 이름은 가래나무가 많아 ‘가래울’ 또는 ‘가래나무골’인데 지금도 가래나무가 많이 남아 있으며, 해발 250m~450m로 읍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20~28km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하추리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제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황조막(黃鳥幕)과 박진사(朴進士)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때는 늦은 봄이었는데 나라에서는 과거를 실시하고 있을 무렵이다.

박씨들의 씨족촌인 인제현 하추리에 서로 6촌간인 삼형제가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은 준희 순칠 준희란 청년들로 그 중 준희는 인제 고을에서 글재주가 뛰어나서 소문이 자자하였고 준희는 어려서부터 조숙하더니 청년이 되자 천하장사였고 또한 키가 구

25)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낸 뒤 연소하기 쉬운 칩 형태로 잘게 만들어 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LNG나 병커C유를 돌리는 것보다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척장신이였다.

그리고 순철은 집이 빈곤하여 어깨 넘어로 추귀권(抽句卷)이나 읽는 처지였다.

이들은 과거를 보기 위해 많은 쏘신과 노지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한양을 향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늦은 봄이건만 한 여름 장마처럼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흙탕의 장마물을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구척 거



서낭제를 올리고 있는 모습

구인 준희의 허리에 순철이와 준희는 밧줄로 연결하여 매고 개울을 건너는데 급류의 물살이 너무 강해서 준희와 순철이가 넘어져 물위에 뜨게 되었다. 그러나 밧줄을 당겨 두 사람의 떡살을 양손에 움켜쥐어 번쩍 들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정말 천하장사였다. 그들은 오늘날의 경기도 청평고을에 이르러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다. 인정 많은 주막 주인 덕택에 편히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순철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꿈 자랑을 했다. 꿈에 푸른 버드나무 숲에서 황금 같은 피꼬리 두 마리가 날아와 양어깨에 앉더라는 것이다. 쫓아도 날아가지 않고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며 순철이는 자기가 과거에 장원급제 할 징조라고 좋아했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있는 주막주인이 “허허! 애석합니다.” 하면서 해몽을 하는데 피꼬리가 머리에 앉았으면 당신이 급제하는 것인데 양어깨에 앉은 것은 옆 사람이 급제할 징조라고 했다.

그 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꿈의 해몽이 적중하여 준희는 소과에 급제를 하고 준희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제수 받았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다시 들러 주인에게 많은 사례를 하고 그 주막을 황조막(黃鳥幕)이라고 했으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황조의 꿈을 꾸고 과거에 급제했다 하여 황조막 또는 황조가라 불

렸다고 하나 지금은 그 흔적을 알 수 없다.

지금도 하추리에서 그들의 후손들은 피꼬리 꿈만 꾸면 길조라고 믿고 있으며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크게 기뻐한다고 한다.

하추리 마을에는 ‘용화선원’이라는 유명한 사찰이 있다. 용화선원은 말 그대로 전통과 현대식을 가미한 새로운 명소다. 본사인 인천 용화사가 지난 97년 4월 착공해 2000년 4월26일 개원했다.

용화선원을 별장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칠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불자들의 대중처소라면 이리 말해도 큰 누가 되지 않는 터.



용화선원 일주문

선원은 말 그대로 선을 중심으로 하는 용화사 창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활구참선 수행도량인 용화사의 종풍답게 이곳 인제 용화선원에는 참선에 전념하고 있는 20여명의 스님들이 기거하고 있다. 용화선원 청곡스님은 “조실 전강선사(75년 열반)는 23세에 건성하시어 해봉·혜월·용성·한암·보월·만공 등 당대의 6대 선지식과 범거량을 하여 모두 인가를 받으시고 25세에 만공선사의 법맥을 이었다”고 말하고 “1963년 용화사에 선원을 개설한 이래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고 전했다.

인천 용화사는 현재의 원장인 송담 스님이 75년 법좌를 물려받은 이래로 참선수행도량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곳 인제 깊은 계곡에 용화선원을 창건했다.

용화선원의 모든 운영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정진수행을 위한 공간으로서 움직여지고 있다. 특히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법회 중심으로 신행활동을 하다 보니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다. 불교의 진수인 활구참선을 널리 수

행할 수 있도록 보살선방과 시민선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인제 용화선원은 별장이다. 요셋말로 콘도다. 일반 콘도라 해도 뒤처짐이 없을 만큼 용화선원의 자연경관은 빼어나다. 지세로 말한다면 학이 둥지를 튼 형상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산자락 옆에 깊은 계곡이 또아리를 틀었다. 선방에 앉아 좌선경계에 들면 보이는 것이 경계요 열반에 들 듯 하다.

법당은 현대식을 가미했다. 제대로 측량한 목조로 지은 건물은 여느 선원과 달리 장엄미가 가득하다.



용화선원 법보선원

용화선원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매주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수 백 명의 신도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주변 경기가 살아난 것이다. 특히 선원이 있는 하추리는 비포장도로가 선원 개원으로 포장되면서 인적 드문 산천에서 깨끗한 선진마을로 탈바꿈했다.

래프팅으로 유명한 내린천 계곡을 따라 절을 찾아가는 드라이브의 묘미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요즘, 인제 용화선원 가는 길이 들떠 있다. 상경할 때 필레약수를 들려오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필레약수에서 은비령으로 가는 길은 국내 대표적인 단풍 길이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마을제당은 하추리 마을에서 ‘용화선원’이라는 절의 일주문을 통과해서 다리를 건너면 왼쪽 계곡에 위치해 있다.

마을제당의 형태는 큰 암석과 신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큰 바위 아래에 바위굴 같은 틈이 있는데 그 곳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사진 가운데 바위와 소나무가 서낭당 위치

큰 바위 위에는 350년 된 소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소나무는 2006년 수해로 물이 바위까지 넘치면서 죽었다고 한다. 계곡물에서 바위까지의 높이는 5m 이상이다. 거리도 상당히 멀었는데 수해로 계곡물이 넘쳐서 바위가 잠겼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을제당은 마을이름을 따서 ‘가래나무골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하추리라는 이름대신 주민들은 예전부터 ‘가래울’ 또는 ‘가래나무골’이라는 마을지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당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한다. 일부 주민은 ‘치성제’라고도 불렀는데 서낭제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낭당에서 제를 올리는 모습

가래나무골 서낭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됐다고 한다. 장소도 항상 현재의 위치에서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다만 서낭당 옆쪽에 ‘용화선원’이라는 절이 생기면서 제사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고 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마을제사는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 일 년에 두 차례 지낸다. 예로부터 음력 3월 3일²⁶⁾은 삼월 삼짇날이라고 하며, ‘삼짇’이라고도 했다. 한자로는 상사

(上巳), 중삼(重三), 답청절(踏靑節)이라고도 쓴다. 삼짇날은 ‘삼(三)의 양(陽)이 겹친다.’는 의미이다. 최남선에 의하면 “산라 이래로 이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으며, 이 풍속은 조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이 날 남정네들은 강에서 천렵을 했다.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라고 한다.

중양절은 제비가 강남으로 가는 날로 여겼다.

산야에 핀 황국을 따다 찹쌀떡을 빚거나, 배, 유자(柚子), 석류(石榴), 잣등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화채(花菜)를 만들어 먹거나 제사상에 올렸다.²⁷⁾ 또는 국화잎을 술에 담가 국화주를 만들어 먹었다.²⁸⁾

이 두 날짜는 예전부터 신성한 날로 여겨왔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삼월 삼짇날 “진천 땅의 풍속에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여인들이 무당을 초빙하여 우담의 동서 용왕당과 삼신당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정성을



서낭당 가기 전에 있는 다리

26) 강무학에 따르면 예로부터 삼월삼짇날은 제비가 오는 날로 여겼다. 산야에 피는 진달래꽃을 따라 찹쌀가루나 녹두가루에 반죽한 둥근 떡, 화전(花煎)을 만들었다. 혹은 녹두로 국수를 만들거나 녹두가루에 붉은 색을 들여 꿀물에 띄운 수면(水麵) 등을 제사상에 올리거나 검은 떡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다. (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동호서관, 1981, p.161.)

27) 강무학, 위의책, p.183.

28)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pp.176-203.

올린다.”했다. 또 『열양세기』에서는 “나라 풍속에 기제사는 소중하게 여기고 시제(時祭)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 처사는 오랑캐의 더러운 풍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조 중엽에는 유현(儒賢)들이 배출되어 사대부 중에도 예절을 거론하기 좋아



제사가 끝나고 도가집에 모여드는 마을주민들

하는 자가 많아서 시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가난하여 네 명절 모두 시제를 지내는 자는 적고 다만 봄철에는 삼짇날, 가을철에는 가을의 중앙절(重陽節)에 한하여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²⁹⁾

그러한 관념에 따라 마을제사의 시기는 봄과 가을, 즉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은 두 날짜 중에 한 날짜를 선택해서 산신제나 서낭제를 지내기도 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가래나무골 서낭제는 새벽 6시 30분에 시작했다. 고사리 마을제사가 끝난 뒤 하추리 마을제사에 참여하기로 이장님과 약속을 했다. 고사리 마을제사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필자를 위해서 제사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감사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가래나무골 서낭제에는 제관 1명과 제관을 옆에서 도와주는 3명의 마을 어른이 제사를 진행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제관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 묻자, 제관이나 초헌관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²⁹⁾ 김정하, 「인제군 산신제(山神祭)의 시기 및 구성 원리 고찰」, 「강원민속학」 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 pp.150~151. 재인용.

초헌관은 매년 박성기 제보자가 한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부정이 없고 정결한 가정으로 뽑히 생기 복덕을 가려 일진이 좋은 사람으로 몇 사람 선정했다. 이 때 생기와 복덕이 모두 닿으면 가장 길한 것으로 여기지만 어느 하나



초헌관을 맡은 박성기 제보자

만 맞아도 무방하다. 다만 가족 중에 임신을 했거나 달거리를 하는 여성이 있으면 생기 복덕이 닿아도 제관이 될 수 없고, 상이 끝나지 않은 사람 역시 제관에 선정에서 배제된다.

초헌관인 박성기 제보자는 점차 마을에서 제사 진행을 할 줄 아는 어른이 없어지고 축문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알아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잘 모르고 하니 제관을 계속 하게 됐다고 한다.

도가의 선정역시 예전에는 무척 까다로웠다. 제관과 마찬가지로 생기 복덕을 가리고 일진이 좋은 사람을 선정했다. 또한 도가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도가에 선정되면 모든 것을 삼간다.

제물을 구입할 때도 부정한 것을 보고, 듣지도 말아야 하고, 도가집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제물을 구입할 때도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것만은 구입해야 했다.

도가에 선정이 되면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장이 도가를 맡는 걸로 규칙을 정했다.

2010년 음력 9월 9일 마을제사는 2반 반장인 김재노(남,52) 제보자가 도가를 맡아서 제물을 준비했다.

③ 제비와 제물

가래나무골 서낭제를 지낼 때는 마을운영비로 제물을 구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 모두가 비용을 모아서 함께 제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서낭제에는 10만원 정도가 제비로 쓰였다고 한다.



제물을 진설하는 초헌관 박성기 제보자

서낭제에 쓰이는 제물을 보면, 우선 돼지머리를 들 수 있다. 돼지머리는 인제군 마을제사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물이다.

옛날에는 제당 앞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가져가서 잡아서 제물로 썼다. 통 돼지는 제물로 쓰고 끓여 먹은 후 남는 것은 모두 나누어 가져갔다. 이런 전통은 오래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데 제당 옆에 용화선원이 생기면서부터는 제당에서 술을 빚거나 돼지를 잡지는 않는다. 그 이유를 묻자, 불교는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돼지를 서낭당에 와서 잡지 않는다고 한다.

돼지머리 외에는 메밥과, 시루떡, 정화수, 향, 초 등의 제물이 진설된다. 제주에는 ‘백화수복’³⁰⁾이라는 전통주를 사용한다. 제주 역시 마을제사 몇 일 전에 서낭당 근처에서 빚어서 사용했다. 제주 만드는 방법을 묻자, 우선 생기 맞는 사람이 빚어야 한다. 제당 현장에서 금줄을 치고 술 안에 곡자³¹⁾와 누룩을 섞어서 밥을 한다. 땅을 파고 술을 잘 봉합해서 묻어두었다가 제사

³⁰⁾ 백화수복주는 우리방식으로 빚은 차례주로, 오래살면 같이 복을 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쌀의 외피를 30%정도 깎아 정성껏 빚은 제사주일 뿐만 아니라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담긴 전통주이다.

³¹⁾ 곡물의 양을 되는 단위의 하나. 소곡(小斛)과 대곡(大斛)이 있는데 각각 15두(斗)와 20두 들어있음.

당일이 되면 꺼내서 사용했다. 보통 1주일 전에 술을 빚는데, 제사 전까지는 절대 열지 않는다.(박성기)

④ 제수준비

제물은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한다.

예전처럼 제당 근처에서 메밥을 짓고, 돼지를 잡지 않기 때문에 도가집에서 제물 준비를 해서 서낭당에 가지고 간다.



제사가 끝나고 아침식사를 기다리는 주민들

옛날에는 마을제사를 지낼 때 도가집과 서낭당에 금줄을 쳤다. 이는 부정 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다. 원새끼를 꼴 때는 지푸라기 끝이 10cm 쯤 밖으로 삐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잡귀나 돌림병이 금줄에 걸려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말하자면 금줄의 주술적인 기능을 한층 강화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원새끼가 다 만들어지면 한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금줄 사이에 듬성듬성 끼운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가집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다. 제사 음식과 뼈해장국, 반찬들을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음복을 한다.

⑤ 금기방법

가래나무꼴 서낭제에는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가집에서 마을주민들의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한다.

제관과 도가의 선정은 무척 엄격하게 선정하는 전통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박성기 제보자를 제관으로 하고 도가는 반장이 맡아서 하는 체제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인 방식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현재 상황에 맞게 제의 절차와 제사 방법을 유연하게 대처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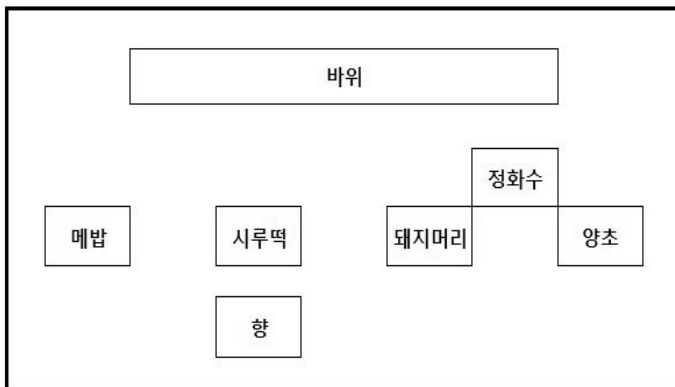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가래나무골 서낭제는 일 년에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제사를 지낸다.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이장을 포함해서 몇 몇 주민들이 서낭당에 가서 청소와 주변 정리를 한다.

제비는 마을운영비로 사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에게 조금씩 걷기도 한다. 제물은 도가를 맡은 반장이 준비한다. 올해는 2반 반장댁이 도가집이 되어 모든 제사 준비를 했다.

제사 당일 제물을 챙겨서 제당에 도착하면 제일먼저 제당 주변정리를 한다. 주변정리가 끝나면 한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의 진설 상태는 다음 그림과 같다.



2010년 음력 9월 9일 서낭제는 새벽 6시 30분에 시작했다. 먼저 제관 박성기 제보자를 포함해서 이장 박충균, 도가 2반 반장 김재노, 그리고 마을 어른 한분을 포함한 네 명이 함께 절을 올렸다.



박성기 제보자가 소지를 올리는 모습

그 다음에 제관(초헌관) 박성기 제보자가 따로 절을

하고, 잔을 올렸다. 잔을 올릴 때는 도가인 김재노 제보자가 술을 따랐다.

잔을 올린 이후에는 축문을 박성기 제보자가 읊는다. 축문은 한자로 되어 있고, 날짜만 바뀌어서 사용한다.

복장은 따로 예복을 갖추지 않고, 평소 입던 옷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서 입는다. 축문을 읊고 나면 소지를 올린다.

고사리 마을제사에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의 소지만을 올려주지만 하추리 마을제사는 2반 주민들 대부분의 명단을 적어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를 올릴 때는 마을소지, 제관소지, 개인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소지축원을 한다. 소지축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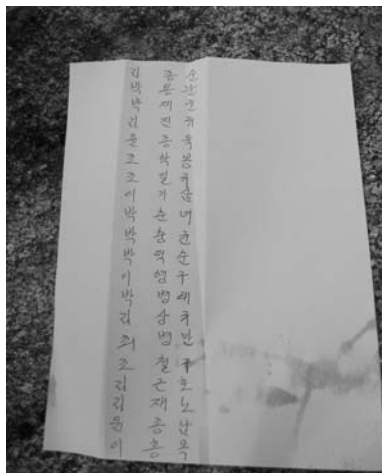
일년 내내 ○○○ 씨네 남녀노소 몸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소원성취하게 해주십시오.

소지를 올리고 나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례를 하고 마무리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가지고 도가집으로 내려온다.

음복은 제사가 끝나면 초헌관과 마을 어른들부터 한다. 음복을 한 후에는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과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아침식사를 함께 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 가래나무골 서낭제에 참가한 사람은 모두 4명이었다. 모두 남자만 참석하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사에 참석은 하지 않아도 경비를 조금 내거나 서낭제에 참여하고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명단을 적어 소지를 올려준다. 2반 주민 경우는 대부분 참여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올해 도가를 맡은 2반 반장 김재노 제보자 댁에서 마을 주민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함께 한 주민들은 20명 정도 모였는데 제물로 썼던 시루떡을 포함해서, 돼지고기, 뼈해장국, 각 종 나물 등을 먹었다. 필자에게도 제사 지낼 때 같이 있었으면 아침을 꼭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올해 서낭제에 참여한 마을주민 명단

② 축문

축문은 한자로 되어 있다. 박성기 제보자는 서낭제가 있을 때마다 축문의 날짜를 수정해서 제사에 사용한다. 축문의 내용과 번역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庚寅九月辛卯朔初九日乙亥
 세차경인구월신묘삭초구일을해
 해를 바뀌어 경인년 구월구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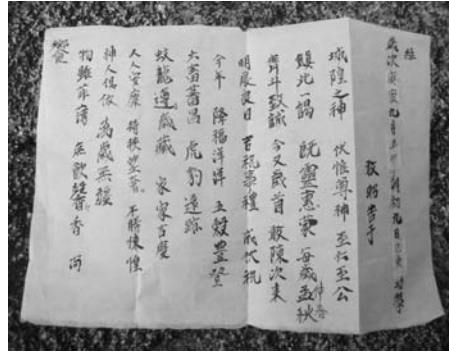
幼學

유학

유학 ○○○입니다.

敢昭告于
 감소고우
 삼가 밝게 고합니다.

城隍之神 伏惟尊神 至仁至
 公 鎮此一謁 既靈惠蒙
 성황지신 복유존신 지인지
 공 진차일알 기령혜몽
 엮드려 생각하건대 존령께
 서는 지극히 어질고 공평하여
 한번 고하매
 이미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래나무골 서낭제 축문

每勢孟秋(仲春) 齊斗至誠 今又勢首 敢陣次來
 매세맹추(중춘) 제두지성 금우세수 감진차래
 해마다 가을에 재계하여 치성을 드리고 새해 첫 달에 감히 차례로 와서

明展良日 吉祝事禮 成伏祝
 명전양일 길축사례 성복축
 좋은 날을 택하여 길제를 올리고 엮드려 축원하오니

今年 降福洋洋 五穀豐登 六畜蕃昌 虎豹遠跡
 금년 강복양양 오곡풍등 육축번창 호표원적
 많은 복을 내리시오 오곡이 풍년 들고 모든 가축이 번창하며 범과 포범이
 자취를 멀리하고

蛟龍遵歲藏 家家百慶 人人安康 持挾望奢
 교룡준세장 가가백경 인인안강 지협망사
 교룡은 숨어서 집집마다 경사가 있게 하고 사람마다 편안하게 하여 조금
 이나마 넉넉하게 하소서

不勝悚惶 神人俱依 萬世無疆 物雖菲薄 庶飲馨香
 불승송황 신인구의 만세무강 물수비박 서음형향
 송구함을 금할 수 없으나 귀신과 사람이 함께 의지하여 만세무강하소서.

物雖菲薄 庶飲馨香 尙饗
 물수비박 서음형향 상향
 제수가 비록 거칠고 적으나 향기를 흠향하소서.

(4) 영험담

가래나무골 주민들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서낭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물으니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동차가 절벽에서 떨어진 이야기〉

서낭제를 지내고 난 뒤에는 차 사고가 나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그걸 증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 일이지. 허허.

그게 아마 몇 년 전일거야. 원모씨가 서낭제를 지내고 난 이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트럭에 한 차 싣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차가 무겁기도 하고 운전을 잘못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높이에서 차랑 같이 함께 떨어졌다고. 다들 떨어진 걸 보고 뛰어가서 봤더니,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는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그 높이가 진짜 비행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걸어나오니 기적이지 기적이야.

〈할머니 나물 채취 이야기〉

할머니 한분이 서낭당 건너편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다가 산 아래 쪽으로 떨어졌는데 다치지도 않고 멀쩡했다.

〈점봉산 산삼이야기〉

점봉산에는 산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야. 점봉산에서 산삼을 캐려면 우리마을 서낭당에 와서 술을 올리고 제를 올려야 산삼을 잘 캐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주민들은 서낭당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비록 예전처럼 큰 규모로 제사를 지내지는 못하지만 매년 정성껏 서낭제를 올려서 그런지 큰 사고도 별로 없고 마을이 평안한 것 같다고 한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가래나무골 서낭제는 마을 운영비로 운영되는데 필요시에는 주민들끼리 조금씩 걷기도 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 마을제사에는 제비로 10만 원 정도가 사용됐다.

마을제사가 있을 때는 서낭당 옆에 있는 용화선원에서 술이나 제비를 협찬 해 줄 때도 있다고 한다.

마을제사의 결산은 제사가 끝나고 도가를 맡은 반장이 제사 비용과 지출 내용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린다.



올해 도가집을 맡은 김순녀 제보자

3) 마을제사의 특징

본시 서낭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의 안녕을 위함이다. 질병을 막고, 마을 주민들의 농사가 잘 되도록 풍년을 기원한다. 이러한 소망이 잘 담겨져 있는 곳이 서낭당이다.



도가집을 맡은 2반 반장 김제노 제보자

다래나무골 서낭제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 그래서 서낭당과 관련된 영험한 이야기들이 많다. 실제로 사건 현장을 보고 느끼면서 주민들은 서낭당의 신비로움 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서낭제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마을의 안녕과 단합을 도모한다. 특히 하추리 마을 주민들은 서낭제 외에도 대보름맞이 행사와 안녕기원제례도 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오전 10~11시에 시작 해서 저녁 7~8시까지 대보름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대보름맞이 행사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줄다리기, 축구경기, 족구경기 등의 체육행사로 열린다. 이 밖에도 달짚을 만들어 소원을



소원들이 매달려 있는 달짚



노인회관 입구의 안녕기원제례



끈 묶고 달리기 경기~

써서 줄에 매단다. 저녁이 되면 소원들이 매달려 있는 달짚을 태우기 행사도 한다.

2010년 안녕기원제례와 대보름맞이 행사는 음력 1월 15일(양력 2월 28일)에 이뤄졌다. 주민들로 구성된 사물놀이단과 함께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했다.

10. 상남면 하남1리 매화동

매화동 산신제와 서낭제



매화동 서낭나무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8월 21일 13시~17시

2010년 10월 16일 09:00~12:00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매화동, 산신당과 서낭나무.

제보자: 전정봉(남,60)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이장.

김만준(남,65)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반장. 도가.

박윤일(남,89)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김복녀(여,78)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2) 마을유래와 개관

하남은 상남리와 더불어 행정구역상 기린면이었다. 그러다 상남리가 몇 개리를 통합하여 상남면으로 승격되면서 기린면에서 상남면으로 편입되었다. 하남리의 지명유래는 『인제군사』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만준 제보자(왼쪽)와 전정봉 이장

본래 기린면의 지역으로 기린현에서 남쪽 아래가 되므로 하남이라 하였는데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광조전(光助田), 방평동(傍平洞), 다룻골, 매화리(梅花里)를 병합하여 하남리(下南里)라 하였다.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그 해 9월 18일에 홍천군(洪川郡) 신남면(新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54년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다시 인제군 기린면으로 환원되었으며 1983년 1월 10일 기린면 상남출장소가 상남면(上南面)으로 승격되면서 상남면(上南面)으로 편입되었다.

하남1리 주민들은 옛날부터 매화동, 매화마을이라 불렀다. 매화동이라 불리게 된 유래를 묻자, 마을에 매화꽃이 많이 피고, 마을 모양이 매화와 닮아서 오래 전부터 매화동 또는 매화마을이라 불렀다.(전정봉)

매화동에는 1951년 5월 오미자 고개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북괴군과의 접전에서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건립된 ‘현리전투위령비’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인제군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상남면 하남1리와 기린면 현6리와 경계를 이루는 매화동(梅花洞)에 위치하였다. 1951년 5월 오미자 고개를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북괴군과의 접전에서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달래고 백전불굴, 백전백승 수사불패하는 정예산악 군단의 결의를 다지기 위하여 1991년 11월 20일 육군 제 2307부대 장병과 지역주민의 정성을 모아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에는 비(碑) 전면에 현리 전투위령비(縣里 戰鬪慰靈碑)라는 문구만 기록되어 있었으나 1994년 6월 6일에 비(碑) 뒷면에 ‘통한의 결의’라는 시귀(詩句)를 추가로 삽입하였다.

통한의 결의

일천구백오십일년오월
오마치의 한을 품고
산하를 떠도는 영혼을 달래어
여기 해와 달을 머물게 했노
라



32) 『인제군사』, 앞의책, p.744.

백척간두의 조국을 지키고자
스스로 떨쳐 일어나
한점 부끄럼 없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이시여
그대들은 용감했어라
결코 비겁하지 않았노라
죽음도 두렵지 않았노라
그 무슨 영화를 바랬으랴
짓푸른 내린천 강물에
젊디 젊은 붉은 피로
산악을 범람케 하고
소양강 한강을 이었노라
아 어이 잊으랴
통한과 비운의 교훈을
이제 천추의 한을 풀으소서
무적의 힘을 길러
백절불굴 백전백승 수사불패하는
정예산악군단의 결의를 다지노니
부디 고이 잠드소서

일천구백구십사년 유월 육일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하남1리는 산제당과 서낭당이 따로 있다.

하남1리 매화동 마을제당은 용포교를 건너 매화촌 옆길을 따라 차로 500m정도 올라가면 길 옆으로 왼쪽에는 서낭당, 오른쪽에는 산제당이 있

다.

마을제당의 이름은 마을 이름을 따서 ‘매화동 산제당, 매화동 서낭당’ 이라고 한다.

마을제당은 방태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방태산은 상남면과 기린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에서



매화동 산제당의 모습

가장 큰 자연림이라고 할 정도로 나무들이 울창하고 삼림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방태산 산신령에 대한 산신제를 올리고 방태산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산제당은 자연암석 형태에 당 앞에는 시멘트와 돌을 이용해서 단을 만들었다. 당집 안에는 예단을 걸 수 있는 틀은 없었지만 제사 지내기 전에 나뭇가지를 잘라 양쪽 자연석 사이에 고정시켜 예단을 걸 수 있도록 한다.

산제당 옆에는 신목이 있는데, 몇 백 년 된 소나무라고 한다. 신목은 계곡 바로 옆에 있어, 수해 때 뿌리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혹시나 신목이 또 다시 큰 비가 오면 훼손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며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



산제당 옆의 신목

산제당 옆에는 방태산 산신령님 아래의 여러 잡신들을 모시는 산제당과 같은 모양의 당이

하나 더 있다. 산신제를 올리고 나서 이곳 당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배례를 하고 잔을 올린다.

서낭당은 나무형태로 되어 있다. 서낭당의 원래의 모습으로 천신-산신-수목신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서낭목은 마을의 개척자가 처음 마을에 들어오면서 나무를 식목하여 마을의 수호신적 기능으로 변모하는 양상에서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³³⁾

서낭목은 소나무인데 한 300년 되었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하남1리 매화마을은 음력 9월 9일 1년에 1번 마을제사를 지낸다. 마을제사는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010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아침 일찍부터 마을 주민들은 분주하게 제사 준비에 들어간다. 매화동 주민들은 제사 당일이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마을 제사에 참여한다.



불을 피우고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

제물 준비는 아침 일찍 산제당 근처에 고기를 굽게 될 불판과 밥과 국을 끓일 솥과 불을 준비한다. 필자가 하추리 마을제사가 끝나고 매화동 산제당

33) 김경남, 『평창군의 마을신앙』, 『강원민속학』 제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pp. 476~477.

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8시 40분이었는데, 이미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제사 준비는 9시 30분에 마쳤다. 매화동 마을제사는 보통 오전 10시경에 시작하는데 2010년 올해의 마을제사는 9시 30분에 시작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과 도가를 선정할 때는 마을에서 마음과 몸이 깨끗하고, 생기 복덕한 사람 중에 선정한다. 특히 초상집이나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은 제관과 도가를 선정할 때 제외된다.



50년 가까이 도가를 맡은 박운일, 김복녀 제보자

매화동 마을제사에서 50년 가까이 제관과 도가를 맡아온 박운일 제보자는 제관과 도가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김씨네가 도가집을 항상 맡아왔는데, 그 때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집이 제당에서도 가깝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도가집을 맡아왔어.

제관도 그렇고 도가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사실 마을 제사를 책임지고 준비한다는게 어렵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반장들이 돌아가면서 도가집을 맡게 된거지.

2010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마을제사에는 반장인 김만준(남, 65세) 제보자가 도가에 맡고, 강영철, 황선행 두 어른이 제관을 맡아 제사를 주관했다.

③ 제비와 제물

제물은 수돼지를 한 마리 쓴다. 돼지는 머리는 것 없이 돼지머리는 제사에 쓰이고, 고기는 손질해서 제사가 끝나면 함께 구워먹고, 남은 부분은 제사에 참여한 주민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져간다.



돼지를 손질하는 모습

옛날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제당 근처에 끌고 와서 털을 깎고 삶아서 먹었는데, 손도 많이 가고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잡지 않고, 통돼지를 사다가 쓴다. 제사에 쓰이는 돼지는 보통 '마리'라 한다.

제사는 보통 9시 30분~10시 정도에 시작한다.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찍 제당에 찾아와 제사 준비를 함께 한다. 남자들은 주로 돼지를 손질하고, 제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여자는 메밥과 국밥 재료를 손질해서 머리뼈와 내장, 곱창, 나물 등을 넣고 푹 끓인다.



메밥과 국밥을 만드는 모습

제사그릇은 도가집에서 보관해 둔다. 제사를 지낼 때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한다.

메는 산제당 앞에 가서 짓는다. 쌀을 가져가서 제당 옆에 흐르는 계곡물에서 쌀을 씻어서 안친다. 계곡물은 방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이 물로

해야 더 정성이 들어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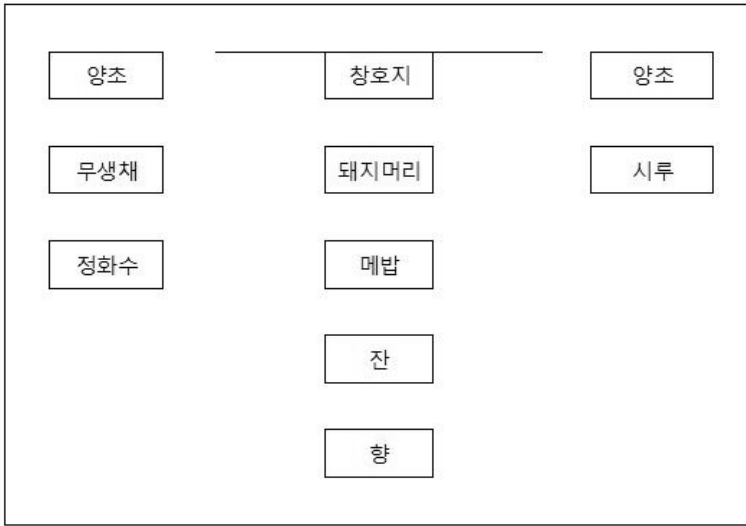
제물을 씻거나 제사에 쓰이는 음식 손질은 모두 제당 옆의 계곡물로 하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매화동 마을제사는 산신제와 서낭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물준비는 따로 하지 않고, 산신제 지낼 때 쓰인 제물을 그대로 챙겨서 서낭제에도 쓴다고 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 마을제사에 쓰인 제물 구입비용은 주민들의 협조로 장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장부에 기입된 2010년 마을제사의 제사 비용과 제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량	금액(원)
팥시루 수공	1말	25,000원
참쌀	1되	3,000원
돼지	1마리	390,000원
망, 숯		26,000원
초지	2권	2,000원
문창호지	3장	900원
양초	1갑	3,000원
끈	1개	3,000원
향	1통	1,000원
막걸리	2병	3,000원
소주	1 box	17,000원
나무젓가락	3단	3,000원
종이컵	1줄	1,000원
합계		477,900원

〈제물배치도〉



④ 제수준비

2010년 음력 9월 9일(10월 16일) 매화마을 산신제와 서낭제는 9시 30분에 시작했지만, 제사 준비는 오전 7시에 시작했다.

메밥을 짓고, 돼지국밥을 만들기 위해 물을 올리고 남자들은 돼지를 가구별로 일정한 양으로 분배해서 봉지에 담아둔다. 이것은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다.



제사 준비를 하는 마을 어르신들

남자들은 주로 돼지 손질과 창자손질, 제당 주변의 청소나 정리를 한다.

그 사이에 여자들은 밥과 국을 준비하고, 음식재료 손질을 맡아서 한다.

창자 손질 할 때는 얇은 나무를 창자에 끼워 창자안의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사용한다.

마을제사는 매화동 마을의 전통문화이자, 마을 잔치이다. 아침 일찍부터 모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제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산신제와 서낭제가 끝나면 다 함께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면 담소를 나누고 한바탕 잔치를 연다.

⑤ 금기방법

제관과 도가의 금기는 선정된 날부터 진행된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생기가 좋은 사람을 제관과 도가로 선정한다.

제관과 도가에 선정되면 부부관계를 금해야 한다. 이러한 금기는 인제군과 다른



산신제를 올리는 장면

지역의 마을제사에도 등장하는 공통된 특징이다.

이밖에도 제사 전까지 항상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상가 집에 출입하거나 피를 봐서는 안 된다.

제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제군 관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여자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매화동 마을제사에는 여자도 참여해서 제당 근처에서 함께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진행을 구경하기도 한다. 다만 배례를 하거나 잔을 올리지는 않았다. 누구나 제사 당일이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사에 참여해

서 제를 올리고, 함께 식사를 한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매화동 마을제사는 크게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사의 준비, 제사의 진행, 제사 후 잔치가 그것이다. 제사의 준비 과정에는 제관과 도가를 선출하고, 제물을 구입하며, 산신제와 서낭제를 지내는 날까지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킨다.



산제당에 제물이 진설된 모습

제사는 제물 올리기, 축문 읽기, 소지 올리기의 순으로 진행되며,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서낭제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한다. 산신제와 서낭제는 전체적인 제사 진행은 비슷하지만 서낭제에서는 축문을 읽거나,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제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제물로 썼던 음식들과, 돼지고기, 국밥, 떡, 김치, 술을 가지고 마을 잔치를 벌인다.

㉠ 제사 준비

마을제사는 옛날에는 정월에 날을 받아서 지냈다고 한다. 정월에 마을제사를 지낼 때는 눈이 많이 오고, 쌓이기 때문에 도가집을 하면 무척 고생이 심했다. 도가집 남자 혼자서 산제당과 서낭당 주변의 눈을 다 치워야 했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년 음력 9월 9일로 날짜를 정해서 마을제사를 지낸다.(박운일)

제관은 생기 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세 사람을 뽑는다. 제관은 공양주 1명, 축관 1명, 제관 2명으로 구성된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 축관, 공양주의 모습

제관으로 뽑히면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데 부부관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살생을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제사 전에는 목욕재계를 하고 제사 당일에는 평상복 중에 깨끗한 옷을 입고 제사에 참여한다.

제물은 마을제사 전날에 도가를 맡은 반장이 장을 봐온다. 제물로는 마리, 무생채, 시루, 메밥 등을 올린다.

제비는 마을 주민들끼리 일정 금액씩 모아서 마련하기도 하며, 마을운영비로 제물을 구입할 때도 있다. 마을 운영비로 제사를 준비할 때는 소지 올릴 주민들만이 소지 값으로 5천원을 낸다.

제물 준비는 아침 일찍부터 이루어진다. 남녀 모두 일찍부터 제당 옆에서 음식을 손질하고 제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 제사의 진행

산신제는 제물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물 준비를 모두 끝내고 오전 9시 30분에 산신제가 시작되었다. 산신제가 시작되면 우선 제단 양쪽의 양초에 불을 붙이고, 제당 양쪽의 돌에 나뭇가지를 고정시켜서 한지를 매단다.

제물 진설을 마치면 축관, 공양주, 제관 모두가 함께 배례를 하고, 제관2명이 잔을 올린다.

제관의 배례가 끝나면 축관이 축문을 읊는다.

축문을 다 읽고 나면 제관들은 일어서서 다시 절을 올린다. 그 사이에 공양주는 소지를 준비한다. 소지는 제관 중 한 명이 마을대표로 마을소지를 올린다. 이 때 소지 축원을 한다.

마을소지가 끝나면 개인 소지를 올린다. 개인 소지는 소지값을 지불한 마을 주민의 명단을 적어서 차례대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축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남 1리 사는 ○○○ 씨 소원성취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소지를 올릴 때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제당 근처에 와서 함께 구경하고 염원한다. 소지가 잘 올라가는지 잘 타지 않는지는 주민들에게는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주민들 모두 소지 태우는 것에 집중한다.



제관 강영철, 황선행 제보자가 배례하는 모습



소지축원을 읊고, 소지를 올리는 모습

소지가 잘 타서 올라갈 때는

“야 이거 소지가 잘 올라 가는거 보니 내년에 돈도 많이 벌고, 소원 이뤄 지겠구만!”

등의 이야기를 서로 해주며 격려한다.

소지를 올리고 나면 다 같이 절을 하는 것으로 산신제는 마무리된다. 산제당 바로 옆에는 작은 돌로 만든 제당이 하나 더 있는데, 산신제가 끝나면 이곳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배례를 하고 잔을 올린다.³⁴⁾

산제당에서 마을제사가 모두 끝나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낭당으로 제물을 챙겨서 이동한다.

메밥을 제외하고는 산신제에 쓰인 제물을 그대로 챙겨서 사용한다. 서낭나무 아래의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나무에 끈을 매달아 한지를 건다.



서낭나무 아래에 제물을 진설한 장면

서낭제를 지낼 때는 축문을 읽거나 소지를 올리지는 않는다. 제관은 제물이 진설되면 배례를 하고 잔을 올린다.

서낭제의 절차는 간단했다.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돼지머리의 귀부분을 조금 잘라 서낭나무 예단 줄에 매달았다. 마리 귀를 매다는 이유를

³⁴⁾ 이 제당의 형태는 매화동 산제당과 같은 형태로 지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간소하게 제를 올리는데 이유를 묻자, 방태산 산신령님 아랫대에 있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문자, 고시례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㉞ 마을잔치

서낭제가 모두 끝나면 마을 주민들은 잔치를 벌인다. 마리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부분을 제외하고는 함께 구워먹는다.

밥은 넉넉하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오전부터 국밥을 끓여 따뜻한 국물까지 함께 준비했다.

주민들은 제당 앞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깔개를 깔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준비된 음식과 술을 먹으며 한해의 마을제사를 마무리한다.



㉟ 축문

축문은 옛날에는 한자로 되어 있었지만 마을에 한자를 이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축문을 한글로 옮겨 적어 사용하고 있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축문과 소지축원을 하며, 서낭제에는 축문을 옮겨나 소지축원을 하지 않고, 배례와 잔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매화마을의 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신당축문〉

유세차 해동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1리 매화동에
 거주민 일동은 이천십년
 경인년 9월 9일(기해)일에
 방태산 산신령님 전에 온갖 정성을 모아
 (김만준)씨를 거주인의 대표로하고
 (강영철, 황선행) 두 사람을 제관으로 하여
 진매와 시루메떡 제주를 차려놓고
 정성을 드리오니
 현명하신 산신령님 께서는 이
 미련한 인간들을
 초지한장을 가려놓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라
 잘하는 일은 적사옵고 못하는
 일은 많사오니
 상통천문하고 하달지리 하시는
 방태산 산신령님께서는 놀러
 짐작하시옵고
 흐린 부정 맑은 부정은 물알로
 소멸하시고
 이 정성을 즐겁게 받으시고
 우리 동중 주민은 남녀노소 대소인 할것없이
 산에가면 산모망 들에가면 들소망 만 오복으로 점재하시고
 고뿔 몰살이며 관제귀설 같은 액운 등
 다 저 산 밖으로 몰아내 주시고
 일년이면 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이 다 가더라도
 하루한시 같이 웃음으로 영화를 받도록 점재하시고
 입은 덕은 많사오나 새로 새덕을 입게 해 달라고
 이 정성을 드리오니 소지로 드린정성 대대로 받으시고
 대대로 드린정성 즐겁게 받으시고
 매화동에 소원성취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만 봉축 하나이다.



축문을 읽는 모습

〈소지축원문 산신당 흠양소지〉

방태산 산신령님께서 금일 정성을 즐거이 받았다 하옵시거든
 소지 한 장이 상비 상천하시옵고 그렇지 못하다 하옵거든
 자국 낙점을 뚜렷이 주셔야 모르는 미천한
 인간이 알겠사옵니다.

금일 매화동 중 정성을 대표로 하는 (김만준) 상당부하시고
 하술처자 하면서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이 다 가더라도
 하루 한시 같이 년년 일수를 식혀주신다 하옵거든
 소지가 상비상천하시옵고 그렇지 못하거든 자국을 남겨 주옵소서.

(4) 영험담

매화동 마을에는 머느리들이 잘 들어온다고 한다. 사치스럽거나 놀음을 좋아하지 않고, 착하고 참하다. 동네 어른들은 그 이유가 방태산에 제를 잘 올리고 정성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복녀)

매화동 주민들은 방태산을 등산할 때 주로 상남면 미산리나 기린면 방동리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방태산은 마을제당이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야 그 산이 바로 진짜 방태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매화마을에는 방태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다.



〈배 닿은 돌〉

예전에는 매화마을이 바다였다. 마을제당이 있는 곳에서 30분가량 올라가면 예전에 배를 묶어 두었던 배 닿은 돌이 있다. 방태산은 해발 1400m가 넘는 산인데 거기에 배를 고정시키는 돌이 있고, 거기가 육

지였다. 그곳은 아주 넓고 평평하다.

배 닿은 돌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맑은 날에는 동해바다도 보인다.

(박운일)

〈방태산 호랑이〉

예전 노인들은 방태산에서 호랑이가 자주 내려와 사람들을 물어가기도 했다. 방태산을 통해 상남미산리나 양양으로 갈 수 있다.



마리를 주민들에게 나누기 위한 봉지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제사의 운영은 마을운영비나 주민들의 소지 값을 가지고 제비를 구입한다. 소지 값은 보통 5천원으로 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마을제사에는 마리를 포함해서 제사 비용이 약 50만원 가까이 지출했다.

결산은 가을에 마을 총회를 할 때 그 때 반장님이 제물 구입과 제사를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알린다.

3) 마을제사의 특징

매화동 마을제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다. 특히 제사 당일에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마을제사에 참여한다.

2010년 음력 9월 9일 마을제사에는 마을 주민 대략 30명 정도가 참여했다. 마을제사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매화동에 이주한 사람들도 마을제사에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매화동 마을제사는 그 전통이 무척 오래됐다. 박운일 제보자의 얘기로는 어렵잡아도 100년은 된 것 같다고 한다.

4) 2010년 음력 9월 9일(양력 10월 16일) 마을제사 참관기

하추리 마을제사가 끝나고, 하남1리 전정봉 이장님과 통화를 하고 하남1리로 출발했다. 제사는 10시경에 시작할 것 같다고 했지만, 제사 준비 과정을 조사하고 싶은 마음에 8시 30분쯤에 마을제당에 도착했다.

한번 조사를 했던 마을이라 마을제당까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필자가 제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주민들 일부가 먼저 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조사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김만준 반장님이 반갑게 맞이해주셨다. 반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도가를 맡는데 이번에 도가를 맡아서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국밥에 넣을 돼지고기

젊은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청소를 하며, 마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 마리는 통돼지를 구입해서 제사가 끝난 후 구워먹을 것과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 줄 것을 구분해서 손질한다.

한쪽에서는 여자분들이 국과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손질된 돼지 일부분과 뼈, 각종 채소를 손질해서 국밥을 만들고 있었다.

산제당 옆의 신목은 소나무이다. 수령은 300년은 넘는 것으로 마을 사람

들은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수해로 인해서 뿌리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물살에 흠이 많이 떠내려가서 뿌리의 50% 정도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산제당 옆의 신목,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

주민들은 필자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신목이 흑시

나 물살에 또 다시 피해를 입으면 그 때는 복구하기가 아예 어려워질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주민들은 이 소나무의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기자도 와서 촬영을 해 갔다고 한다.(진정봉)

사실 필자가 인제군 관내의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제당이나 신목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2006~2007년의 수해로 신목이 잘리거나, 당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이번 인제군 마을제사에 대한 조사가 제사의 유무를 확인하고,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제군 관내의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11. 기린면 진동1리

상치전골 서낭제



상치전골 남 서낭당 모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8월 21일 13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상치전골 서낭당, 박상춘 제보자택,

제보자: 박상춘(남,46) 인제군 기린면 진동1리, 이장.

엄만수(남)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진동리는 당초에는 홍천군 신남면 진동리에 속하였다가 1954년 인제군 기린면에 편입되었다. 진동리라는 지명 이름은 1916년 신전리, 치전리, 문현리를 병합하여 옛 기린현의 동쪽에 있다하여 진동리라 하였다.

진동리는 마을 좌우측이 산으로 둘러 싸인 전형적인 강원도 전작형태의 농업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또한 인근에 방태산 자연휴양림과 마을 입구에 방태산 상류인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으로 양양군 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 앞 진동계곡은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데, 이곳에는 쉬리, 피라미, 꺾지, 메기, 열목어 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한다. 그리고 마을에 전문적인 숙박시설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진동리를 찾는다.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이



진동 2009년 산나물축제 행사장 입구

것들인 진동계곡마을은 논(畓)이 지역특성상 없으며, 밭(田)이 대부분이다. 찰옥수수, 감자, 콩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기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부가공공장은 이곳의 콩을 수매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봄이면 진동리 일대 야산은 두릅·누리대·곰취·나물취·산마늘 등 야생 나물밭이 된다. 특히 곰취는 밭에 밍글 정도라고 한다. 물론 야생 산나물 밭의 외부인 출입은 금지된다. 산도 나물밭이요, 들도 나물밭이다. 주민들 대부분이 비닐하우스와 밭에서 농약을 치지 않고 나물을 키운다.

산과 들이 나물밭으로 바뀐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진동리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골짜기의 마을, 오지마을 등으로만 인식돼 왔다. 그러나 주민들이 산나물 판로에 변화를 꾀하면서 매년 5월



정월대보름에 마을회관에서 하는 안녕기원제 모습

에 ‘산나물축제’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깨끗한 산나물을 직접 채취하고, 맛을 느껴보고 구입하기 위해 진동리 마을을 찾게 되면서 명품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박상춘 제보자에게 진동리 마을의 지명유래와 전설에 대해 묻자 다음과 같이 제보했다.

갈터 : 풍바치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100여년전 동지사 벼슬을 한 전씨가 이곳에 살았는데 자선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았는데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녀 봐도 갈 곳은 이곳 밖에 없다고 하여 갈터라 하였는데 한문으로 표기가 어려워 갈자는

추(秋)자로 하고, 곳은 터라 해서 대(垓)라 했다는 설도 있다.
 콩바치 : 갈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썩이 많이 내리는 밭이 있다고 해서 썩바치라 하였는데 발음하기 쉽게 콩바치로 불려지고 있다.

상치전골 : 옷뽕바치

현재 진동1리는 가구수가 58호, 인구는 약 140명이다. 농가는 45호, 비농가 13호로 주민들의 대다수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내려와서 정착을 하거나 팬션과 같은 숙박 사업을 한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진동1리 상치전골에는 영서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부부신이 함께 있다. 동해안의 서낭제에서는 여서낭당에 할아버지서낭의 위패를 합위하여 서낭제를 거행한다. 강릉 안인진의 해랑당에는 여서낭의 위패 옆에 ‘김대부 지신위(金大夫之神位)’라는 위패를 함께 모셔놓고 있으니, 이러한 남녀신의 합위는 음양의 결합을 통해서 빚어지는 생산과 풍요를 유감 받으려는 의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³⁵⁾ 남서낭당은 상치전골 마을 입구에서 차



남서낭당의 모습

35) 이창식, 「원주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도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p.214.

로 5분정도 산기슭으로 올라가야 한다. 차에서 내려 도보로 한 200m 정도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무와 풀 사이로 서낭당이 있다.

남서낭당은 나무집 형태로 지어졌다. 나무로 틀을 짜서 집을 짓고, 서낭당 뒤편과 좌우는 돌을 쌓아올려서 막았다. 높이는 1m정도, 넓이는 2m정도 된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막았는데 산에 위치해서 그런지 나뭇잎과 가지들이 지붕을 덮고 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박상춘 제보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적어도 4~50년은 된 것 같다고 한다. 남서낭당의 내부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와 양초 2개, 한지가 걸려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다.

진동1리에는 남서낭당 가까운 곳에 여서낭당이 있는데, 위치는 상치전골 마을의 포장도로 바로 옆에 있다. 도로에서 50m정도 떨어진 산 밑에 자리하고 있다.

여서낭당의 형태는 남서낭당과 비슷하다. 좌우는 돌을 쌓아서 막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막았다.



남서낭당 내부모습

제당의 크기는 높이 70cm, 넓이는 1m 정도이다. 여서낭당의 내부에도 서낭제를 지내면서 사용한 한지들이 걸려있고, 소주도 보인다.

제단은 시멘트를 평평하게 해서 만들었다. 제당의 우측에는 산에서 계곡물이 흘러 내려온다. 예전에는 서낭제 근처에서 메를 짓고, 제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계곡물을 받아서 메를 짓고, 제물을 씻거나 정화수로도 사용했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의 날짜와 제사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최초 조사에서 박상춘 현 이장과 여서낭당 옆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은 남서낭당과 여서낭당이 있으며, 제의 날짜에 대해서도 같은 날 남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서낭당에서 와서 다시 제를 올리는 것으로 제보했으나, 과거에 이장을 맡았던 엄만수 제보자는 남서낭당과 여서낭당이 아니며, 제의 날짜도 두 곳이 다르다고 제보하였다.

제의 날짜는 최초 조사에서는 날짜를 잡아 일 년에 두 차례 1반과 2반이 함께 서낭제를 지낸다고 하였으나, 엄만수 전 이장은 골짜기 서낭당에서는 정월과 7월, 도로 옆의 서낭당에서는 음력 9월 9일에만 서낭제를 지낸다고 한다.³⁶⁾

시간은 보통 새벽 6시 정도면 지낸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예전에는 제관을 선정할 때 도가와 축관, 초헌관과 보조 몇 명으로 구성된다. 보조는 제물을 함께 나르거나 제사 준비를 함께 돕는다. 도가는 생기를 봐서 결정한다.



진동 1리 박상춘 이장

³⁶⁾ 최초 조사에서 현 이장과 여서낭당 옆에 거주하는 주민은 남서낭당과 여서낭당으로 제보를 했는데, 엄만수 전 이장은 진동1리 서낭당은 남자, 여자가 아니며, 제사 날짜도 다르다고 시종일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진동1리에서는 1반과 2반이 함께 서낭제를 지내는데, 골짜기 서낭당에서는 정월과 7월에 서낭제를 지내고, 도로 옆 서낭당에서는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고 한다. 서낭당에 대해 남서낭당, 여서낭당 이야기가 나온 이유를 묻자 그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도가가 결정되면 자신의 집에 금줄을 쳐 잡인의 출입을 엄금하고 자신도 상가집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삼간다. 금줄은 왼새끼를 꼬아 만드는데, 흰 종이를 오려 끼워 넣는다. 금줄은 도가집 뿐만 아니라 서낭당에도 같이 친다.

초헌관은 헌작을 하는 이를 말하는데 보통 마을의 어른이나 제의 절차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 맡았으나, 차츰 마을의 이장 반장 등이 헌작을 한다.

③ 제비와 제물

제사비용은 주민들에게 각 출하거나 마을 운영비를 사용한다. 예전부터 주민들이 내는 소지 값을 모아 제물을 구입했는데, 제비가 많이 모일 때는 통돼지를 잡는다.



여서낭당 모습

통돼지를 잡을 때는 몸통은 남서낭당 제사에 제물로 받치고, 머리는 여서낭당 제사에 제물로 올린다.

그 밖의 제물에는 메, 시루떡, 제주로는 소주를 올린다. 엄만수 제보자는 과일이나 북어포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④ 제수준비

예전에는 통돼지를 많이 잡아서 제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통돼지는 잡지 않고, 머리만 제물로 사용한다.

⑤ 금기방법

도가에 선정되면 금줄을 치고, 바깥출입을 자제하고, 살생을 하거나 피를 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상가집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제관은 제일까지 항상 목욕재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서낭당에 금줄을 치는데, 금줄은 원새끼에 한지조각을 사이사이에 끼워서 친다. 오래 전에는 숯과 솔가지도 꽂았다. 숯과 솔가지가 잡귀의 침입을 막는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숯과 솔가지도 꽂지 않고, 도가집에도 금줄을 치지 않는다고 한다.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서낭제가 예전처럼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한다.



남서낭당에 걸려있는 한지와 제기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의는 제관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제관은 생기를 봐서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이장과 반장이 제관을 맡는 경우가 많고, 마을 주민들 중에서 제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어른이 제관이 되어 제사를 진행한다.

제관이 선정이 되면 우선 당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제일에는 제관과 보조 몇 명이 제물을 챙겨서 서낭당에 먼저 오른다. 서낭당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청소를 하고, 향과 초를 준비하여 불을 밝힌다.

제관과 도가가 합심하여 제물을 진설하는데, 주로 초헌관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 제물 진설이 모두 끝나면 제의에 들어가는데, 일반 제사의 과정과 유사하다.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절을 하고, 초헌관이 대표로 다시 절을 올린 후, 술잔을 올린다. 그리고 나면 축관이 축원을 읊는다.

축원을 읊고 나면, 다시 절을 하고,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소지를 먼저 올린 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 소지를 올리고, 비록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소지 값을 지불한 주민들의 소지를 이어서 올린다.



여서낭당 내부에 걸려있는 한지

소지를 올릴 때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다시 소지를 올려준다. 소지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올릴 때도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소지가 잘 타지 않고 떨어지면 신령님이 정성을 잘 받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소지를 올려 소원성취를 바란다.

소지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어 당밖에서 나누고 내려온다. 이는 짐승들이나 잡신들이 먹으라고 하는 의식으로 ‘고시래’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

② 축문

축문은 따로 없고, 축원만 한다. 마을 어른들 이야기로는 예전에는 서낭제 축문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축문을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소지를 올리면서 간단한 축원으로 대신한다.

소지 축원의 내용은 소지 값을 냈거나, 제사에 참여한 사



정월대보름 안녕기원제 축을 읊는 모습

람들의 명단을 적어서 주민들의 안녕과 건강, 풍년 등을 빈다.

(4) 영험담

박상춘 제보자는 특별한 영험담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가끔 무당들이 서낭당에 찾아와서 정성을 드린다고 한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 제사는 서낭제와 정월대보름에 하는 안녕기원제가 있다. 안녕기원제는 마을운영비로 제사 준비를 하며, 서낭제는 주민들 개개인에게 각출하거나 마을운영비로 제사를 운영한다.

제사가 끝나면 이장과 반장은 제사에 사용된 비용을 결산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인 마을 회의나 행사 때 알린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진동리 서낭제는 부부신이 영서지역에는 드물게 부부신이 등장한다. 동해안은 대부분 수서낭과 암서낭(해당)이 존재하며 한 당에 공존하는 곳도 있다. 동해안에서는 여성주신과 남성주신을 배에 모시고 여성주신을 믿으면서 남근을 깎아 매달기도 한다. 동해안의 남근숭배사상은 삼척의 신남, 고성외 문암, 강릉외 안인과 안목에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서낭당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을 함축하고 있는데 진동1리 서낭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제사(童帝)는 종류와 대상에 따라 서낭제, 성황제, 산신제라고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과 질병퇴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집단

으로 지내는 제례이다.

진동리 마을제사는 대표적으로 서낭제와 정월대보름에 지내는 안녕 기원제가 있는데 이러한 마을제사는 계층갈등을 감소시키고, 마을의 사회통합을 가져오며 공동체성을 회복시킨다.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서낭제를 신성시하여 정성 들여 지낸다.

마을제사를 지금까지 지내는 이유를 묻자 마을 사람들이 서낭제를 통해서 단결과 협동을 도모하고, 마을의 구성원이란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박상춘)

주민들은 서낭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면서 마을일을 논의하고 화합을 다진다. 최근에는 진동리 마을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끼리 소통하고 '만남의 장'이라는 역할도 한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로 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주민, 또는 다른 종교적 이유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낭신을 섬기지는 않는다.



정월대보름 안녕기원제 제사모습

12. 북면 용대리

용대리 마을제사



용대리 정월대보름 달집 불 태우기 모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9월 17일 13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1리 마을회관, 김동배 제보자택, 남교역.

제보자: 전흥수(남,55) 인제군 북면 용대1리. 이장.

김동배(남,50) 인제군 북면 용대1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용대1리는 고려시대부터 영동영서를 잇는 군사행정의 통로 상에 위치했던 마을로 세종실록³⁷⁾에 남교역으로 기록되어있으며 암행어사, 전령, 조공, 조세의 운송등 숙식과 말



주민들이 복원한 남교역 모습

등을 제공하던 마을이다. 『세종장헌대왕실록』제153권 지리지,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에 남교역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감(監) 1인.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인데(烏斯回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희제현(稀蹄縣)으로 고쳐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에서 인제현(麟蹄縣)으로 고치어, 처음에는 춘주(春州)에 붙이었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붙였고,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己

37) 『세종장헌대왕실록』 제153권 지리지, 강원도 인제현 :

巳)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칭하였다. 속현(屬縣)이 1이니, 서화(瑞和; 三國史에는 禾로 되었다)는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歧縣)인데, 신라에서 치도(馳道)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서화(瑞禾)로 고쳐, 처음에는 춘주(春州) 임내로 하였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붙였다. 별호(別號)는 서성(瑞城)이라 한다. 소(所)가 1이니, 이포(伊布)이다. (예전에는 春川에 붙였었는데, 순조 6년 갑진에 함께 來屬시켰다)

북룡산(伏龍山; 현의 북쪽에 있는데, 현의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양(襄陽)에 이르기 41리, 서쪽으로 양구(楊口)에 이르기 27리, 남쪽으로 홍천(洪川)에 이르기 32리, 북쪽으로 간성(杆城)에 이르기 69리이다.

호수(戶數)가 1백 25호요, 인구가 2백 단(單) 7명이며, 서화의 호수가 72호, 인구가 1백 9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69명이고, 선군이 4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박(朴)·허(許)요, 망성(亡姓)이 2이니, 조(曹)·손(孫)이며, 서화(瑞和)의 성이 1이니, 최(崔)요, 망성(亡姓)이 4이니, 현(玄)·이(李)·곡(谷)·소(邵)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1천 2백 33결(結)이요 (논이 겨우 14결이다), 토의(土宜)는 조·피·팥·보리·뽕나무·삼·배·밤이다. 토공(土貢)은 꿀·밀[黃蠟]·자석(磁石)·갓·오배자(五倍子)·석이·느타리·지초·칠·사슴포·여우가죽·삿갓·가죽·노루가죽·곰가죽·돼지털·곰털·시우쇠요, 약재(藥材)는 복령·오미자·승검초뿌리·인삼·바디나물뿌리[前胡]·함박꽃뿌리[芍藥]·나팔꽃씨[牽牛子]·쥐꼬리망초뿌리[秦艽]·북나무진[安息香]·백교향(白膠香)·산무애뱀[白花蛇]·산양이뿔[羚羊角]·웅담(熊膽)이다.

한계산 석성(寒溪山石城)이 2이니,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上城은 둘레가 7백 29步이며, 한 샘이 있는데 가물면 마르고, 下城은 둘레가 1천 8백 72보이며,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한 작은 냇가 되었는데 잘 마르지 아니한다) 역(驛)이 4이니, 부림(富林)·마노(馬

奴) · 임천(臨川) · 남교(嵐校)이다.(위의 두역은 모두 서화에 있다)

한양, 개성에서 인제현-남교역-셋령-양양현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로, 요충지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으며 1916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용대1리로 개칭 되었다.

용대리에는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지가 있어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이 마을을 찾는다. 특히 12선녀탕은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설이 있어서 옮겨 본다.

남교에는 태초에 열 두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기위해 천하를 모두 찾아보고 옥황상제에게 만천만산만하에 이곳 탕이 있는 곳이 제일이라 아뢰고 승낙을 얻어 열 두명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하던 곳이라 하여 12선녀탕이라 칭하고 있으며 이 골짜기를 탕수굴이라 불리어 왔다.

현재 많은 등산객이 이르길 8탕 8폭이라 하고 있으나 오랜 옛 어른들의 구전에 의하면 작은탕까지 모두 12탕 12폭이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6.25 동안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계곡은 여인들이 들어가면 천지개벽이 일어 재앙이 일



12선녀탕 모습

어나기 때문에 계곡입구부터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동란 이후 수복이 되면서부터 등반객 출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으나 그 때문인지 큰 사고로 조난되어 숨진 이들이 많다. 이는 인제 8경의 하나로 경치가 가히 절경이며 어느 명산 계곡과도 견줄 수 없는 계곡과 폭포와 탕의 조화가 일품이다.(전홍수)

용대리 전홍수 이장님은 용대리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의 제사와 각종 행사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이 있다며 꼭 넣어달라고 해서 조금 기재하고자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 마을의 전통문화

○ 유형문화재 : 백담사, 영시암, 봉정암, 오세암, 만해마을



○ 산신제 (음력 3월3일, 9월9일) 해당 산신께 제사



○ 마을 무연고 공동묘지 벌초행사 및 토지 기증자 추모제



○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 마을 기원제 : 마을주민 안녕 기원제



- 민속놀이(풍물놀이, 달집태우기, 망우리돌리기,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찹쌀떡치기, 제기차기 등)



2) 마을제사의 내용

용대1리에는 산신제나 서낭제 외에 재산을 기증한 꼬부랑 할머니대한 제사, 무연고별초와 같은 독특한 제례의식이 있다. 다른 지역과 다른 용대1리만의 마을제사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

다.

그래서 용대리 마을제사는 무연고별초, 꼬부랑 할머니에 대한 제사,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와 안녕기원제, 서낭제까지 총 네 개의 마을제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무연고 별초

용대리에는 약 210기 정도의 주인 없는 공동묘지가 있다. 이 중 주인을 찾은 7기를 빼면 아직도 대부분의 묘지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연고 별초를 하는 마을주민들

용대리는 38선 이북의 수복지구로 마을주민들은 이 공동묘지의 90% 이상이 강제월북 또는 6.25 전쟁 시 사망한 사람들의 무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묘지 주인을 찾지 못하다보니 공동묘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묘지자체가 임야화 되었다. 그런 상황을 주민들이 이 공동묘지의 역사도 우리 마을의 역사라고 여기며 마을의 가을 정례행사로 별초를 하고 제를 올려주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가을에 청·장년을 주축으로 별초를 하고 제를 올리는 데, 벌써 13년째를 맞이했다.

무연고 별초행사는 용대리 마을의 안녕과 번창을 기리는 취지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노력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무연고 별초행사의 절차는 별초를 하기 전에 술·과일·포를 놓고 예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별초행사는 용대리 마을의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참여한다. 210기의 묘를 다 별초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참여하는 마을주민은 평균 40명 정도 된다고 한다.

별초는 주인 없는 묘지 외에도 마을에 재산을 기증한 사람의 묘역도 함께 별초한다. 별초의 시기는 추석을 전·후로 이뤄진다.

별초가 끝나면 주민들 모두 모여 주인 없는 묘를 위해 공동 제사를 올린다. 제사 절차와 제물은 서낭제나 산신제와 비슷하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사과, 배, 북어포, 소주, 산자 등을 올린다. 제비는 마을운영비를 사용해서 제물을 구입하고 제사준비를 한다.

2010년 무연고별초행사에는 총 5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별초 전 예를 올리는 모습



별초가 끝난 후 공동제사를 올리는 모습



(2) 꼬부랑 할머니에 대한 제사

꼬부랑 할머니제사는 30여 년 전 마을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분이 당신의 전 재산을 마을에 기증하고 사망하셨는데 꼬부랑 할머니의 그 뜻을 보전하고 기리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꼬부랑 할머니 묘지에서 벌초를 하는 모습

꼬부랑 할머니의 기일인 음력 11월 22일에 맞춰서 경로당과 할머니 묘지에서 마을주민들이 모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제사 음식 준비하는 모습



노인회장님이 잔을 올리는 모습

꼬부랑 할머니는 30년 전에 평생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마을에 기증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마을에서 주관하여 고인의 뜻과 좋은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올린다.

제사 당일이면 노인회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를 올리는데, 제비는 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제물로는 밥과 탕국, 부침개, 각종 전과 나물, 생선, 강정, 과일 등의 일반적인 차례상과 비슷하다.

꼬부랑 할머니 제사는 경로당과 묘지에서 두 번 지낸다.

제를 올리는 순서는 제사장인 노인회장이 향을 피우고,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삿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두 번 절한다. 경로당에서는 모삿그릇에 나누어 붓지만 묘지에서는 모삿그릇 대신 땅에 붓는다.



2005년 꼬부랑 할머니 묘지제사모습



경로당 제사 끝나고 식사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일동이 모두 두 번 절한다. 주민들이 함께 절을 하고나면 제사장이 다시 술을 받아서 상 위에 올린다. 이어서 밥에 수저, 시집에 젓가락을 정돈한다.

정돈이 끝나면 다시 제사에 참여한 주민들 모두 절을 하고, 제사장은 수저를 거둔다. 밥 뚜껑이 있으면 덮고 다시 두 번 절한다. 지방을 불사르고 차례를 종료한 후 인쪽에 있는 음식부터 차례로 음식을 내린 후 함께 음복을 한다.

2010년 꼬부랑 할머니 제사는 1월 6일(음력 11월 22일)에 지냈다. 제비는 마을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총 50만원이 사용됐다.

꼬부랑 할머니제사에 쓰이는 지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顯祖妣孺人坡州康氏神位

현조비유인파주강씨신위

顯祖考學生府君神位

현조고학생부군신위

(3)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① 정월대보름의 의미

정월(正月)은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로서 그 해를 설계하고 일 년의 운세를 점쳐보는 달이다. 율력서(律曆書)에 의하면 “정월은 천지인(天地人) 삼자가 합일하고 사람을 받들어 일을 이루며, 모든 부족이 하늘의 뜻에



정월대보름에 그네 타는 모습

따라 화합하는 달”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월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쳐보는 달인 것이다.

정월대보름날을 한자어로는 ‘상원(上元)’ 이라고 한다. 상원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하나로, 삼원이란 상원(1월 15일), 중원(7월 15일), 하원(10월 15일)을 말한다. 도가에서 이 날은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때를 ‘원(元)’이라고 한다.³⁸⁾

대보름은 ‘농군들의 명절’ 혹은 ‘여자들의 명절’이라고도 부른다.³⁹⁾ 제액초복의 뜻이 강한 초초와 열나흘날의 세시의례는 이제 풍농에 초점이 맞추어진 의례로 변환된다. 대보름은 한해의 시작 특히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으로 관념된다.

38) 강욱,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 『지방재정과 지방세』 1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p.267.

39) 보름을 여자들의 명절이라 부르는 것은, 바깥 출입이 용이하지 않던 여자들이 잔치를 벌이며 민속놀이를 통해서 놀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이다.

농경민들은 생산을 하지 못했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여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농경민들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 기쁨을 농경민들은 달에게 감사드리고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대보름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봄맞이 잔치가 되는 것이다.

보름달에는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용대1리 주민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 풍년을 기원하는 풍속을 들 수 있다. 용대1리 주민들의



정월대보름에 달집 태우는 모습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은 대보름행사를 통해서 풍년을 기원한다. 이와 관련된 풍속으로는 망우리 돌리기, 쥐불 놓기 등이 있다.

㉡ 두 번째로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이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날에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더위팔기나 부스럼 깨물기 등을 하였다. 용대1리 주민들도 정월대보름날이 되면 부스럼을 깨물고, 밤에는 달보고 달집을 태우며 건강을 기원한다.

② 정월대보름 행사내용

다음의 안내문은 용대1리 추진위에서 마을주민들에게 2007년 정월대보름 행사를 알리고 초대하는 초청장과 행사 계획표이다.

초 청 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7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용대1리에서는 조상의 전통 민속놀이 계승과
고유명절의 뜻을 기리고자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을
펼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리에 함께하시어 뜻 깊은 한마당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즐겁고 흥겨운 날이 되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0 일 시 : 2007년 3월 4일 오전 10:00~

0 장 소 : 용대1리 마을회관

0 주 최 : 용대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0 행사내용 :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치기,
오곡밥, 달집태우기

용대1리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단
단장 김 동 배 배상



떡메체험 사진



정월대보름 풍물놀이 모습

◎ 2007년 대보름 행사 진행일정

구분	시간계획	행사내용	진행	비고
1	08:00-10:00	진행준비	청장년회	노인회: 연제작,새끼꼬기 청장년회: 달집준비 체험운영/준비 장소준비및 운영 부녀회: 식사,제례음식
	09:30-10:00	풍물놀이	풍물패	
2	10:00-10:30	도농교류조인식	전원	
	10:30-11:30 오후연계 희망자 체험하기	널뛰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김영철 김봉화 이중범	
3	11:30-12:30	떡메체험	손명수	
	12:30-13:30	전통음식	부녀회	
4	13:30-16:00	웃놀이 연날리기	전흥수 전춘성	
	15:00-17:00	망우리제작체험	손창수	
5	16:00-17:30	소원성취 기원문 접수	이정윤 김춘영	
6	16:30-17:30	석식(전통음식)	부녀회	
7	17:30-18:30	풍물놀이	풍물패	
8	18:00-19:00	별집불사르기 안녕기원제례식 달집불사르기	전원	
9	19:00-21:00	망우리 돌리기 체험	전원	

정월대보름 행사 중에 가장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것은 기원문을 작성해서 달집과 함께 태우는 행사이다. 주민들은 기원문과 함께 달집을 태워 보내면 소원성취가 이뤄질 것이라 믿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용대1리 주민들이 작성하는 기원문의 형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님의 庚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家內 無病長壽하고 萬事亨通하여 모든 일이
 所願成就 되기를 祈願 하옵니다. 정월대보름 남교선녀마을

(4) 서낭제

① 마을제당의 형태와 명칭

용대리 주민들은 현재도 남교리나 선녀마을 등의 지명을 많이 사용 한다. 남교리 선녀마을에는 현재 3개의 서낭당이 있으며, 각 반별로 지금도 마을제사를 지내고 있다.



김동배 제보자의 사진 제보(2009)

윗남교리 서낭골 입구에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큰 소나무 밑에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아래에 돌을 쌓아 서낭당을 만들었다.

서낭당 안에는 흰실과 한지를 접어서 걸어 두었다.

아래남교에는 탕수골의 고송(古松) 밑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다. 탕수골은 탕숫골 또는 탕수동 이라고도 하는데 지리실⁴⁰⁾ 위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의 12선녀탕을 의미하는 지명이다.



남교리 선교마을 정자

제당은 돌과 시멘트로 바닥과 좌우를 막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막았다. 서낭당 내부에는 나무로 틀을 짜서 한지와 실을 걸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의 서낭당은 탕수골에 있다고 해서 탕수골 서낭당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정자문⁴¹⁾ 마을에도 서낭당이 있다. 정자문 마을의 서낭당의

40) 남교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약 5km에 달한다.

41) 남교리 서남쪽 북천(北川)가에 있는 마을로 강가에 정자가 있었고, 길옆에는 열녀정

형태 역시 윗남교리, 아래남교 마을의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돌을 사용해서 좌우 벽을 만들고, 함석으로 지붕을 덮은 형태이다.

② 제의날짜와 시간

용대1리 서낭제는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 차례 지낸다. 제사 시간은 오전 일찍 서낭당에 올라서 제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강원도의 산신제나 서낭제에 관한 연구 중 그 시기가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치른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⁴²⁾ 지금은 봄 또는 가을에 한 차례만 제를 치르는 지역도 예전에는 2회가 원칙이었다고 한다. 인제군 북면 용대1리 선녀마을도 오래전부터 1년에 두 번 마을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왔다.

삼월 삼진날과 중앙절은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고유 명절의 하나이다. 삼월 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명절로써,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뱀이 동면에서 깨어나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라고도 한다. 특히 경북 지방에서는 삼월 삼진날 뱀을 보면 운수가 좋고, 또 흰나비를 보면 그해 상을 당하고, 노랑나비를 보면 길하다고 한다. 이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며, 집안 수리를 한다. 아울러 농경제(農耕祭)를 행함으로써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삼월 삼진날 만들어 먹는 화전

문과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와 정려문 모두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최근에 마을주민들이 정자를 지명유래에 맞게 새로 복원했다.

⁴²⁾ 3월 삼진날. 산에 불공드리러 간다. 9월 중앙절에 서낭제를 지내는 동네가 많았다. (김의숙·전상국, 『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 국학자료원, 1997, pp.400~401.

특히 주민들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접고 휴식을 취했던 긴 겨울이 끝나고, 씨앗을 심고, 농사를 시작하는 봄을 알리는 삼월 삼짇날과 한해의 농사의 결실을 맺는 가을의 중앙절



남녀모두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서낭제를 올리며 풍년과 안녕을 비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③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과 도가는 생기 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과 도가는 보통 제사 일주일에 선출한다.

제관으로 뽑히면 몸가짐을 바로 하고, 부부관계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제일까지 부정한다고 해서 상가 집에 출입하거나 피를 봐서는 안 된다. 항상 목욕제계를 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④ 제비와 제물

제비는 주민들에게 각출해서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마을운영비로 제물을 구입하거나 제사 준비를 하기도 한다.

제물은 제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통돼지나 소를 잡아서 머리는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제사가 끝난 후 주민들끼리 함께 구워먹고 나눠 가지기도 하며, 최근에는 통돼지를 잡기 보다는 돼지머리를 구입해서 제물로 올리고, 각종 과일과 제주, 북어포, 메 등을 올린다.

⑤ 제의절차

용대1리 주민들은 음력 3월3일과 9월 9일에 서낭제를 지낸다. 서낭제가 다가오면 용대1리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추진단'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이 서낭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지를 올리는 모습 사진제보(2009)

제일이 되면 여자들은 주로 도가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허드렛일을 하고, 남자들은 돼지나 소등 제사상에 쓰일 제물을 손질한다. 제비가 넉넉할 때는 통돼지나 소를 잡아서 제사상에 올리고, 제비가 많지 않을 때는 돼지머리와 메, 북어포, 각종 과일만을 올린다.

제사는 오전 6시에 시작한다. 제당에 도착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물진설을 하고나면 서낭당 안에 촛불을 켜서 불을 밝힌다. 그리고 당의 안에 한지와 실을 건다.

제사 준비가 끝나면 참가자는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당 앞에 선다. 그리고 제사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재배한다. 참가자의 재배가 끝나면 제관이 재배를 하고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올린다. 잔을 올리고



서낭제를 올리는 모습 사진제보(2007)

난 후 축원을 한다.

축원은 주민들의 안녕이나 자식들의 무운장수와 입신출세를 빌고, 마을의 잡귀를 쫓아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축원이 끝나면 재배를 하고나서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참가자들 모두 재배를 하고 제물을 물린다.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용대리 남교선녀마을은 가구 수가 100호로 인구는 약 28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남교리 선녀마을은 설악산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앞산이 설악산이며 뒤쪽으로는 향로봉 산맥의 중추인 매봉산이 있어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용대박물관 내부 모습

특히 인제8경의 하나인 12선녀탕은 용대리 마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기이한 탕들과 수많은 폭포는 절경을 이루고 있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코스로 유명하다.

용대리 마을은 설악산과 12선녀탕과 같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마을이다. 마을의 지명유래와 전설, 마을과 관련된 역사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하고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그런 결과들로 남교역사를 복원하고, 용대박물관⁴³⁾을 개관했다.

용대1리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이 강하다. 고려시대부터 군사 행정상 영동과 영서를 잇는 요충지로 조선시대에는 남교역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는 한양과 개성에서 양양현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해 숙식과 말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매년 추석이면 무연고 벌초를 하고 마을공동으로 제사를 올린다. 마을주민 모두가 조상처럼 보살피고 있다.



용대박물관에 전시된 전통 생활용품

무연고벌초 행사를 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벌초 당일이 되면 낮과 장비를 가지고 무연고 묘소로 향한다. 용대1리 주민들의 이 같은 선행은 우리 조상들의 향약을 떠오르게 한다.



달집을 태우며 풍물놀이 하는 모습

물론 향약이 사대부층이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자치적으로 지배하는 명분이며, 일반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원칙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풍속은 서로 권장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43) 마을이 사라져가는 생활용품과 시대별로 역사적 가치와 사료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마을주민에게 기증받아 마을의 다목적 교류회관의 공간에 박물관을 설치하여 마을의 문화를 알리고 보전하고 있다.

로 도와준다는 그 내용 만큼은 품앗이와 두레와 다르지 않다.

꼬부랑 할머니제사 역시 마을에 재산을 기증한 할머니의 선행과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그 정신을 잇기 위한 행사이다.

용대리 주민들은 무연고별초, 꼬부랑 할머니제사를 통해서 협동정신을 키우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와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해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한국적인 멋과 풍류를 그려내고 있다.

13. 남면 신남1리

유목동 닭바우 서낭제



신남 1리 서낭당 모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9월 25일 13시~17시

2010년 10월 3일 14시~16시

조 사 지: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1리 서낭당, 김진태 제보자택,
함순석 제보자택.

제 보 자: 함순석(남) 인제군 남면 신남1리,
김진태(남) 인제군 남면 신남3리, 이장.
이영철(남,68) 인제군 남면 신남1리,
채해옥(여,61) 인제군 남면 신남1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신남리는 남면의 면소재지이다. 인제군의 남쪽에 있어 남면이라 하였다. 남면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옆에 닭 바위에 얽힌 전설이 있다.



신남 마을 사진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첫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흉년이 온다는 속설을 믿고 있는데, 닭 바위에 얽힌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에 김(金)씨라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에도 지나는 길손 및 손님이 20여 명씩 찾아와 문정성시(門前成市)를 이루었다 한다. 그런데 이집 며느리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기에 골머

리를 앓던 중 하루는 노승이 들려 시주를 원하니까 시주는 얼마든지 할 터이니 손님이 안 드는 묘책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노승은 앞산에 있는 닭처럼 생긴 바위를 가리키며 닭 벼슬로 보이는 곳을 도끼로 깨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느리는 즉시 도끼로 깨어 버리자 피가 흘러 내렸다고 한다. 그 후 이상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따라서 몇 해 동안 계속 집안에 번고가 생겨 김(金)씨 집안은 망했다는 것이다.



닭바위 공원에 만들어진 계암정(육모정)

특히 닭바위에는 1972년 7월 소양댐 건설로 인한 수몰로 관대리에 있던 『남북통일로(南北統一路)』, 『삼팔교(三八橋)』 석비를 이전해 놓아 행인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남북통일로 표석과 38교 표석은 6.25 전쟁이 낳은 산물이다. 남북통일로 표석과 38교 표석에 대해서는 『인제군사』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통일로 표석〉

남면 신남1리의 국도변 닭바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에서 0.6km의 지점이다.

동족상쟁(同族相爭)의 비극이었던 전쟁속물로 남아있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항상 잊지않고 남북통일을 염려한 나머지 1958년 1월 12일 제3군단 공병단이 남면 관대리 38교 부근인 삼거리에 건립하였다. 그러다 소양댐의 건설로 남북통일로라는 비석

도 안타깝게 수몰되므로 1972년 7월에 민족비극의 상징으로 분단 선상에 걸렸던 이 유물이 현 위치로 이전 하였다.

「남북통일」석비 측면에는 「제3군단장 오덕준 지휘아래 1106야공단이 건설함, 4291년 12월 미 고문단 퀴대령, 공병단장 임상철대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8교 표석〉

자유의 전리품으로 불리우는 남면 관대리 38도선에 위치한 38교는 춘성군 북산면 추전리 38교와 함께 동명이역(同名異域)의 군사분계선이던 곳, 길이 360m, 폭 7m 목조로 되어있는데 1953년 미 10군단에 의해 임시목교가 설치된 후 제3군단이 철근 콘크리트로 교각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 후 길이 196m의 조립식 교량이 가설되었다.

6.25전 까지만 해도 이곳 소양강에는 교량이 가설되지 않은 채 북의 소련군과 남의 미군사이에 충격전이 잦았다.

6.25때는 적군과 아군의 흘린 피로 이곳 소양강이 푸를 사이가 없었다.

1953년 포성이 멎고 미군들이 동원한 중장비로 가교를 건설하게 되자 근처 마을 촌어른들 사이엔 이 다리가 「도깨비다리」로 불려왔다고 한다.

소양댐의 건설로 인한 수몰로 신남1리에서 인제 쪽으로 0.5km 떨어진 국도변 닭바위에 「남북통일로」비각과 함께 나란히 이전해 놓았다.



임태이 알을 품는 형상으로 만든 석상

인제군은 닭 바위 전설에 대해 이곳 공원의 역사와 유래를 되살리고 스토리를 입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와 테마가 있는 닭 바위 공원조성으로, 공원 내에 계암정(육모정) 1동을 짓고, 석상과 문화재 및 역사문화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닭바위 공원조성은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인제군은 획일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터가 옛사람들의 전설과 흔적이 있던 곳이어서 이 지역의 역사 유래인 닭과 연계해 세웠다.

또 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적 의미들인 세시풍속, 금기, 신앙, 음식문화, 문화작품 등 책자형태의 안내판을 설치해 옛 조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하였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가 신남리에 간 것은 2010년 9월 25일과 10월 3일이다. 9월 25일 오전 9시에 신평리 마을제사를 조사하고, 바로 신남1리 마을제당으로 가기로 했다. 신남1리 이장님과 약속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만나보지 못하고, 전화와 마을 주민에게 물어 서낭당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서낭당은 남면 면사무소 옆길로 3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우측으로 포장된 언덕길 있다. 그 길을 따라서 200m 정도 올라가면 있다.



서낭당 아래집에 사는 이영철 제보자

서낭당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하고 있던 중 서낭당 옆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서낭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도가를 항상 맡아온 이영철 씨 부부를 만난 것이다.

이영철 씨 부부와 밭에 앉아서 신남1리 서낭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었다.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물었다. 그리고 축문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신남리 마을제시는 서낭당과 달맞이봉 두 곳에서 지낸다. 그 중에 서낭당은 면사무소 옆 길을 따라 3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 우측으로 경사가 제법 급한 포장도로가 보인다. 그 도로를 따라 200m 정도 올라가면 산 밑에 서낭당이 있다. 이 골짜기를 일제시대에는 느릅나무가 많다고 해서 ‘느릅배기’라 불렸으며, 최근에는 유목동이라고 한다.



서낭당 내부에 있는 제기와 풍물악기들

김진태 제보자에 의하면 서낭당은 처음에는 현재 신남저수지에 추가집 형태로 지어졌고, 옆에는 소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서낭당에 와서 서낭제를 지내고, 소나무 아래에서 풍년제를 지냈다. 그러다 6.25 전쟁 시기에 신남리 일대는 인민군 통치를 받았는데 그 때 인민군들이 서낭제를 믿지 않고 불필요하다며 서낭당을 파괴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풍년제는 지내지는 않고 있으며, 서낭당만 다시 지어 서낭제를 지내왔다. 이마저도 6~7년 전에 신남저수지가 생기면서 보상금으로 받은 400만원과 당시 면장이 100만원을 기부해서 현재의 위치에 새롭게 서낭당을 지었다.(이영철)

서낭당은 시멘트와 벽돌로 만들어졌다. 지붕은 판넬로 덮었다. 서낭당은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튼튼해 보이고 제단도 잘 갖춰져 있다. 당의 크기는 높이가 2.5m, 넓이가 3m 정도 된다.

제당 안에는 80cm 정도 높이의 제단이 있다. 제단 위에는 서낭제에 사용되는 제기들이 놓여 있다. 제단 위에는 줄을 매달아 실과 한지, 오색천을 걸

수 있도록 했다.

오색천은 귀신을 퇴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쓰이는데, 임동권 씨는 『민속상으로 본 색채관』이라는 책에서 귀신 퇴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첫째, 귀를 적대시해서 공격 위협자상 봉박에서 구축하는 적대적 방법과 둘째, 귀신의 위력에 굴복되어 타협적인 가무와 공물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김진태)

로써 공손히 접대하므로 물러가게 하는 타협적 방법과 셋째로 주문·주부·약물등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구축하는 외타적 방법과 넷째로 귀신의 성정을 이용하여 그가 혐기하는 색채, 향취, 촉감, 광명 등을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후퇴 하게하는 혐기적 방법이 있다.⁴⁴⁾

귀신의 속성은 음성인 까닭에 남성보다 여성에 부착하는 수가 많고 밝은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고 굶은날 또는 안개가 짙은 날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귀신의 출현에 대적할 수 있는 상대적인 방법으로는 필연적으로 귀신의 속성인 ‘음’과 대적할 ‘양’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도기집을 오래한 채해옥 제보자

그 방법의 하나인 ‘양’의 성질을 가진 ‘붉은색’, ‘청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으로 오색천을 서낭제 주변에 걸어서 강한 양성을 띄게 되어 귀신을 쫓고 복

44) 임동권, 『민속상으로 본 색채관』, 현대문학 18·19권, 1956, p.89.

을 불러오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 선인들의 지혜이자 신앙이다.

제단 위에는 서낭신과 말이 그려져 있는 탕화가 있다. 서낭신과 말이 같이 있는 이유를 묻자, 이영철 제보자는 예전부터 이 곳 서낭은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서낭신과 말이 함께 있다고 한다.



서낭당 안에 서낭신과 말이 그려진 탕화

서낭당 탕화에 서낭신과 말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은 강릉단오제 ‘대관령국사성황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일하며 단오제 행사를 준비하고 진

행해봤는데 이 때 탕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민간에서 산신은 호랑이를, 서낭신은 말을 타고 다닌다고 믿는다. 호랑이와 말이 신의 사자인 것이다. 그런데 말이 호랑이를 물리쳤다. 산신의 상징인 호랑이가 서낭신의 말에게 졌다는 것은 기층민들의 신앙체계가 산신에서 서낭신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산신은 천신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서낭신은 마을의 수호신이다. 대관령국사성황당에 있는 탕화에는 서낭신과 호랑이, 말이 함께 그려져 있다. 강릉단오제 여성국사황 신화에 국사성황이 장가를 들기 위해 호랑이를 보내 여성황을 데려온다. 국사성황은 서낭이기 때문에 말을 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신의 사자인 호랑이를 사자로 보낸 것이다.

호랑이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말은 신성한 존재였다. 신라의 혁거세와 부여의 금와왕 등 신화 곳곳에 말은 성스러운 동물로 등장한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유목동 닭바우 서낭제는 음력 1월 15일 8월 14일 일 년에 두 번 마을제사를 지낸다. 음력 정월대보름에는 유목동 닭바우 서낭당에서 먼저 서낭제를 지낸 후에 주민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는데, 오후가 되면 사물놀이도 함께 하면



서낭당 옆의 주민들이 쌓아 올린 돌탑

서 신남중·고등학교 뒤의 달맞이 봉에 올라 망월제를 지낸다.

서낭제는 보통 아침 7시에 시작한다. 서낭당 바로 아래에 살고 있는 이영철 제보자가 주로 도가가 되어 제물을 준비하고 서낭제를 진행한다.

서낭제가 끝나면 이영철 제보자 집에 주민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2010년 음력 8월 14일 서낭제에는 마을주민 7~80명이 참석해서 제를 올리고 식사를 했다고 한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서낭제와 망월제는 신남 1~4리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제사이다. 신남리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서낭제와 망월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하다. 신남리 주민들은 인제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낭당과 제사를 지낸다고 자부하고 있다.

제관과 도가 선정은 과거에는 생기를 봐서 선정했다. 특히 유목동 닭바우 서낭당이 알려지면서 많은 무당들이 제일이 되면 찾아와 주민들과 함께 정

성을 드리기도 한다.

제관은 주로 1~4개리 이장이 하고, 축관은 오래 전부터 마을제사를 진행하고 축을 읊었던 함순석 제보자가 한다. 도기는 서낭당 아랫집인 이영철 제보자가 맡는다.



신남3리 김진태 이장

특히 이영철 제보자는 닭바우 서낭제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서낭제 제비를 관리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소를 제공한다.

축관을 수 십 년간 맡아온 함순석 제보자는 축문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축문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행방이 묘연해져 축원만 대신 읊었는데, 함순석 제보자의 노력으로 축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관과 도가에 선정이 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금기와 목욕재계를 한다. 이 시간 동안은 음주를 자제하고, 부부관계도 피하는 등 부정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마을 주민들도 제를 앞두고 가축의 살생을 금하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③ 제비와 제물

마을제사 비용은 주민들의 참여로 충당하는데, 각 가정에서 성의껏 제비를 내는데 현재는 호당 5천 원씩 거둔다. 제사 비용이 생각보다 적을 때는 마을 운영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제비에 따라 통돼지를 잡아서 쓰거나 돼지머리만 올린다. 통돼지를 잡을 때는 돼지라는 표현보다는 마리라고 쓴다. 그 이유를 묻

자, 서낭신에게 올리는 제물이 기 때문에 돼지라는 표현보다는 마리를 써야 더 정성이 들어간다고 한다.

통마리를 잡을 때는 머리는 서낭제 제물로 쓰고, 나머지 부위는 남자들이 손질해서 제사가 끝난 후 함께 먹는다. 제



축관을 맡아 온 함순석 제보자

사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소지 값을 지불한 주민들의 몫을 챙겨서 나눠준다.

다른 제물로는 사과와 배 등의 과일과 메, 복어포, 떡 등을 올린다. 메를 지을 때는 절대 열어보지 않고, 넘치려고 하면 행주에 물을 묻혀서 뚜껑을 닫아준다.

술은 옛날에는 누룩과 밥을 섞어서 담가서 사용했지만, 지금은 소주를 사용한다.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는 서낭당 안에 보관한다.

정월대보름에는 서낭제를 지내고 나서 오후에 망월제를 지낸다. 망월제에 쓰이는 제물은 시루 1말, 복어포, 삼색실과 소지만 올린다.

④ 제수준비

서낭제와 망월제의 제사 비용은 주민들이 정성껏 낸 돈으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주민들 개개인 정성껏 냈지만 현재는 5천 원으로 고정시켰다.

마을제사의 제비의 관리와 준비는 이영철 제보자가 주관한다. 이영철 제보자는 오래 전부터 도가집을 맡아왔다. 제일이 되면 이영철 제보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한다.

⑤ 금기방법

제관과 도가가 선정되면 목욕재계하고 정결하게 지내야 하는데 이때 제관은 부정한 행동을 금하는 금기를 지켜야 한다. 즉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곳에 가서도 안 된다. 여기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은 피, 죽음, 부부관계 등이다. 그리고 서낭당과 도가의 집 주변에 금줄을 친다. 이것은 모두 신성한 곳임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부정한 것이나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서낭제와 망월제는 신남리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제사이다. 제비는 주민들이 5천원씩 내는 돈으로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마을운영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관과 도가는 마을제사를 지내기 일주일 전에 뽑는다.

도가로 뽑힌 사람은 서낭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금줄을 치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목욕재계를 한다.

현재는 제관과 도가를 생기에 맞춰서 따로 선정하지 않고, 고정된 사람들이 제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관과 도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없다. 제관은 신남 1~4리 이장과 이영철 제보자, 함순석 제보자가 선정이 된다.

제일이 되면 제관들은 아침 일찍 이영철 제보자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서



제관들이 서낭제를 준비하는 모습

낭당으로 향한다. 서낭당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서낭당의 안과 밖을 청소한다.

서낭당에 도착을 하면 불필요한 잡담을 금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사 준비가 이루어 진다. 청소가 끝나면 양초에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진설한다.

제의 진행은 제일 먼저 참가자들이 배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참가자들의 배례가 끝나면 1~4리 이장의 대표나 이영철 제보자가 마을을 대표해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린다.

축관인 함순석 제보자가 축문을 읽고, 마을 대표는 다시 두 번 절을 한다. 축문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소지를 먼저 올린 후, 제관들의 소지를 올리고, 제비를 낸 주민들의 개인소지를 올려 준다. 서낭제는 신남리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제사이기 때문에, 개인 소지를 올려주는데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한다.

소지를 올릴 때 잘 타지 않고 떨어지면 다시 올려준다.

서낭제가 끝나면 그 자리에 음복을 한 다음, 풍물놀이를 하고, 도가인 이영철 제보자의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곁들인 잔치를 벌이며 신명나게 논다.

정월대보름에는 점심을 먹고, 동네잔치를 벌인 후 오후가 되면 신남중·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달맞이봉’으로 풍물놀이와 함께 주민들이 함께 오른다.



2008년 망월제 모습 (사진제공 김진태 제보자)

달맞이봉에 오르면 시루 1말, 삼색 실, 북어포 등을 제물로 올리고 망월제를 지낸다. 제의 절차는 서

낭제와 같다.

제물을 진설한 후에 참가들이 절을 올린 후, 마을대표가 다시 절을 하고 잔을 올린다. 그리고 축관이 축문을 읊는다. 신남 1리 마을제사에는 서낭제와 망월제에 사용되는 축문이 따로 있다. 축문을 읊고 나면 다시 소지를 올린다.

달맞이봉에서 소지를 올릴 때는 함께 봉에 오른 사람들의 소지만을 올려준다.

망월제는 한해의 시작과 봄을 알리는 행사로 풍년제와 같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제사이다.

② 축문

신남리 마을제사에 사용되는 축문은 2개이다. 서낭제에 사용되는 축문과 망월제에 쓰이는 축문이 바로 그것이다.

축문은 한동안 전해 내려오던 것을 잃어버려서 축원을 읊었다. 그러다 축문을 찾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항상 서낭제와 망월제를 지낼 때마다 사용한다.

축문은 함순석 제보자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을제사가 다가오면 날짜를 수정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병술년 서낭제 축문

〈서낭제 축문〉

維
유

歲次丙戌正月戊午朔十五日壬申
세차병술정월무오삭십오일임신
해를 바뀌어 병술년 정월 십오일입니다.

幼學 ○ ○ ○
유학
유학 ○ ○ ○입니다.

敢昭告于
감소고우
삼가 밝게 고합니다.

城隍之神伏惟尊靈德具成矣赫臨洞口
성황지신복유존령덕구성의혁임동구
엿드려 생각하옵건대 존령께서는 덕을 갖추고, 마을입구에서 빛나게 대하니

歲久身梁人神祖和旣蒙之潭不啻萬萬
세구신양인신조화기몽지담불시만만
세월이 지나 신과 조상이 때때로 서로 만나서 화합하고

德惟新新家吉慶人人安康五穀豐登
덕유신신가가길하인인안강오곡풍등
새로운 덕을 내리시어 집집마다 길하고 사람들은 편안하고 오곡이 풍성
하게 하소서.

六畜繁盛賊人不入災難清滅明感照臨
육축번성적인부입재난청감명감조임
가축이 번성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재난을 감소하게 해주소서.

萬歲無疆物雖菲薄個個伏願講次清酌
만세무강물수비박개개복원강차청작
만세무강하시고,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물을 공경히 신에게 올리오니

祇薦于神尙饗
지천우신 상향
적지만 흠향하십시오.

<망월제 축문>

維
유

歲次戊子正月丁丑朔十五日辛卯
세차무자정월정축삭십오일신묘
해를 지나 무자년 정월 십오일 신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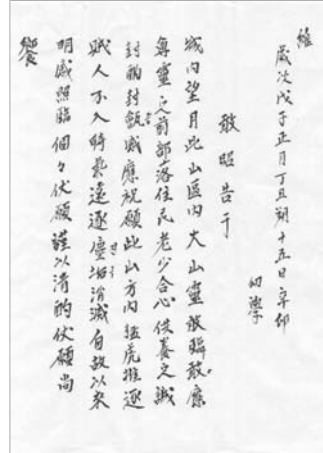
幼學 ○ ○ ○
유 학
유학 ○ ○ ○입니다.

敢昭告于
감 소 고 우
삼가 밝게 고합니다.

城內望月比山區內大山靈敢臨敢應
성내 망월 비산구내 대산령감임감응
마을 안의 비산을 다스리는 대산신령께 달을 바라보며 감히 고합니다.

尊靈之前部落住民老小合心供養之誠
존령지전부락주민노소합심공양지성
존령께 마을주민 모두가 마을을 모아 정성스레 술과 음식을 올리오니

封酌封甌感應祝願比山內猛虎追逐
봉작봉증감응축원비산대내맹호추축
민거나 비는 정성이 신령님께 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비산 안에 있는
맹수와 호랑이를 쫓아주시고



2008년 무자년 망월제 축문

賊人不入時氣遠逐塵垢消滅自故以來
 적인 불입 시기 원축진구소멸자고 이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쫓아내시고, 먼지와 때는 사라져 없어지게
 해주소서.

明感照臨個個伏願謹以清酌伏願尙饗
 명감조임개개복원근이 청작복원상향
 공손히 술을 올리오니 적지만 흠향하옵소서.

(4) 영험담

신남리 주민들은 서낭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영험담을 들려주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해를 입지 않은 신남리〉

2006년은 인제군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았는데, 신기하게 우리 마을에는 수해로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았어. 근대 어느 날 한 무당들이 와서 “여기 주민들은 치성을 잘 드리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마을주민들이 치성을 정성껏 드려서 마을이 평온하고, 수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이영철)

〈무당들의 이야기〉

우리 동네 서낭당이 유명해지면서 가끔 무당들이 와서 정성을 드리고, 서낭당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무당들 하는 말이 이곳에서 정성을 드리면,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목동 닭바우 서낭당을 찾는다고 한다.(채해옥)

이밖에도 서낭제를 지낸 후에 아들을 못 낳았던 분이 아들을 낳고, 역병이 돌아도 신남에는 역병이 안 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지극 정성으로 서낭제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제사에 대한 결산을 한다. 제비가 얼마나 모였고, 제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쓰였는지를 주민들에게 알린다. 제비가 남으면 다음 마을제사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신남리 마을제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사회적 기능을 들 수 있다. 마을 전체의 안녕과 번영, 더 나아가서 개인의 발복(發福)을 목적으로 마을제사를 올린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은 서낭제의 신성성과 마을의 대동화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다.

둘째로,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의 성격을 지닌다. 정월은 한해 12달 가운데 첫 번째 맞이하는 달이어서 한 해의 시작과 출발을 뜻한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긴 겨울의 휴식기를 마치고 새로운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게 된다. 주민들은 보름달은 생명, 생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고, 또 달의 주술력을 통해 풍년과 건강을 얻고자 했다.

신남리 주민들은 정월대보름 저녁에 달을 보고 그 해의 농사를 점치는 풍습이 있다.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들고, 달빛이 희면 장마가 들고, 달빛이 노란색을 띠면 대풍년이 든다고 한다.

14. 상남면 상남2리

용소마을 서낭제



용소마을 서낭당 모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09년 9월 22일 9시~17시

2010년 7월 24일 13시~17시

조 사 지: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 2리

제 보 자: 이철구(남, 53)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 이장.

이순구(남, 52)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

최종근(남, 63)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

최종구(남, 63) 인제군 상남면 상남2리.

(2) 마을유래와 개관

인제군 상남2리 용소마을은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30곳에 선정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농어촌 마을이다. 특히 마을 입구에 조롱박 터널길과 꽃밭을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는 등 특색 있는 고장 만들기로 여러 마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용소마을 입구의 아름다운 꽃길

이곳의 가구 수는 34가구이며, 인구는 77명 정도인데, 남자가 44명이고 여자가 33명이다. 상남 2리는 용소마을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이 마을에 용소폭포가 있기 때문에 폭포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용소마을에는 마을이름과 관련하여 두 개의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수동(嚴水洞): 용소폭포가 있는 마을로 옛날에 엄씨 형제가 이곳

에 들어와 개척을 하고 촌락을 번창시켰는데 형이 살던 곳을 상엄수동, 아우가 살던 곳을 하엄수동이라 하였으며 중간 지점에는 함정모퉁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형제들이 서로 만나러 다니는 길에 호랑이가 자주 나와 그곳에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함정을 파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소(龍沼): 상남폭포 밑에 있는 소로 옛날에 엄수동에 살던 한 할머니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내일 일찍 소로 오면 나를 볼 수 있다.” 하므로 이상히 생각하여 손녀를 앞세우고 갔는데 손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서남당 옆의 아름다운 거리

누런 구렁이가 상남 폭포를 칭칭 감고 있어 무서움에 못 이겨 상남까지 뛰어오니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고 안개가 자욱한 사이로 무지개가 서고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날이 가물 때면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냈는데 개를 잡아 피를 폭포 벽에 칠하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상남2리 용소마을은 해마다 봄철이면, 마을주민 27가구 87명이 나서 꽃길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길옆에 화단을 만들고 꽃길을 조성해서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용소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청량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 추진한 농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상남면 마의태자권역이 선정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모두 5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소마을은 마의태자유적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로 인제군과 연계해서 마의태자 전설과 연계된 마의태자비각, 열녀문 등 유적지 정비와 마의태자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을 가지

고 있다.

사실 마의태자 유적은 행정 구역상 상남면 김부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김부리 마을에 육군과학화전투 훈련단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야했다. 현재 김부리 지역에는 주민들이 단 1명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



김부리 마을 전경

훈련단이 들어선 이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다보니 김부리와 가장 가까운 용소마을에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마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제당은 마을입구에 조롱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길을 따라 약 200m 정도 이동하면 도로 옆에 바로 제당을 발견할 수 있다.

서낭당은 상남면의 다른 서낭당이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미신타파’라는 이유로 다 부서진 것과 달리 용소마을 서낭당은 온전히 살아 남아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일부 사람들의 훼손으로 파



서낭당 내부의 모습

괴되어 새롭게 나무집으로 당을 지었다. 새로 지은 서낭당 옆에는 돌로 만들어진 지당도 자리 잡고 있다.

서낭당 옆에는 큰 소나무와 그네가 있다. 주민들은 예전부터 마을제사가 끝나면 함께 음식과 고기를 구워먹으며 민속놀이를 했다. 새로 지어진 서낭당은 바닥을 시멘트와 돌로 만들고, 그 위에 나무로 당집을 만들었다. 서낭당을 새로 지어서 그런지 깨끗하고 깔끔했다. 서낭당의 높이는 3m 정도이고, 넓이는 2m 정도이다.

서낭당 안에는 성황대신(城隍大神)이라는 나무로 된 위패가 있고, 예단이 걸려 있다. 그리고 서낭당 내부의 우측에는 제당을 새로 지을 때 참여했던 마을주민들의 이름을 나무에 적어서 걸어 놨다. 마을제사에 사용되는 제기와 돛자리도 서낭당 내부에 보관하고 있다. 당의 이름은 마을이름을 따서 ‘용소마을 서낭당’이라고 한다.



용소마을 지당과 제물이 진설된 모습

서낭당 우측에는 돌무덤 형태의 지당이 있다. 마을제사는 이곳 지당에서 돼지머리를 제물로 해서 제사를 지낸 후에 서낭당에서 제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용소마을의 지당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제당의 한 형태이다. 돌무덤도 그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탑 형식의 돌무덤이 있고, 용소마을 지당 같은 형태의 돌무덤이 있다.

행인들은 돌탑 형식의 돌무덤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돌을 얹어놓고 간다. 그냥 지나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한 주술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탄생과 더불어 형성된 최초의 원시신앙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초기 원시생활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계 어디에서나 초기 원시신앙은 山, 水, 木, 石 등과 같은 자연물의 신비력을 믿는 자연신앙(自然神仰)과 雨, 風, 火 등 자연현상의 이면에 정령이 존재해 그런 현상을 조정한다고 믿는 정령신앙(精靈信仰)이 그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신앙은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영역의 분화에 조응하여 기능이 분화되고 세분화되어 갔다.

이러한 신앙현상을 서로 다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형식들의 집합이지만 오랜 시일을 지나오면서 민중들에 의해 선택되어지고 민중생활에 맞게 변형되어 수용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민속신앙을 탄생시켰다.



돌로 만들어진 지당의 모습

이것은 한 지역사회집단이나 민족의 사고방식과 신앙형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 따라서 민속신앙은 민족정신의 과거 정신사이자 세계관이며 생활방식의 틀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과거의 전승된 지식이나 민속은 우리 민족의 민속신앙에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으로서 전승문화를 연구하는 측면에서 민속신앙과 민족정서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서 발전돼 가고 있는 것이다.⁴⁵⁾

(2) 마을제사의 준비

45) 이경옥, 「민속신앙을 통한 민족정서의 재인식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철학:한국체육철학회지』 5권 2호, 한국체육철학회, 1997, pp.75-76.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상남2리 용소마을의 서낭제는 마을 주민들의 1년 동안의 건강과 복을 비는 제사이다. 음력 정월에 날짜를 받아 제를 올린다.

2010년 마을제사는 음력 1월 15일(양력 2월 28일)에 성황제를 올렸다. 제사 당일이 되면 도가집에서 아침 일찍 제물을 준비해서 성황당으로 향한다. 제사는 새벽 4~5시에 시작하는데 올해는 새벽에 시작하지 않고 조금 늦게 성황제를 지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연말 마을 회의 에서 결정한 다. 마을 성인들 중 생기 복덕이 맞고 가정과 가족원들도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명을 선정한다. 이 2명 모두 '제관'이라고 부른다.



지당에서 제 올리는 장면 (2009년)

그중 1명은 제를 주관하고 다른 1명은 보좌역할을 한다. 일단 제관으로 선정되면 제일까지 근신하면서 온갖 정성을 드려야 한다.

예를 들어 대변 후에는 엄동설한이라도 냉수로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소변 후에도 세수를 해야 한다. 또한 술과 담배를 삼가하여 몸가짐을 다듬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상, 출산이 있는 집 출입을 삼가야 하며, 구정에도 가세문안을 다녀 잡인으로부터 부정이 오염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이철구)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집집이 조금씩 각출하거나 마을의 공동경비로 사용한다. 금액은 통돼지를 쓰기 때문에 통상 40~50 만 원 정도 쓰인다.



성황당에 제물이 진설된 모습

제물로는 수돼지, 떡, 감주, 포, 적, 사과, 배 등을 올린다.

제물의 진설은 지당과 성황당에서의 제사가 조금 차이가 있다. 마을제사는 지당→성황당 순으로 제를 올린다.

지당에 올리는 제물로는 돼지머리, 떡, 메, 사과, 배, 감주, 북어포 등의 제물을 올린다. 성황당 제사에는 사과, 배, 떡, 메밥, 북어포, 감주 등은 같지만 돼지머리 대신 돼지몸통을 제물로 올린다.

돼지는 통돼지를 구입해서 제물로 사용하는데, 제사가 끝나면 주민들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돼지를 구워먹는다. 그리고 돼지의 일부는 주민 개개인에게 나눠서 지급한다.

④ 제수준비

돼지는 수돼지만 사용한다. 돼지는 부위 별로 손질해서 돼지머리는 지당 제사에 쓰이고 몸통의 일부는 성황제에 쓰인다. 나머지 부분은 구워서 먹을 것과 주민들에게 나눠 줄 것은 미리 손질해서 제사가 끝나면 지급한다.

제사의 준비와 제물 손질은 생기 복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부정이 있거나, 상을 당한 사람을 참여할 수 없다.

제가 날짜가 되면 성황당과 지당에 원새끼를 두른다. 원새끼를 두르는 이유를 묻자,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⑤ 금기방법

제관과 도가는 생기 복덕이 맞고 부정하지 않은 어른 중에서 마을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용소마을 서낭제는 마을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제관과 도가에 선정이 되면 온갖 정성을 드려서 제사에 임해야 한다.



지당에서 제관이 절을 하는 모습

제관이 되면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하며, 목욕재계하고 부부관계도 금해야 한다. 특히 상가집에 출입을 삼가야 한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사일이 가까워지면 제관들은 당에 모여 금줄을 친다. 또한 당에 가는 길목에도 금줄을 쳐서 잡인의 근접을 막는다. 집에 있는 제관의 가족들도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등 일체의 행동을 조심하며 나머지 주민들 역시 큰 소리를 삼가고, 밤에는 일찍 자는 등의 정성을 기울인다.



서낭당에서 절을 올리는 제관의 모습

성황제 당일 새벽 4~5시 정도에 제사를 지낸다. 새벽 일찍 제당에 도착하

면 제일 먼저 주변 정리와 청소를 한다. 그리고 지당에서 먼저 제를 올린다.

지당은 지역에 따라서는 ‘산제당’이라고도 한다. 지당 제사에는 축과 소지를 올리지 않고, 배례를 하고 잔을 올린다.

지당 제사가 끝나면 성황당에서 서낭제를 지낸다. 먼저 제관들이 모두 배례를 하고, 초헌관이 대표로 다시 배례를 한 후에 잔을 올린다. 이때 축관은 축문을 읊는다.

축문을 다 읊은 후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소지→제관의 소지→개인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다 타지 않으면 다시 올려준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면 참석한 주민들이 함께 절을 한다. 마음주민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당일의 일진이나 생기여부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 마을주민들의 배가 끝나면 3잔 정도를 올리고 소지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합동으로 절을 올리면서 서낭제는 마치게 된다. 서낭제가 끝나면 주민들 모두 모여 덕담을 하고 음복도 하며, 마을 잔치를 벌인다.

서낭당 옆에는 지금도 큰 그네가 있는데, 서낭당은 마을제사이면서 하나의 축제였다. 함께 정성껏 소원을 빌고, 식사를 함께 하며 마을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속놀이를 한다.



마을제당 옆의 그네와 공터

용소마을은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의 마을이지만, 인제군과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입상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명품 마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런 힘은 서낭제를 비롯한 마을행사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있는 것 같다.

② 축문

상남 2리의 축문은 상남 1리와 같은 축문을 사용한다. 축문에서 마을 이름만 바뀌어서 사용한다. 이학주 교수의 상남3리 마을제사에도 같은 축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축문의 내용이 같은 이유를 묻자, 아주 오래전에 상남에 거주했던 유생 한분이 축문을 만들었다고 한다. 학문이 뛰어나기로 소문났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 이후로 그 축문을 상남면의 여러 마을에서 사용하게 됐다고 한다.(이철구)



山神靈祝

산신령축

伏以 歲次○○年 正月 初○日

복이 세차○○년 정월 초○일

江原道 麟蹄郡 上南面 上嚴水洞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엄수동

幼學 ○○○ 敢告于

유학 ○○○ 감고우

天地之神 五岳山王
천지지신 오악산왕
八部山靈 本府山靈
팔부산령 본부산령

感應至誠諸 生等至靈
감응지성제 생등지령

奉祝人生 守之城隍
봉축인생 수지성황

大神天眼
대신천안

光明無知 大俾至靈
광명무지 대비지령

至誠感應 奉祝各室
지성감응 봉축각실

諸家 國樑否靖淸錚感應
제가 국량부정청쟁감응

奉祝伏以 一切衆生無量
봉축복이 일체중생무량

功德感應 奉祝伏願明靈
공덕감응 봉축복원명령
之下諸生等 三災九橫之厄
지하제생등 삼재구횡지역

官災口舌之厄 落木急傷之厄
관재구설지역 악목급상지역

財物失敗之厄 水火木土之厄
재물실패지역 수화목토지역

牛馬失物之厄 田畝破落之厄
우마실물지역 전답파락지역

隣里不和之厄 子孫短壽之厄
인리불화지역 자손단수지역

大林長蛇之厄 岩上山君之厄
대림장사지역 암상산군지역

上下不和之厄 夜中惡賊之厄
상하불화지역 야중악적지역

伏以神靈之下諸殺之厄
복이신령지하제살지역

海外速出至誠 奉祝天眼
해외속출지성 봉축천안

光明大慈大俾 一切衆生
광명대자대비 일체중생

無量功德 安過泰平
무량공덕 안과태평

至誠奉祝 經歲諸生
지성봉축 경세제생

流垂功德 山輕水簿
유수공덕 산경수박

天高地下明明 之位不言奉祝

천고지하명명 지위불언봉축

敢以庶羞 佛哭小饌
감이서수 불곡소찬

玄酒水飾小芬 一哭伏願
현주수식소분 일곡복원

成祝欽以 尙饗
성축흠이 상향

〈번역〉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엎드려 비옵나니. 해가 바뀌어 을사년 1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엄수동에서는 ○○○는 밝게 고향입니다.

천지신 오악산왕 팔부산령 본부산령님

감응하여 모두 이르렀고 생등에게는 존령들입니다.

우리들이 봉축하오니 성황신께서는 지켜주십시오.

큰 천안과 광명을 알지 못하고 크게 존령께 복종합니다.

지성으로 감을 바라니 집집마다 봉축합니다.

모든 집과 나라의 대들보에 조용히 감응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봉축하오니 모든 중생은 한량이 없습니다.

공덕에 감응하십시오. 밝으신 신령을 봉축합니다.

아래에 사는 모든 생등은 3재 9황의 액과

수화목토에서 우마를 잃는 액과

논밭이 파괴되고 떨어져 나가는 액과 이웃의 액과

불화의 액과 지손의 짧은 수명과

큰 수풀이 자라는 액과 뱀의 액을 엎드려 비오니

신령의 아래에 있는 모든 흉살 액을 바다 밖으로

속히 쫓아내기를 지성으로 빕니다.

받들어 천안께 축원하오니

광명과 대자대비로써 일체 중생의

해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 안과태평하게 해 주십시오.

지성으로 봉축하오니 해마다 모든 사람에게
 물 흐르듯이 공덕을 내리시어
 산처럼 가볍게 물처럼 넓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밝게 하시니
 위치하신 곳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봉축합니다.
 감히 여러 음식을 진설하고 부처님께 올면서 소찬을 올립니다.
 맑은 물과 작은 장식과 작은 향을 놓고
 한번 울고 엎드려 원합니다.
 그걸 마시도록 축원하오니
 신명께선 제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영험담

이주 오래전 용소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서낭당 주변은 모두 다 쓸려갔지만 서낭당만 살아남아서 마을주민들은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서낭제를 항상 정성을 다해 임한다고 한다. 또한 이철구 상남2리 이장에 의하면 “서낭당 옆에 물앵두나무가 있는데 속설에 물앵두나무 뿌리 중 동쪽으로 뺀 뿌리를 다려서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상남면 미산리에 사는 이기동씨가 65세에 뿌리를 다려 먹고 아들 이원섭씨를 낳았다.”고 한다.

상남2리 서낭당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다른 서낭당과 달리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그 이후에 2명의 남자에 의해 훼손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교대를 나와서 선생님이로 발령받기 전 이곳 용소마을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른 남자와 서낭당을 때려 부셨다. 그 이후에 선생님과 한 남자는 갑작스럽게 죽고, 부인 역시 정신이 나가서 선생님의 외삼촌이 서낭당을 새로 짓고 음식도 마련하여 치성을 올려 부인의 정신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민규 아버지께서 상남2리 용소마을로 이사를 와서 서낭당 바로 옆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서낭당의 기운 때문인지 돈도 많이 벌고, 집안이 화목하고 가세가 좋았지만 그 이후 자주 주변 사람들과 서낭당 주변에서 개를 잡아먹고 그래서 민규씨를 제외한 많은 친구들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확 기울었다고 한다.

마을주민들은 서낭당과 관련해서 내려오는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선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매년 정성을 다해 서낭제를 올린다고 한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마을 제사의 운영은 마을운영비나 집집마다 각출해서 사용한다. 통돼지 구입해서 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비는 대략 40~50 만 원 정도 지출한다.

마을 제사의 결산은 제사가 끝난 후 이장과 반장이 제사에 사용된 비용과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예전에는 상남2리 용소마을이 상남1리였기 때문에 단오 때도 상남의 많은 주민들이 용소마을 서낭당에 모여서 그네와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기고 잔치를 했다고 한다.



마을주민들이 함께 절을 올리는 모습

이처럼 민속신앙은 뿌리깊이 우리들 삶 속에 함께해 왔다. 순박한 사람들의 나약한 마을을 기댈 수 있는 기둥이자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일체감을 갖게 해주는 지주였던 것이 바로 서낭당이다.

비록 종교의 내용이 바뀌어서 예로부터 전승되어오던 민속 신앙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치부되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서 상남2리 주민들은 서낭당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창조하고 믿어가면서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있다.

4) 김부리 마을동제 이야기

(1) 마을공동체로서 김부리

김부리는 1916년 행정구역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인제현 남면 지역으로 『麟蹄郡史』에 의하면, 본래 김부동 김보왕촌 김보왕동 등으로 불리다가 김보리가 되더니 김부리가 되었다. 김부리는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 머무르면서 신라를 재건하고자 김부대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모집해 양병을 꾀했다 하여 그렇게 불린다고 전해지며, 10년 전만해도 이곳에는 김부대왕각이 있어 일 년에 두 차례씩 봄과 가을에 동제를 지냈다.

마의태자와 관련하여 김부리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람은 19세기 초의 유명한 실학자 이규경(李圭景, 1788~?)이었다. 그는 그곳을 ‘김부대왕동(金傅大王洞)’이라 했다고 분명히 증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것은 “인제 읍지(邑誌)에 실려 있으며 경순왕은 곧 신라의 항왕(降王)인 김부”라고 부연하였다.⁴⁶⁾ 이능화(李能和, 1869~1943)의 『朝鮮巫俗考』(1927)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다.

마의태자의 전설이 형성되고 동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인제와 김부리 지역의 인구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의 표는 인제지방의 호구 수 변천을 살펴 본 것이다.

⁴⁶⁾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제20집, 민족문화추진회, 1981, p.23.

〈표 2〉 인제지방의 호구 수 변천⁴⁷⁾

年代	戶口數	典據
1454(단종 2)	본현 125호 207인 서화 72호 191인	『世宗實錄地理志』
1760년(영조 36)	1,086호 4,411인	『輿地圖書』
1829~31년(순조 29~31)	1,119호 4,941인	『關東誌』
1871년(고종 8)	1,263호 4,071인	『關東邑誌』
1940년	12,217호 69,817인	『江原道誌』

위의 〈표 2〉를 보면 조선 초기였던 1454(단종 2)년 인제의 인구수는 197호, 398명이었는데 조선 후기인 1871(고종 8)년에는 1,263호 4071명으로 10배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더불어 1896년(병신년)8월 4일에 23부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13도로 개편하면서 이때 인제는 군(郡)으로 승격되어 현내면, 동면, 남면, 북면, 서화면 등의 5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고, 1906년 10월에는 춘천군에 속해 있던 기린면이 인제군으로 편입이 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⁴⁸⁾

보다 자세한 인제 지방과 김부리의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인제현 인구 도표⁴⁹⁾

面	戶	男	女
坊里縣內面	293	589	673
東面	91	174	320
南面	288	583	514
北面	233	405	379
瑞和面	181	294	480
합계	1,086	2,045	2,366

47)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16.

48) 『인제군사』, 앞의 책, p.154.

49) 『輿地圖書』上, 국사편찬위원회, 1978, pp.605.

위의 <표 3>은 『輿地圖書』에 나타나는 인제현의 인구 도표이다. 『輿地圖書』가 제작된 18세기 후반의 인제현의 인구는 4411명으로 남자(2045명)에 비해 여자(2366명)의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에 김부리는 남면에 속해 있었는데 남면의 인구는 총 1097명으로 인제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 할 정도로 인제에서는 규모가 큰 마을에 해당되었다. 남면의 자세한 인구는 아래 도표와 같다.

<표 4> 남면 인구 도표

理	戶	男	女
加奴村	23	46	36
藍田洞理	56	112	95
馬奴理	56	112	144
北坪理	40	86	59
沙峴理	16	32	20
於論理	15	31	27
松峴理	6	16	12
亭子幕理	17	35	24
金宝玉理	12	24	21
羅加理	12	24	20
建達理	28	46	41
頭毛洞理	7	19	15
합계	288	583	514

위의 <표 4>에서 金宝玉理(오늘날 김부리)의 인구는 12호 45명으로, 조선 후기 김부리의 인구가 45명이므로 마의태자가 경주로 이동해서 인제에 왔을 당시인 고려 초기에는 이보다 인구가 적었을 것이다. 약 10호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병사를 모으고 군량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남면 남전리에서 부족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발견⁵⁰⁾됨에 따라 선사시대부터 인제와 김

50) 한림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27.

부리 일대에는 사람이 거주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공동체 마을로써의 김부리는 조선 초기에 들어서야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형준은 우리나라 洞祭에서 역사적 인물이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나서 김부대왕은 민중의 시대적 욕구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펴지 못하고 좌절당한 요인에서 신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⁵¹⁾ 즉 김부리 지역은 조선 초기에 공동체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의 주민 구성의 변동, 생업의 변동, 마을의 권력구조의 변동 등으로 새로운 제의가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인제에 남아 있는 마의태자의 흔적을 토대로 새롭게 구성됐을 것이다.

신라를 고려에 귀부하는 경순왕의 결정에 마의태자는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忠臣과 義士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나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말 것인데 어찌 一千年 社稷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줄 것이라”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했지만 고려의 영향력이 커지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신라가 고려에 대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마의태자는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신라가 고려에 귀부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은둔 생활을 선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마의태자의 은둔 생활은 『三國史記』에 잘 드러난다. 『三國史記』에는 ‘마의태자가 신라에 병합되자 개골산에 들어가 마의를 입고 초식을 하며 여생을 마쳤다’라고 쓰여 있다.

마의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다만 전해지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을 통해서 마의태자의 이동경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충주에 남겨진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에 관한 전설은 경주를 떠난 마의태자의 전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으로 마의태자는 경주에서 계림령을

51) 윤형준, 「김부리 대왕당동제의 신격과 역사적 인물의 수용」, 『인제문화』 10, 인제문화원, 1995, p.66.

넘어 충주로 들어 온 것 같다. 충주를 지나 두 번째로 나타나는 장소는 양평이다. 양평 용문사에는 마의태자가 지팡이를 꽂아서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양평을 거쳐 인제로 들어가는 관문인 홍천에서도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데 홍천의 지왕동은 ‘왕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생겨난 지명으로 위의 유적과 전설을 통해 볼 때 마의태자는 경주에서 계림령(하늘재)까지 와서 충주를 거쳐 양평에 이른 뒤 홍천을 지나 인제에 들어 온 것 같다.

인제에는 3개면(상남면, 남면, 북면)에 걸쳐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과 지명유래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 곳이다. 옥새를 숨겨두었다는 옥새바위, 왕의 무덤이 있다는 대왕릉터, 맹장군이 병사를 모아 훈련을 시키고 군량을 모아 두었던 창고가 있었다는 맹개골과 군량리, 그리고 ‘옛 땅을 되찾자’라는 뜻의 다물리까지 인제 지역에는 유독 마의태자와 관련된 유적과 전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주에서 인제로 오기까지 남아 있는 충주, 양평, 홍천의 전설과 유적은 마의태자가 이동하면서 생겨난 전설인데 비해 인제에 남아 있는 유적과 전설은 한 동안 마의태자와 그 일행이 일정 기간 어떠한 형태로든 인제에 정착했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결국 마의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인제에 정착하였고, 그로 인해 생겨난 유적과 전설들이 조선 초기 이후에 인제군 김부리 지역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설과 지명 유래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 상남면 김부리에는 대왕동제가 전해지고 있다. 이 동제는 조선 초기 때부터 지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적어도 마을 공동체의 성격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輿地圖書』에 나타나는 김부리의 인구는 12호 45명으로 이런 사실로 볼 때 조선 초기에는 약 10호 정도의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었을 거라 짐작된다. 김부리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김부리 지역에 남아있던 유적과 전설

을 토대로 마의태자를 신격화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동제로 계승 발전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태자였던 마의태자는 옷감이 거칠고, 장례식 때 주로 입는 삼베옷을 입고 다녔다. 아마도 당시 김부리 주민에게는 태자로서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이 아닌 옷을 입으며 생활하던 마의태자의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마의태자는 김부리 주민에게 단순히 쳐다 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한 나라의 태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을의 어르신 같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인제 사람들은 마의태자가 김부리에 머물다가 신라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고 믿고 있다. 물론 마의태자가 김부리에서 적극적인 항쟁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인제 사람들에게 마의태자는 허무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개골산에 들어가 여생을 마친 나약한 태자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인물로 여겨지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⁵²⁾

52) 김선일, 「인제지방에 살아 숨쉬는 마의태자의 숨결」, 『인제문화』 23집, 인제문화원, 2008. 지금까지 김부리와 마의태자의 관련된 내용은 모두 필자의 위의 논문에서 추려 쓴 것이다.

15. 기린면 현4리

임명골 산신제



임명골 산신제 모습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9월 11일 13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 4리 임명골 산제당, 박해봉 제보자택.

제보자: 박원익(남,74) 인제군 기린면 현 4리, 이장.

박해봉(남,71) 인제군 기린면 현 4리.

(2) 마을유래와 개관

기린면 현리는 인제군 기린면의 면소재지이다. 기린면의 지명유래는 『인제군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君)의 동쪽에 위치(位置)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으로 신라 진흥왕(眞興王)(540~574) 때에는 신라의 영토에 속하였으며, 고려 시대에는 안변도호부(安邊都護



현4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 진다리 주유소

府) 춘주군(春州郡) 속현으로 기린현(麒麟縣)이라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춘주군(春州郡) 속현으로 현내동(縣內洞), 광조전(光助田), 구을정(仇乙井), 오리동(五里洞), 답동(答洞), 어리(於里), 하남(下南), 죽천(竹川), 신전(薪田), 김포(金浦), 상남(上南), 왕동(王洞), 문현동(文峴洞), 동리(東里), 방동(芳東), 북리

(北里), 치전동(雉田洞) 17개 리를 관할하다가 광식(光式) 10년 (1906)에 인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남리(上南里)의 일부를 남면(南面) 김부리(金富里)에 넘겨 주고 군내면(郡內面)의 하추동(下楸洞) 일부를 편입하여 진동(鎭洞), 상남(上南), 하남(下南), 현(縣), 서(西), 북(北), 방동(芳東), 7개 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45년 38°선이 그어짐에 따라 진동리(鎭東里)와 북리(北里)의 일부와 상남(上南), 하남(下南), 현(縣), 서(西), 방동(芳東) 5개리는 남면(南面)의 신풍(新豐), 어론(於論), 갑둔(甲屯), 신월(新月), 정자(亭子), 김부(金富), 부평(富平)의 7개 리와 인제읍(麟蹄邑) 관대리(冠垞里)와 함께 그 해 9월 18일 홍천군(洪川郡)에 편입되어 신남면(新南面)의 일부가 되었다.

1954년 수복지구 행정 이양에 따라 인제군(麟蹄郡)에 환원되어 진동(鎭東), 상남(上南), 하남(下南), 현(縣), 서(西), 북(北), 방동(芳東) 7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에는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의 미산리(美山里)를 편입(編入)시켰으며 1983년 기린면 관할이었던 상남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면서 미산리(美山里), 하남(下南)과 상남(上南)이 상남면(上南面)으로 편입되어 현재는 5개 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리(行政里)는 15개 리다.

동쪽은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 서쪽은 남면(南面)과 홍천군(洪川郡) 내촌면(乃村面), 남쪽은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과 인접해 있다.

현4리 보다 주민들은 ‘임명골’이라는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한다. 진다리 주유소에서 300m정도 한계령 방면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부대 정문 앞에 다리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 차로 5분 정도 올라가면 사방댐이 나온다. 산제당은 이 사방댐 바로 옆에 있다.

마을 주민들은 산제당을 마을의 보물이라고 한다.(박해봉)

2) 마을제사의 내용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현4리 이장님과 전화연결을 해서 산신제를 매년 두 차례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고 난 후, 약속을 잡았지만, 이장님이 급한 약속이 생겨서 이장님을 만날 수 없었다. 대신 매년 제관을 맡아 산신제를 주도하는 반



산제당 앞에서 설명하는 박원의 제보자

장님 연락처를 알려주어 반장님께 전화를 했다. 다행히 박원의 반장님은 친절하게 위치를 설명해주겠다고 하며 부대 정문 앞에서 만나 함께 산제당으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박원의 반장님과 함께 산제당에 올라 조사를 했다.

산제당 주변은 매우 잘 정돈되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산제당은 본래 현 위치에서 보다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전 산제당은 현재 산제당에서 골짜기 안으로 한 1시간 가까이 가야 한다고 했다. 워낙 길도 험하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너무 멀고 힘들어서 2008년에 현재의 위치로 제당을 옮겼다고 한다.(박원의)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기린면 현4리 임명골 산신제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치른다. 봄 제사는

정월 14일에, 가을에는 음력 8월 14일에 지낸다.

인제군 관내에 있는 마을제사는 대부분 일 년에 2회, 봄과 가을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화전민의 풍속에서는 봄과 가을을 중요한 계절로 여기게 된 연유가 있다. 화전민들은 생존에 절대적 조건인 생산의 터전인 경작지를 개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강원도 화전민들은 통상 음력 7·8월경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불을 놓아 경작지를 개간하는데, 그 시기는 그 해 가을 아니면 이듬해 봄이었다.⁵³⁾

새로운 개간지를 마련하면서 산의 혜택에 감사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관념으로부터 매년 시기를 가려가며 제의를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싹텄으리라 보는 것이다.⁵⁴⁾

② 제관과 도가선정

제관의 선정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옛날에는 육갑(六甲)으로 생기 복덕을 봤다. 그래서 탈이 없는 사람을 선정했다. 또한 제관과 도가에 선정되면 그 집에 금줄을 치고 대문 앞 좌우에 황토를 놓았다. 금줄은



제사에 30년 넘게 참여한 박해봉 제보자

53)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산간지방의 가옥과 생활』, 1994, p.15.: 요다 치호코는 한국의 화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불 놓는 일을 추계에 행하는 경우에는 8-9월경에 삼림을 벌채하고 점차 나무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개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단 가을에 불을 놓고 이듬해 봄에 타다 남은 통나무들을 모아서 태운 후 개간한다. 봄에 개간하는 경우에는 전년 가을에 삼림을 벌채하고 이듬해 봄 해빙 후 불을 놓아 개간하지만, 4-5월경에 눈이 녹기를 기다렸다가 벌채하고 수목이 건조해지기를 기다려 불을 놓아 바로 개간하기도 한다.”

54) 김정하, 「인제군 산신제의 시기 및 구성 원리 고찰」, 『강원민속학』 제21집, 2007, pp.151~152.

원새끼를 꼬아 창호지를 사이에 끼워 넣어 만들었다.

최근에는 제관과 도가를 주로 이장과 반장이 도 맡아한다. 도가와 제관도 옛날에는 제사 준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일전에 선정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이장과 반장님이 제의 날짜에 가까워지면 마을 운영비나 주민들에게 가구당 5000원씩 제비를 모아 제사 준비를 한다.

제관의 선정방법과 제사 준비과정의 달라진 이유는 산업화에 따른 마을 구성원의 감소가 그 이유인 것 같다. 마을 가구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기 복덕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다 보면 어떤 집은 연속적으로 제관과 도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젊은 층은 마을제



제관을 오래하신 박원의의 제보자

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관 선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장과 반장을 중심으로 제관과 도가를 맡아 마을제사를 준비한다. 임명골 주민들은 예전 방식을 무조건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변화하고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산신제를 이끌어 오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한다.(박원의)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마을에서 집집마다 대략 5천 원씩 각출을 해서 사용했다. 비용이 부족할 때는 마을운영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을 어른들은 산신제가 마을의 보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비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젊은 층도 비록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제기나 제물을 이동할 때 무거운 것들은 차로 제당까지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제물에는 돼지머리, 떡과 메밥, 포, 한지, 소주 등을 올린다. 마을살림이 여유로우면 통돼지를 잡는다. 통돼지는 수돼지를 잡는데, 제사가 끝나면 가구당 돼지를 배분해서 나눠 먹기도 했다.



제당 근처의 제물 준비하는 터

제당 근처에는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는 터가 있다. 메밥을 짓고, 통돼지를 잡을 때는 국을 끓이기 위해 쓰인다.

제주는 예전에는 산신제가 있기 몇 일 전에 제당 근처에 땅을 파서 쌀과 누룩을 섞어 술을 담갔다가 사용했지만, 지금은 소주나 막걸리를 사용한다.

④ 제수준비

마을운영비나 마을주민들에게 5천 원씩 각출을 해서 제비가 마련되면 도가에 선정된 집이나 이장, 반장은 제물을 구입한다. 주로 제물을 현리 시내에서 구입한다.



제당 근처의 화로터

제물을 구입할 때도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품질이 좋은 상품만을 구입해서 사용한다.

제사 당일에는 새벽 4시~5시 사이에 제당에 와서 메밥을 짓고, 제물들을 준비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특별히 예복을 갖추지는 않고, 평상복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 입는다.

⑤ 금기방법

제관과 도가의 금기는 제관과 도가에 선정된 사람이 그날부터 지켜야 할 금기사항을 말한다. 전통 마을제사에서는 제관이나 도가에 선정되면 그날부터 대문에 금줄을 치고 대문 앞 좌우에 황토를 놓아 부정한 사람과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그러면서 제관 자신은 외출을 삼가고 성생활을 금하는 등의 금기생활에 들어간다. 특히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상가(喪家)와 산가(産家)의 출입을 제일 꺼린다. 최근에는 황토를 놓거나 대문에 금줄을 거는 절차는 생략한다.

제관과 도가의 금기 중에서 목욕재계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제관과 도가가 목욕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을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산신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마을제사 준비는 그 해 제사를 주관할 제관과 도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제관과 도가는 마을주민 중에서 생기 복덕과 오행을 맞추어서 그 중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기를 맞추기 힘들기



산제당과 제당 안에 걸려있는 한지

때문에 이장과 반장이 제관과 도가를 맡아 제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제비를 수렴해서 제사 전날 현리 시내에서 제물을 구입한다.

제사 당일 새벽 4-5시에 제당 근처에 있는 터에서 메밥을 짓고 제물을 준

비한다.

제물 준비가 끝나면 제단 위에 한지를 깔고 제물을 진설하고, 산제당 안에 마련된 단에 양쪽에 촛불을 켜고, 한지를 새로 걸어놓고 이전 것은 옆에다 옮겨 매단다.

올 가을에 있었던 산신제에는 마을주민 40 여명이 참여하고, 제당에는 총 6명이 와서 제사를 진행했다.(박해봉)

산신제의 진행은 이장이나 반장이 초헌관이 되어 분향재배(焚香再拜) 한 후 술을 한 잔 올린 다음, 축관이 축을 읽는다. 그 다음에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절을 올린다. 그리고 초헌관이 소지를 올린다. 이때 소지한 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산신이 정성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혹시나 소지가 다 타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다시한번 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리고 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음복을 하고 음식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온다. 제사에는 여자는 참여하지 않으나, 식사를 할 때는 여자도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

올 가을에 있었던 2010년 음력 8월 14일(양력 9월 21일) 경인년 산신제의 절차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산신제는 새벽 6시에 시작하였는데, 시작 전에 한 4~5시에 제당에 와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불을 피워서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준비해야돼.

제물을 이동할 때는 보통 마을에서 차에 돼지나, 제기들을 차에 싣고 오는데, 어른들만 주로 제사에 참여하다보니까 무거워서 못 들잖아. 그럼 젊은 사람들이 차로 실어다 주는거지.

제물 준비가 끝나면 우선 제당 안에 촛불을 키고, 한지를 걸고, 제단 위에 깨끗한 한지를 깔고 제물을 하나하나 올린다고. 그런 다음에 제당에 온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절을 올리고, 이장이나 반장이 초헌관이라 둘 중에 한명이 먼저 절을 하고 술을 올려. 그리고 나서 두 번 절하고, 축 읊을 줄 아는 어른이 축을 읊고 절을 한 후에 소지

를 올리지.

소지 올릴 때도 소지축원을 하는데 우리 마을은 축문이 없어서 축원을 간단하게 해. 소지올릴 때는 다 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산신님이 정성을 잘 받지 않았다는 징조라 불길하다라고 여겨서 다시 올려준다고.

소지까지 올리고 나면 음복을 하고, 제당 주변에 술잔에 담긴 술을 나눠서 뿌리고 제물을 조금씩 덜어서 좀 남겨두고 내려오는데, 제물을 좀 남겨두고 오는 이유는 산신 밑에 있는 잡신들 먹으라고 남겨두고 오는거지.

제사가 끝나면 동네에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음복도 하고, 음식들을 나눠먹으면서 덕담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제사가 끝나지.(박원익)

② 축문

임명골 산신제의 축문은 따로 없기 때문에 축문 대신 축원 읊는 것으로 대신한다. 축원의 내용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빌고, 농사가 잘되고, 사고가 나지 않고, 주민들 모두 건강하게 한해를 잘 보내게 해달라는 의미다.

(4) 영험담

현지 조사를 하면서 박해봉 제보자는 산신제를 정성껏 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면서 앞으로도 후손들이 꼭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특히 박해봉 제보자와 박원익 제보자는 임명골 산신제는 역사가 아주 길다는 것에 자부심이 강하다고 했다. 박원익 제보자의 경우에는 현4리에 정착한지 40년이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산신제를 해마다 정성껏 지냈다고 하니, 임명골 산신제의 역사는 제법 유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 주민들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낸 후로는 마을에 사건 사고가 없었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제보자들의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원의 제보자와 박해봉 제보자

원래 산제당은 현재 위치가 아니라 한참 산 깊은 곳에 있었다고. 지금 위치에서 몇 십분은 더 들어가야돼. 그러다 보니 너무 멀고 그러니까 제당을 옮겼는데 제당을 옮길 때쯤에 있었던 일인데.

천인석씨가 이장 하실 때, 내가 송이를 한참 따다가 산신제 지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새벽 4시쯤 가기로 하고 제사 준비를 다 해 왔는데, 피곤해서 잠시 누웠다가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게 내가 깜박 잠이 든거지.

한참 깊은 잠을 자다보니 꿈을 꾸었는데 웬 젊은 여자가 흰소복을 입고 나한테 다가와서는 날 막 깨우는거야. 그 바람에 내가 잠에서 깬는데, 웬지 이상한거야. 그러던 중에 산신제 지내러 간다는 걸 내가 깜빡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당에 달려가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제사가 끝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산신님이어서 날 깨우신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박해봉)

작년에 이장님과 마을주민들이 제사 날짜를 깜박 잊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가 방 안에 앉아 계시는데, 자꾸 옆으로 넘어지고 쓰러지시는거야. 왜 그러냐고 물으니깐 '못 먹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상하게 여겨 이 이야기를 마을 어른에게 했더니, 그 이유가 '산신제를 까먹어서 그런거다. 그 어머니가 산신일세.'라고 말씀하셔서 그 날짜에 가서 제사를 올렸던 일이 있었어.(박

해봉)

산신제 다니시는 분들은 제당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고 편
안해진다. 그런데 하다가 안하면 짹짹하고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든다.(박원익)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산신제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주민들이 5천원씩 모은 돈으로 마련한다.
통돼지를 잡고 주민들끼리 모은 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마을운영비를 보태
서 제사를 준비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이장님이나 반장은 산신제에 쓰인 비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한해의 마을제사를 마무리한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임명골 산신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주고, 마을
의 수호신으로써 마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을 갖게 해준다.

둘째, 산신제는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단결의 장이다. 마을 사람들
은 일 년에 두 번씩 지내는 산신제를 준비하고, 제의에 참여하는 일을 통해
서 애향심도 기르고, 주민들과의 화합을 도모한다. 특히 고향을 떠나 외지
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가을 산신제는 추석 연휴에 지내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제사를 함께 올리면서 지연의식을 강화하여 일체감을 갖게 한
다.

마지막으로 임명골 산신제는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준

다. 주민들은 산신제를 마을의 보물이라 여기며 사건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16. 북면 원통2리

아전살이 서낭제



아전살이 서낭당과 신목

1) 조사개요와 마을개관

(1) 조사일시. 조사지. 제보자

조사일시: 2010년 7월 31일 13시~17시

조사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2리. 아전살이 서낭당. 황성중 제보자 댁.

제보자: 윤장희(남,54) 인제군 북면 원통2리. 이장.

황성중(남,32) 인제군 북면 원통2리.

황환배(남,58) 인제군 북면 원통2리. 반장.

진정덕(여,58) 인제군 북면 원통2리.

(2) 마을유래와 개관

북면은 본래 원통, 가역리, 용대리, 남교역, 온정, 송학동, 한계동, 풍전동의 9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계, 원통, 월학, 용대의 4개로 개편 관할하였다. 1945년 38선 이북이 되어 공산치하에 있다가 1951년에 탈환하여 군작전 지구로 되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행정 이양에 따라 민정(民政)으로 돌아왔으나 지금도 용대리의 일부는 군용지로 쓰이고 있다.

원통리는 북면의 면소재지로 조선시대에 원통역(圓通驛)이 있어서 원통이라 하였다.

인제 원통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돼 온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말이다.



열목어 맨손으로 잡기 체험

최전방 오지에서 힘들게 군 생활하던 장병들의 뉘두리로 그만큼 인제와 원통이 산간오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제군과 원통은 이제 그 같은 뉘두리를 ‘인제를 와 보지 못하면 원통해서 못 살겠네’라는 말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원통에서는 매년 겨울에 ‘인제열목어축제’가 개최된다. 2010년에도 1월 16일~24일까지 9일간 원통리 앞강에서 열목어축제가 열렸다. 슬로건에도 원통이라는 지명을 활용해 겨울축제로서 신선미를 전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겨울, 이야기로 통하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기자 기한 즐거움이 넘치는 뭔가 이끌림이 느껴진다.

이번축제는 「신기한 열목어이야기, 신나는 겨울이야기, 정감어린 산촌이야기, 훈훈한 장터이야기, Funny winter farm, 인제열목어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라인아래, 열목어낚시터, 얼음썰매, 얼음축구, 눈썰매 등 눈과 얼음을 이용한 체험행사와 눈 섬, 팽치 기기 등 동심의 놀이 존 마련, 무엇보다 즐거운 산촌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과 시내장터를 연계시켜 방문객에게 5일장 재래시장을 경운기타고 체험하는 시골스러운 즐거움을 준다.

2) 마을제사의 내용

필자가 원통2리 마을제사를 조사하기 위해 이장님과 약속을 하고 원통을 찾았다. 원통터미널 뒷산 정상에 체육공원이 있다며 그쪽으로 오라고 했다. 원통에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찾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다.

원통체육공원은 2004년 착공해서 2009년 4일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의 체육경기 및 문화공간으로 개방되었다. 인제에서 열린 2010년 도민생활체육대회의 경기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이장님은 우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마중 나왔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동행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우사에서 대략 30분 정도 서낭당의 위치와 제사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1) 마을제당의 명칭과 형태

원통2리 서낭당이 있는 곳은 원통체육 공원에서 ‘아름다운동산’ 표지판을 따라 1km 정도 도로를 따라 차로 이동하다보면 강이 보이고, 삼거리가 나온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강을 우측으로 끼고 500m 정도 이동하면 좌측에 원통2리 서낭당과 신목이 있다.



원통2리 윤장희 이장

주민들은 서낭당이 있는 마을을 가리켜 ‘아전살이 마을’이라 한다. 마을유래에 대해 묻자, 아전들이 예전에 이 마을로 많이 도망 와서 살았다고 해서 아전살이 마을이라고 했다.

서낭당은 큰 소나무 아래에 있다. 주민들은 아전살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아전살이 서낭나무’라고 부른다. 신목은 금강송⁵⁵⁾으로 4~500백 년 된 나무라고 한다.

신목은 수령이 많아서 그런지 나무가 많이 휘어졌다. 황환배 제보자는 예

⁵⁵⁾ 금강송은 금강산소나무란 뜻으로 강송(剛松)이라 불리기도 하며, 황장목, 춘양목, 적송 등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황장목은 임금의 관과 왕실을 짓는 데 사용하던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금강송의 분포지역은 금강산 지역에서 백두대간을 따라 강릉, 삼척과 울진, 봉화 일대에 주로 자라고 있다. 금강송의 일반적인 특징은 나무줄기가 곧고 재질이 뛰어나며, 수관이 좁고 곁가지는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수피의 색깔은 아래쪽이 회갈색으로 위쪽은 황적색을 띤다. 나이테는 균등하고 좁으며, 나무의 겉은 곧고 황적색을 띤 심재(心材)부가 일반 소나무보다 훨씬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변재부는 매우 좁다. 줄기의 윗부분은 껍질이 얇고 붉은색을 띠며 아래쪽은 회갈색에 거북 등처럼 육각형으로 갈라진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전에는 서낭당 옆에 소나무가 한 그루 더 있었다고 한다. 그 나무 역시 수명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베어갔다고 한다.

서낭당은 마을이름을 따서 ‘아전살이 서낭당’이라고 한다. 오래 전에는 서낭당이 마을 입구에 있는 기도원 위치했다. 그런데 기도원이 미신을 믿지 않는 종교이다 보니, 서낭당이 있던 자리를 없애버려서 현 위치로 서낭당을 옮겼다.

서낭당은 신목 아래에 돌을 쌓아 만들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막았는데 서낭당의 높이는 1m, 넓이는 1.5m 정도이다.



아전살이 서낭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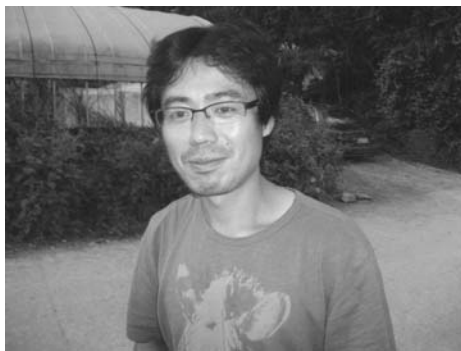
서낭당의 내부에는 나무통을 짜서 한지를 걸 수 있도록 했는데, 예전 제사에 쓰였던 많은 한지들이 걸려 있다.

(2) 마을제사의 준비

① 제의 날짜와 시간

제의 일시는 매력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새벽 6시이다. 마을 주민들은 음력 3월 3일 삼진날과 9월 9일 중앙절은 서낭제를 지내면서 다양한 세시풍속을 즐겼다.

세시풍속이 행해지는 세시명절은 일상의 날과 구별되는 각



황성중 제보자

별한 날이다. 명절에는 이제까지의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한다. 이완은 다음을 위한 충전이다.

특히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은 농사와 봄의 시작을 알리고, 한 해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농업을 생업으로 했던 주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전통상회에서 주민들의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다. 농경의 주기는 세시풍속의 주기와 맞물려 이는 생활의 주기이기도 했다. 세시풍속은 농사의 풍농을 예축 · 기원 · 감사하는 의례였으며, 인간 삶과 직결되어 복을 비는 의례였다. 이때에 즐기는 놀이는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기원하는 의존적 의미를 그 저변에 깔고 있다.

② 제관과 도가선정

아전살이 마을에서는 음력 3월 3일, 9월 9일 마을제사를 지낸다. 제관과 도가의 선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과 생기복덕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했으나 그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금기사항이 많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다보니 제관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특



아전살이 서낭당의 모습

히 마을 인구가 많이 줄다보니 제관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아졌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반장이 제관을 맡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

제관의 금기는 다른 마을에 비해 그리 엄격한 편은 아니다. 다만,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고, 제일 전까지 목욕재계하고 굶은 곳에 출입하지 않는 등의 금기를 지킨다.

③ 제비와 제물

제비는 마을기금으로 했는데, 마을 인구가 많이 줄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참가하지 않아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현재는 제비를 거두어서 사용한다. 마을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3천 원씩 소지 값을 지불한다.

옛날에는 원통2리 전체적으로 마을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규모가 컸지만 현재는 매우 소박하게 마을제사를 올린다.

현재 마을제사에 참여하는 가구는 20호 정도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보니 제물내용도 많이 간소해졌다.

제물은 메, 북어포, 정화수, 소주, 과일 등을 올린다. 제비가 여유가 있을 때는 돼지머리도 올린다.

제물은 반장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 올해는 황환배 제보자가 도가가 되어 제사를 주관했다. 황환배 제보자는 “마을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마을의 전통이 이어지지 못할까봐 걱정”이라고 한다.

가끔 무당이나 신 내림 받은 사람들이 아전살이 서낭당에 와서 정성을 올리고 가고 그린다.

④ 제수준비

제물은 반장이 관리하는데, 깨끗한 것으로 한다. 제비는 마을 주민들이 소지 값으로 호당 2~3천 원씩 내는 것을 모아서 사용한다.

⑤ 금기방법

아전살이 마을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은 반장과 노인회장 등의 마을 어른이 맡아서 한다. 제관의 금기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엄격한 편은 아니다.

제일 전까지 목욕재계를 하고 부정한 곳의 출입을 금한다.

상가에 갔다 왔을 때나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는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제일이 되면 도가집에 모여 재물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함께 한다.



도가를 맡은 황환배 제보자

(3) 마을제사의 진행

① 제의절차

제일은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을 택한다. 제일이 다가오면 반장과 마을 어른들이 상의해서 제관과 도가를 선정하는데, 최근에는 반장이 도가를 맡고 마을어른 중에 한 두 명이 제관을 고정적으로 맡는다.

제의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마을제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끼리 2~3천 원씩 거두어 사용한다. 제물은 메, 북어포, 정화수, 소주, 과일 등을 올린다. 제비가 여유가 생기면 돼지머리도 올린다.

도가는 제사 전날 서낭당에 금줄을 치고 서낭당 주변을 청소한다. 금줄에는 한지를 끼워서 잡신이나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서낭제는 새벽 6시에 시



도가집 경험이 많은 진정덕 제보자(왼쪽)

작한다. 제일이 되면 제관들은 도가집에 모여 서낭제 준비를 한다. 복장은 예복을 따로 갖추지 않고 평상복 중에 깨끗한 것을 골라 입는다.

서낭당에 도착하면, 서낭당 안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물을 진설한다.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천천히 올린다.

제물 진설이 끝나면 참가자 모두 절을 올린다. 그리고 나면 제관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절을 다시하고 술잔을 올린다.

술잔을 올린 이후에는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마을전체 소지를 올리고 나서, 소지 값을 냈던 주민들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제관이 서낭신에게 소지를 올린다. 그 다음에는 제관과 도가의 소지를 올린다. 다음에는 마을어른들과 소지 값을 냈던 주민들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소지를 올릴 때는 무릎을 꿇고 올리는데 소지가 잘 올라가지 않으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시 올린다.

소지축원은 황환배 제보가 하는데 “서낭님 우리 원통2리 아전살이 마을주민들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하고 소지를 올린다.



필자와 원통2리 윤장희 이장

개인소지를 올릴 때는, “○○의 소지입니다. 올해 자식들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집안이 그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하면서 계속 한다. 마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의 특성에 맞는 소지축원을 올린다.

소지를 다 올리고 나서, 참가자들 모두가 절을 올리면 서낭제는 끝이 난다. 서낭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서낭당 주변에 놓고, 술잔을 부어

주는 고수레를 한다. 고수레는 서낭당 주변의 잡신들이 먹으라고 남겨 둔다.

② 축문

옛날에는 축문을 읊었으나 축문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축문을 읊지 않고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만 한다.

소지축원을 할 때는 소지 값을 냈던 주민들의 명단을 적어 서낭신께 올리는 소지-마을소지-제관과 도가의 소지에 이어 올린다.

(4) 영험담

특별히 전해져 오는 영험담은 없다. 마을 인구가 적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서 10~15명 정도만이 제사를 지낸다.

예전에는 서낭당이 마을 입구의 기도원 위치에 있었다. 그 때는 당집이 없고 서낭나무만 있어서 마을제사를 그곳에서 지냈다. 기도원에서 미신이라며 서낭나무 자리를 없애 버렸다.

그 이후 주민들은 치성을 올리지 않으면 마을에 안 좋다고 해서 현재의 위치에 서낭당을 옮겨지었다.

(5) 마을제사의 운영과 결산

결산은 제사를 다 지내고 마을에 내려와서 한다. 반장은 제사에 사용된 비용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마을제사에 사용한다.

제사 비용은 그때그때 다르다. 소지 값을 내는 집들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는 가구당 2~3원 씩 걷는다.

3) 마을제사의 특징

원통2리 아전살이 마을제사는 일 년에 두 차례 지낸다. 제사를 지낼 때 남자들만 서낭당에 와서 한다. 여자들은 제사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도가집에서 제사 준비와 식사 준비만 한다. 그것은 마을의 오랜 전통이다.

옛날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줄고, 제관과 도가의 선정에서 생기를 봐서 선정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반장을 중심으로 제관과 도가를 고정적으로 맡는다.

옛날에 비하면 현재의 마을제사는 많이 약해졌다. 옛날에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참석했지만 인구가 줄고, 교회를 다니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제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상당히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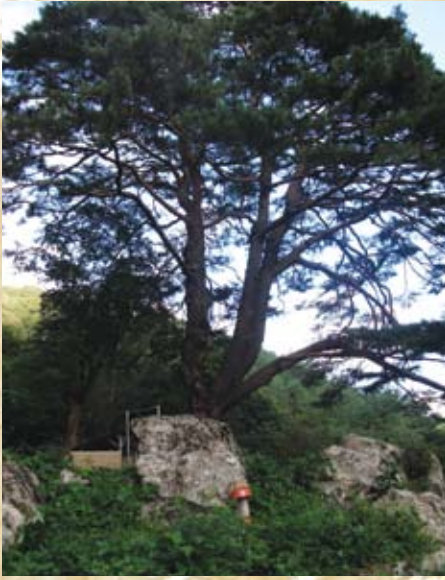


휘어진 신목과 서낭당 사진

참고문헌

- 『인제군사』, 인제군, 1996.
- 『한국의 마을제당』제2권, 강원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7.
- 『한국의 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강원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민속지』, 강원도, 1989.
-
- 박성석, 『한국의민속』, 영남서원, 1993.
- 김정하, 「인제군 산신제의 시기 및 구성 원리 고찰」, 『강원민속학』제21집, 강원도민속학회, 2007.
- 이한길, 「양양군 서낭제 축문 내용 연구」, 『박물관지』제14호,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2008.
- 서영숙, 「음성지역 산신제와 산신설화의 전승양상-이진말과 용대동을 중심으로」, 『새국어 교육』7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 석대권, 「연기군 지역 산신제에 전승과 변화: 연기군 남면 ‘세거리’산신제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제6집, 호서고고학회, 2002.
- 이한길, 「양양군 강현면 서낭제 연구」, 『박물관지』제12호,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2006.
- 조용호, 「지리산 산신제에 관한 연구」, 『동양예학』4권, 동양예학회, 2000.
- 이학주,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화천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이한길,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양양군 어촌 마을의 서낭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이영식,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횡성지역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 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김경남·김종달,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남근 서낭제」, 『강원민속학』11권, 강원도민속학회, 1995.
- 김송근, 「民間信仰에 의한 祈子 呪術圖 考察」, 『예술논집』제4집, 전남대학교

- 예술연구소, 2001.
- 이창식,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원주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정윤수,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홍천지역 동제와 성신앙-팔봉산 당굿을 중심으로-」,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김선풍,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동해안 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김의숙,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춘천의 동제연구」,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정후수, 「성황당의 민속학적 고찰」, 『새국어교육』35권, 한국국어교육학회, 1982.
- 김기설,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태백지역의 동제와 성신앙」,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양언석,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고성군 성황당에 나타난 성의식 고찰」,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서종원,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양구지역 동제의 현황과 특징」,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김경남, 「강원도 성황당과 성민속 : 평창군의 마을신앙」, 『강원민속학』19권, 강원도민속학회, 2005.
- 김의숙 · 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북스힐, 2003.
- 이영식, 『횡성의 서낭당』, 횡성문화원, 2008.
- 장정룡, 『양양군 마을제당 조사』, 양양문화원, 2002.



인제사람들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마을제사와 세시풍속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전승시키고, 풍요와 건강을 획득하고자 했다. 인제군 민속의 생명은 원형적 고유성과 아울러 전승의 변화과정에 오는 재창조성일 것이다.

필자는 내 고향 인제군 마을제사를 조사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인제군 관내에 이렇게 많은 제당과 민속들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웠다. 인제사람들은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 문화를 활용해서 체험마을과 친환경농업마을의 대표 모델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과 지리적인 여건, 전통문화를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마련하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법으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인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서문에서 -



인제문화원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3
TEL: 033-461-6678 FAX: 033-461-0220